

ISSN 1277-1489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RESEARCH

TEXTBOOK

# 교과서 연구

2014. 03. 제 75호

특. 별. 기. 획.  
인정도서 개발의 성과와 과제

한국교과서연구재단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두클래스는 초·중·고 교수·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쉽고 편리한  
교실 수업 지원 사이트,  
**두클래스**



**Douclass**

교실 수업 자료의 모든 것, 두클래스

- 풍부한 학습자료
- 쉽고 편리한 스마트 수업

**두클래스란?** 선생님들께 무료로 제공되는 교실 수업 지원 사이트입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

- 집중이수제 취지에 맞는 수업 지원
- 수준별 학습 가능
- 방과후 수업 대응 가능

**편리한 스마트 수업**

- 교실 특성에 맞춘 과목별 디지털 교과서 제공
- 선생님의 개인별 맞춤수업 교안 작성 가능
- 다양한 수업 모형 제공

**풍부한 학습자료 제공**

- 교과서, 지도서, 이미지, 멀티미디어, 동영상 및 사전 13종 검색 가능
- 문제은행 서비스 제공
-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과목별 콘텐츠 제공

**대상: 초·중·고등 선생님**

- 초등: 음악, 미술, 체육, 실과, 독도, 창의적 체험활동 등
- 중등: 전과목
- 고등: 국어, 문학, 영어, 실용영어, 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와 벡터, 한국사, 한문, 기술·가정, 운동과 건강생활, 스포츠문화, 진로와 직업 등



**교과서연구**  
계간지  
2014년 봄  
통권 제75호

# 목 차

<b>권두언</b>	
04	교과서와 교수 · 학습자료 / Mike Horsley
<b>특별기획 · 인정도서 개발의 성과와 과제</b>	
14	인정도서 정책의 성과와 과제 / 김형철
20	인정교과서 개발업무의 성과와 과제 / 고윤자
24	인정교과서 개발 업무 담당자의 역할에 대한 소고(小考) / 임연숙
28	인정도서 감수 사례(수학) / 황우형
33	인정도서 제도의 현황과 과제 / 김정호
37	'인정교과서 정책 개선 방안' 연구 결과 보고 / 서지영
<b>현장교육</b>	
44	국어-도덕 연계 수업 · 평가 설계 / 방경화
<b>제언 · 교과서 수정 · 보완 모니터링</b>	
55	국어과의 교과서 수정 · 보완 모니터링 활동을 통한 제언 / 조용욱
60	사회과의 교과서 수정 · 보완 및 모니터링 / 김혜환
63	교과서 모니터링의 발전을 위한 제언(수학) / 정종식
<b>연재</b>	
67	싱가포르에서 경험한 교과서 / 박정희
<b>명사 초대석</b>	
72	교과서와 편수관 / 김용만
<b>단상</b>	
77	원심점과 구심점 / 홍후조
<b>탐방</b>	
83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 / (사)한국검정인정교과서 이종원 이사장
<b>독자의 소리</b>	
86	교과서를 통해 세상을 보는 길 / 김선희
<b>교과서 개발 연수후기</b>	
88	연수를 마치며... / 김태현
<b>교과서 사랑 수필 공모 작품 소개</b>	
89	중학교부 수상작 / 정윤희 · 임성재 · 유주영
96	교과서 개발 연수 안내
97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99	교과서 정보관 이용 안내
100	교과서 기증 협조 안내문
102	원고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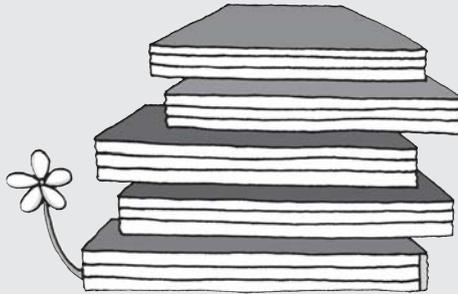
| 발행일 · 2014년 3월 1일 | 등록번호 · 서초 바 0006호 | 발행인 · 선종근 | 편집기획위원장 · 김만곤 | 편집기획위원 · 김병규, 김정호, 이승표, 이화성, 홍후조, 홍미화 | 편집기획 간사 · 유순기 | 발행처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우137-80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47 | 전화 · 02-2651-1953, 02-6206-6357 | 팩스 · 02-2651-1982 | e-mail · editor@textbook.ac http://www.textbook.ac | 표지디자인 · 김운철 | 디자인 · 신성인쇄상사 02-2272-0345 | 인쇄 · (주)미래엔 02-3475-4092

\*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의 내용은 편집진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교과서와 교수·학습자료



**Mike Horsley**  
세계교과서연구학회 회장



## □ 머리말

국제교과서·교육미디어연구협회(IARTEM)는 중요한 연구단체입니다. 우리 연구진은 학습과 교육에 관련된 교과서 및 교수·학습자료 연구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두 가지 주제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교과서와 교수·학습자료에 담긴 내용으로, 그 교과서와 교수·학습자료가 학습에 충분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연구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교사가 교실 수업에서 학생들과 함께 교과서와 교수·학습자료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교사들이 교과서와 교수·학습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고 그러한 자료를 어떻게 개발하고 디자인하는지에 관해 연구합니다.

IARTEM은 11개국 학자로 구성된 이사회와 34개국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ARTEM은 인쇄물이든 디지털 자료든, 교과서든 교사가 구안한 자료든, 학습을 돕고 촉진하는 교수·학습 자료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IARTEM 회원들은 나라마다 학교교육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다르고 이에 따라 교과서와 같은 교수·학습자료의 사용과 평가도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는 여러 나라에서 교과서 연구의 골격이 되고 있는 주요 지표에서 나라마다 다른 차이점들을 검토한 것입니다.

## □ 교과서 예산 운용

교육 시스템에 따라 교과서 및 교수·학습자료 관련 예산도 다양하게 운용됩니다. 대부분의 국가 예산 시스템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Horsley, 2012, Nettle 2001). 어떤 나라는 학교와 교사, 학부모가 총체적 학교 예산 속에서 교과서를 구입합니다(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 정부에서 교과서와 교수·학습자료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나라도 많은데 일본과 한국은 중앙정부에서, 캐나다는 주정부나 지역정부, 핀란드는 지방정부에서 담당합니다. 이처럼 상이한 예산 시스템은 교육 시스템의 형평성과 불평등에 영향을 미칩니다(Horsley, 2012). 일반적으로 교과서와 교육자료에 들인 비용을 나라별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은데(Horsley, 2012), 대부분 OECD 국가들이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수·학습자료의 비용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교사와 교장들의 증론에 따르면 교육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투자가 어떤 것인지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교과서 관련 예산과 투자가 나라마다, 또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 또 다른 면을 살펴보면, 교수·학습자료 예산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나에 따라서(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공·사립, 혹은 수업료가 비싼 특정 사립학교나에 따라서, 학교의 사회적 평판과 그 학교 학생(학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 차이점들이 세계적으로 교실에서 사용하는 교수·학습자료의 조달에 수평적·수직적으로 커다란 불균형을 형성하게 됩니다.

## □ PISA와 TIMSS에 참여하는 주요국의 교과서와 교수·학습자료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상위권인 나라들은 학생과 교사들이 국가 교육과정을 구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실과 교사들의 차원에서 교수·학습자료와 교과서를 제작하고 예산을 배정합니다. 핀란드, 일본, 한국, 홍콩, 상하이(PISA), 싱가포르(TIMSS) 정부에서는 특별한 규정과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에 필요한 교과서와 교수·학습자료 관련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수업을 지원합니다(Horsley, 2012). 교사와 학교는 민간 출판사에서 개발한 교재 중에서 가장 적합한 교과서와 교수·학습자료를 자유롭게 선정·채택합니다. 이러한 나라들의 출판사들은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학습을 지원하는 자료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출판사들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과 접촉하고 교사들의 조언을 받아 교재의 적절성을 검토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교재를 만들고자 합니다. 수업은 교과서 내용을 무작정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자료 활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교수·학습 활동의 중요한 면모입니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을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과서와 교수·학습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오랫동안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수위를 차지해온 핀란드 같은 나라는, 학생들이 교수·학습자료를 보다 쉽게 이용하도록 하고 교육이론이 교과서에 더욱 잘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ICT 자료는 다른 비(非)디지털 자료들이 설 자리가 없게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디지털 학습에 대한 투자는 ICT의 이용이 학습성취도를 향상시킨다는 충분한 증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CT는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여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는 있습니다.

## □ 교과서와 교수·학습 인증 및 표준·품질 관리

국제적으로 교과서와 교수·학습자료 개발·제작은 지속적이고 상호적인 작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 같은 나라는 민간에서 교과서를 제작하는 자유 시장 체제에서 교사와 학교에 교과서와 교수·학습자료 구매 및 판매 결정을 전적으로 위임합니다. 이 시장에는 교육 출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직접 자신이 사용할 교과서와 교수·학습자료를 집필·편집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시장 진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이와 달리 교과서 개발과 발행이 정부에 의해 공식적 채택 및 승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정부가 직접 제작·발행하는 나라도 있습니다(Wilkins, 2012)(세르비아). 많은 나라들이 교과서 승인·채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오스트리아, 체코, 싱가포르, 칠레). 윌킨스는 교사의 자질이 낮을 때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교과서의 중요성은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했지만, 이처럼 상이한 제도가 교과서와 교수·학습자료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Wilkins, 2012). 국제 수학 교과서 비교연구에 따르면, 수학 교과서의 외형 체제, 내용, 설명 형태, 그 교과서에 적용된 교육이론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교과서의 용도는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교육 상황에 따라 파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Valverde et al, 2002).

## □ 교사들의 교과서 및 교수·학습자료 사용과 개발

개별 교사들은 점점 자신에게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원을 개발하고 있으며, 학교는 교실에 교수·학습자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학습자료 사용을 포함하여 21세기에 요구되는 교수·학습 활동 및 교육이론에 적합한 자원이 다양화함에 따라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수·학습자료도 점점 더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점점 더 학생들의 요구에 보다 적절한 교수·학습 자료원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습을 위한 자료의 디자인이라기보다는 학습 자체에 대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같은 정형화된 자료, 상업적으로 제작된 교수·학습자료는 이를 사용하는 교사들이 변형·조정하고 효율성을 높입니다. 각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인쇄 및 디지털 교과서, 교수·학습자료원을 이용하고, 이 과정에서 교수 전략과 학습 전략이 서로 연계되는 것입니다.

## 새로운 연구영역

교사들의 수업계획, 그리고 교수·학습자료의 선정·평가·준비·사용과 교수·학습 전략 간의 연관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연구를 보면 교수·학습자료에 대한 접근과 교사들이 개발한 교수·학습 전략의 조정 및 유형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교수·학습자료를 사용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면 어떤 교사들은 적용하고 싶은 교수·학습 전략의 유형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IARTEM은 교수·학습자료 이용의 표준 개발을 위한 국제적 활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 References

- Horsley, M. (2013). Global trends in textbook research. In Korea Textbook Foundation, The Use and Outlook on Textbooks in Instruction and Assessment, Korean Textbook Foundation: Seoul 13-42
- Horsley, M. (2012). Investment in classroom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equity and access in providing classroom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in Australian schools. Australian Publishers Association: Sydney. 1- 112
- Nettle, K. (2001) International Aspects of Expenditures on Schoolbooks. In Horsley, M. & Lambert, D. (2001). The secret garden of classroom and textbooks. In M. Horsley (Ed.), The future of textbooks: Research about emerging trends (pp. 8-24). TREAT: Sydney.
- Mullis, I.V.S., Martin, M.O., Foy, P., & Arora, A. (2012). TIMSS 2011 International Results in Mathematics. Chestnut Hill, MA: TIMSS & PIRLS International Study Center, Boston College.
- Martin, M.O., Mullis, I.V.S., Foy, P., & Stanco, G.M. (2012). TIMSS 2011 International Results in Science. Chestnut Hill, MA: TIMSS & PIRLS International Study Center, Boston College
- Wikman, T. & Horsley, M. (2012). Down and Up: Textbook research in Australia and Finland. IARTEM eJournal, Vol. 5, No. 1, pp.45-53.
- Wilkens, H. (2011). Textbook approval systems and the Program for Student Evaluation (PISA) results: A preliminary analysis. IARTEM eJournal, Vol. 4, No. 2, pp.63-74.

# Textbooks and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Internationally

—Professor Mike Horsley(President of the IARTEM)

## □ Introduction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in Textbooks and Educational Media (IARTEM) is a major international research group. IARTEM researchers focus in the investigation of textbooks and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in learning and education. Their research emphasises two themes. The first theme concerns the features of textbooks and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and the ways that these features of textbooks and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constrain or afford learning from them. The second theme concerns that the ways that teachers use textbooks and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with their students in the classroom; and how teachers mediate the use, development and design of textbooks and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IARTEM has board of directors drawn from researchers in 11 different nations, and its membership comprises researchers from 34 different countries. IARTEM believes in the importance of teaching and learning resources(both print and digital, both textbooks and teacher designed materials) in supporting and promoting learning. IARTEM members know that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schooling and the subsequent use and valuing of different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like textbooks is very different in each country. The following paper examines differences between nations in a series of key indicators that frame the investigation of textbooks in different counties.

## □ Funding of Textbooks

Different education systems fund textbooks and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in different ways. Most national funding systems are complex and difficult to understand (Horsley, 2012; Nettle, 2001). In some countries, schools, teachers and parents finance textbooks from global school budgets (Australia, United Kingdom). In many countries Governments provide funding and financing for textbook and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either through national governments (Japan, Korea) , state and regional governments (Canada) and local governments (Finland). These different funding systems also influence the equity and inequality of the education system (Horsley, 2012). Generally it is not possible to compare international expenditures on textbooks and educational materials (Horsley, 2012), partly because most OECD nations, do not collect data on investment in classroom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used by teachers and students in the classroom. This makes it difficult to identify the inputs in education, that in the opinion of many teachers and principals, most impact on student outcomes. Another aspect of differences in funding and investment in textbooks between and within nations is that there are major differences in how classroom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financing differs differ by level of education by primary and secondary (Holland, Australia, United States), by sector (government, non-government and high fee independent schools), by state and by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he school and its students. These differences produce great horizontal and vertical inequity in the provision of classroom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in the world's classrooms.

#### □ Textbooks and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in leading PISA and TIMSS nations

In nations leading international measures of student achievement, classroom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and textbooks are produced and funded at the classroom and teacher level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curriculum for students and teachers. In Finland, Japan, Korea, Hong Kong and Shanghai(PISA) and Singapore(TIMSS) governments provision teaching through specific policies and by funding textbooks and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that support learning in the national curriculum (Horsley, 2012). The materials are produced by private commercial publishers, and teachers and schools are free to evaluate and select textbooks and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that best suit their needs. In these nations publishers are seen as key stakeholders in the development of resources to support learning and curriculum implementation. They are provided access to schools, students and classrooms and can trial and refine materials to support learning with the assistance of teachers. Lessons are not dominated by slavish adherence to textbooks, but are supported by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that are seen as important aspects of teaching and learning. These education systems acknowledge the role of textbooks and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in student achievement and successful pedagogy. Nations such as Finland, who are leading international measures of student achievement over the long term, provide greater access to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for their students; and their pedagogy is more structured around textbooks(Wikman and Horsley, 2010). ICT resources are crowding out spending on other non-digital classroom teaching and learning resources. Digital learning investment in both hardware and software is occurring without clear evidence that ICT spending increases student achievement. Research does indicate that ICT promotes student interest.

#### □ Textbook and teaching learning approvals, standards and quality controls

Internationally, textbook and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development and production can be considered as a continuum. At one of this continuum countries like Australia and England have a free textbook market with private commercial textbook production, free markets and purchasing decisions about textbooks and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completely in the hands of teachers and schools. There are a large numbers of educational publishers. In such a context, teachers can write their own textbooks and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and sell them ? there are no barriers to entry (Finland, Ireland, Italy, Norway). At the other end of this continuum textbook development and production are dominated by official adoption and approval procedures and Government produce and print textbooks (Wilkins, 2012) (Serbia). Many countries have approval and adoption systems (Austria, Czech Republic, Singapore, Chile).It is not clear what impact these different systems have on the quality of textbooks and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although Wilkins suggest that's the importance of textbooks in providing a quality education is greater when teacher qualifications are lower (Wilkins, 2012).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the features of mathematics textbooks(Valverde et al, 2002) concluded that although the physical structure, content, presentation and pedagogy of mathematics textbooks were different ? their use could only be understood in relation to sociocultural educational practices in each country.

#### □ Teacher use of textbooks and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and teacher mediation and production of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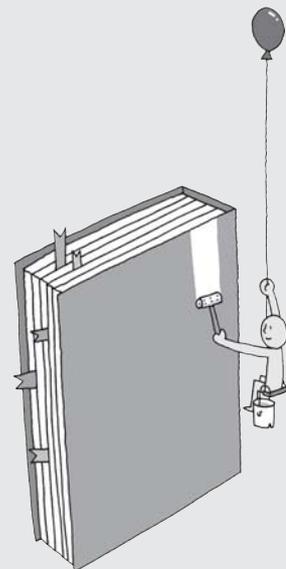
Individual teachers are increasingly developing their own classroom teaching and learning

resources, and schools want to play greater roles in the process of investing in classroom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Teachers are using a wider variety of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from an increasing variety of sources to support their teaching and learning and pedagogy in the 21st century, including use of digital learning resources(Horsley, 2013; TIMSS 2011). Increasingly, teachers seek to match the teaching and learning resources to the learning needs of the students in their classes. This shift has been described as learning design, rather than design for learning. Prefabricated resources such as textbooks and commercially produced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are modified, adapted and augmented by teachers as they are used. Individual classroom, teacher and student access to print and digital textbooks and teaching and learning resources and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are linked.

#### □ New areas for research

More research is needed about teacher planning of teaching, and the links between selection, evaluation, preparation and use of classroom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and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Research has shown that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access to teaching and learning resources and the mediation and types of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developed by teachers. Restricting and limiting access to teaching and learning resources influences some teachers to limit the types of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they utilise. IARTEM is leading an international movement to develop standards for the use of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in the classroom. 

References : 7쪽 참조



특.별.기.획.

## 인정도서 개발의 성과와 과제

- △ 인정도서 정책의 성과와 과제
- △ 인정교과서 개발업무의 성과와 과제
- △ 인정교과서 개발 업무 담당자의 역할에 대한 소고(小考)
- △ 인정도서 감수 사례(수학)
- △ 인정도서 제도의 현황과 과제
- △ ‘인정교과서 정책 개선 방안’ 연구 결과 보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이루어진, 2011년 8월 9일의 각 교과별 교육과정 개정은, 교과서 정책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2011년 8월 16일, 국·검·인정 구분고시가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국·검정 중심이던 교과서 정책이 인정 중심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2010 교과서 선진화 방안' 발표에서 이미 예견된 것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용도서 보급을 위한 인정도서 확대 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전국 16시·도 교육청에서는, 대체로 2명 내외의 인력을 운용하여 전체 국·검·인정 교과서의 84%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 인정도서 495종을 심사·개발해 내었다.

이러한 실적은 우리나라 교과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으므로 이 업무의 경과를 살펴보고 정리해 두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다음 교육과정에서는 어떤 형태의 국·검·인정 구분고시가 이루어질 것인지, 인정도서는 어떻게 개발·심사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편집 기획은 그러한 일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 인정도서 정책의 성과와 과제



**김형철**  
교육부 교육연구관

## I. 인정도서 확대 정책과 교과서 개발

2009년 총론 중심으로 개정되었던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2011년 8월 9일, 대부분의 교과 교육과정이 개정 고시되었다. 이에 따라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고시('11.8.16)가 이루어졌다. 주요 특징은 국·검정 중심에서 인정도서 중심 체제로의 전환이다. 이는 '2010 교과서 제도 선진화 방안'에서 발표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용도서 보급을 위한 인정도서 확대 정책과 맞물린다.

현장 교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인정도서 개발 체제, 검정도서보다 더 충분히 확보된 기간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교과서의 개발, 인정 여부에 대해 부담을 가지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높은 심사 합격률 등이 인정도서 확대의 장점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인정도서 확대 정책의 주요 변화는 중앙 정부 중심의 교과서 개발 체제에서 시·도교육청 중심 개발 체제로의 전환이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기초한 교과용도서의 개발을 시·도교육청에서도 얼마든지 개발 가능하게 열린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동안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정도서 개발기관들과 수도권 중대형 출판사들이 담당했던 일들이 시·도교육청 및 각 교육기관, 지방 중소 발행사에까지 파급되었다.

## II. 인정도서 분담 개발 체제 구축

2011년 8월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제2011-29호, '11. 8.16)에 이어, 2012년 4월 '실용경제'가 추가되면서 총 495종의 인정도서가 시·도교육청이 주도하는 인정도서로 확정되었다. 국정도서 53종, 검정도서 43종, 인정도서 495종 총 591종의 교과용도서 중 인정도서가 차지하는 비율은 84%에 달했다. 표1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8년 국정도서가

[표 1] 국·검·인정도서 비중의 변화

구분고시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2008-147호('08.8.28)	530종(66%)	157종(20%)	111종(14%)
2009-4호('09.1.21)	442종(54%)	181종(22%)	191종(23%)
2011-14호('11.2.23)	334종(39%)	138종(16%)	392종(45%)
2012-6호('12.4.20)	53종(9%)	43종(7%)	495종(84%)

\*별도의 종류로 구분된 전자저작물 CD 등은 제외하고 서책형 교과서만 합산한 종수임

[표 2] 시·도 교육청에 배분된 인정도서 수

학교급	심사도서	개발도서	합계
중 학교	32종	12종	44종
고등학교	75종	376종	451종
합 계	107종	388종	495종

66%였으나 2012년에는 9%로 매우 낮아졌고, 14%였던 인정도서의 비율은 84%까지 대폭 확대되었다. 현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도덕, 사회(역사, 도덕) 교과만이 검정도서로 구분되고, 교과 전문교과를 비롯한 대부분 교과가 인정도서로 전환되었다.

이에 대한 우려는 수도권 등으로 교과서 인정 업무가 집중될 경우에 오는 해당 시도교육청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인정도서 확대 취지의 맞지 않은 특정 지역 중심의 인정 체제 집중화였다. 다수의 교과서가 인정도서로 확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별 인정도서 분담 체제로 교과서를 개발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심사도서 107종, 개발도서 388종 등 총 495종의 서책형 교과서가 분담 방식으로 시도에 배분되었다. 인정도서 업무 경험이 많고, 지역이 넓은 수도

권 교육청이 보다 많은 인정도서를 분담하였고, 나머지 교육청은 25종 내외의 인정도서를 분담하도록 협의되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81종, 경기도교육청 66종을 필두로 많은 교육청들이 최소 20여종 이상의 인정도서를 분담해 교과서 개발을 추진하였다.

시도교육청별 업무 담당 인원은 2명 내외였다. 상당수는 전문적인 인정도서 업무 경험이 없이 행정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배치되었다.

교과서 업무는 상당한 전문성을 요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인정 업무 추진을 위한 시도 인정도서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 연수가 필요했다. 우리 부는 인정도서 행정, 개발, 심의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 연수, 개발비 지원, 업무 매뉴얼 개발·보급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인정도서 개발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먼저 시도인정도서협의체를 조직하고, 각 시도별 인력 충원을 통해 안정적인 인정도서 업무를 추진

[표 3] 시·도 교육청별 인정도서 분담 내역

시도교육청	인정 대상도서(종수)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심사	개발	심사	개발	
서울특별시교육청	81	12	4	3	62	
부산광역시교육청	30	2	·	5	23	
대구광역시교육청	28	2	·	3	23	
인천광역시교육청	28	3	·	9	16	
광주광역시교육청	24	2	·	6	16	
대전광역시교육청	24	·	4	3	17	
울산광역시교육청	21	·	2	3	16	
경기도교육청	66	4	0	19	43	
강원도교육청	25	2	·	1	22	
충청북도교육청	25	4	·	4	17	
충청남도교육청	29	·	2	1	26	
전라북도교육청	24	2	·	3	19	
전라남도교육청	24	2	·	0	22	
경상북도교육청	25	2	·	1	22	
경상남도교육청	23	2	·	0	2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8	2	·	5	11	
합계	495	41	12	66	376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정도서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집중 연수를 실시하였고, 주기적인 인정도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이외에도 인정도서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여, 업무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업무 매뉴얼은 매년 업그레이드를 통해 당해 연도 업무담당자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담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인정도서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연수뿐만 아니라 집필진·심의진 연수도 실시하였다. 시도교육청 차원이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도 실시하여, 인정도

서 정책과 개발과 심의 업무에 대해 안내했다.

뿐만 아니라 인정도서 감수를 통해 인정도서의 질 관리가 보다 잘 이뤄지도록 보완했다. 이는 시도교육청 인정도서 심의 과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양질의 인정도서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장치였다.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인정도서의 개선에 기여하였다고 본다.

시도교육청 인정도서 분담 체제는 일시에 많은 인정도서가 한꺼번에 개발되는 과정에서, 시도의 업무를 균형적으로 분담하고 안정적인 개발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방안의 하나였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의 노력과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의 협조로 2013~2014년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가 차질 없이 학교 현장에 공급될 전망이다. 이는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집필진과 심의진, 인정도서 업무 담당자가 합심하여 인정도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 III. 인정도서 정책의 성과와 의의

#### 1. 다수 개발·심의 기관의 참여에 의한 다원적인 개발 체제 시도

인정도서의 확대는 중앙집권적 개발 방식에서 보다 다원화된 개발 시스템을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국가 수준의 교과서 개발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이제는 전국 시·도 어디에서도 기존의 국정도서 수준 이상의 양질의 인정도서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시·도교육청이 교과서 개발 업무에 시·도별 우수 인력을 투입한다면, 전국 공통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양질의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각 지방의 대학과 중등학교에서도 개발 기관으로서의 역할자로서 참여하여, 교과서 개발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교과서 개발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해와 개발 역량을 갖게 되었다.

여러 교과에 각각의 장점과 우수 인력을 갖춘 기관들이 참여하여 양질의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조성된다면,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과서를 양산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2. 현장 교원들의 참여 기회 부여 및 현장 중심의 교과서 개발에 기여

교과용도서의 인정 비율 대폭 확대는 현장 교원들이 직접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고, 활용하게 하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 각 시도교육청을 대표하는 현장 교원들이 많이 참여하여 교과서를 개발한 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일이다.

실제로 각 시·도교육청별 인정도서 개발에는 지역별 해당 학교의 전공 교과 교원들이 참여하였다. 일반적으로 교과서를 대학 교수 중심으로 개발하였을 때, 지식 중심의 교과서 개발로 인해 학생 수준을 고려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장 경험과 요구를 담으려는 교원들이 참여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 3. 인정도서 개발과 사용의 편의성 확대

인정도서는 국·검정도서와 달리 집필자가 원하면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되어 있고, 국가 수준의 구분고시에 의해 교과목으로 기술되지 않은 과목도 학교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므로 집필진이 얼마든지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과서를 개발하고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또한 기존의 인정도서에 더하여 새로운 관점의 교과서를 인정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 IV. 향후 과제

#### 1. 인정도서 심의 방식의 검정 준용 재고

인정도서제의 장점을 살리려면, 현재의 검정 심사제도 준용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현재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하여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9조·제10조·제10조의2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특히 제9조 ‘검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에 근거하여 인정도서

를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하는 기초조사와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본심사를 거쳐 최종 인정하는 심의까지 거치게 될 때, 그 절차적 번거로움과 소요되는 기간이 인정제의 장점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인정도서제는 교사 등의 집필진이 교과서를 개발하였을 때, 편리하고 단순한 절차를 거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보다 개방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sup>

가령 종합적인 심의를 하는 방식의 단심제를 취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도서는 수정·보완 후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바꾸면 간편하면서도 실질적인 심의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형식적 번거로움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상시 인정제를 도입하여, 인정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 2. 인정도서 공급 체제의 재정비

인정도서의 신청은 구분 고시된 과목에 대해서는 사용하려는 학기가 시작되기 6개월 전까지, 구분 고시되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는 3개월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허용이 교과서 공급 체제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교과서 공급은 기간본은 7월, 신간본은 9월에 주문을 받아 생산에 들어가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므로 전국 단위로 공통 사용하는 인정도서 기간본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7월 이전에 인정 신청을 받아야 하고, 신간본을 인정받으려면 8월 이전에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런 경우 9월까지 신청하여 인정받으면 10~11월에 인정이 되므로 전국 단위 인정도서 배포는 어렵게 된다.

결국 인정도서제가 충분한 개발 기간을 가지고 만들어서, 양질의 도서를 학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살리려면 인정도서제에 적합한 주문-

공급 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국·검정 공급 시스템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 3. 전문성 있는 인정도서 연수 실시

인정도서 개발·심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집필진과 심의진에 대한 전문성 있는 연수가 실시되어야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아예 일정한 기간의 공식적인 연수를 받지 않으면,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함람 미달의 교과서가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초·중등학교 교원들에 대한 연수뿐만 아니라 대학 교원들에 대한 연수가 시급하다. 전공 지식을 학교 현장에 적합하게 재구성하여 교과서에 담을 수 있도록 교과서 집필, 편집, 구성, 이미지 및 사진 활용 등에 필요한 실용적인 연수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집필 참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인된 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교과용도서 개발·심의 연수를 진행하고, 교과서 개발에 관심이 있는 누구누가 신청·참여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 4. 인정도서 개발 매뉴얼 제작·배포

인정도서의 확대에 따라 교과서 개발이 확대되었지만, 정작 교과서를 개발하고자 해도,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교과서 집필에 관심을 가진 현장 교원 등이 인정도서를 보다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인정도서 개발 매뉴얼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4년도 상반기에 인정도서 개발에 관한 매뉴얼이 개발되면, 전국 학교 교원들에게 PDF 파일로 제공하여, 필요할 경우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매뉴얼에는 실제 교과서 개발에 도움이 되는 전반적인 사항들이 수록된다.

1) 인정제가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검정제를 엄격한 검정제와 느슨한 검정제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5. 개발 예산의 확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정도서의 개발비가 책당 1억원, 검정도서의 경우 2~3억원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인정도서의 개발비는 책당 4천 5백만원, 심의회비 500만원 정도가 지원되었다.

개발비 4천 5백만원에는 출판사의 편집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최소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개발하고, 교과서의 편집에 사진, 삽화, 디자인 등을 포함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할 때 4천 5백만원은 부족한 금액이다. 향후 인정도서의 개발비는 최소한 국정도서 수준에 버금가도록 책정될 필요가 있다.

## 6. 시·도 인정도서 분담 체제와 담당 인력

현행의 인정도서 분담 종수는 시도 인정도서 업무 담당자가 2명 정도인 것을 감안했을 때 관리하기에는 과다하다. 향후 시·도교육청별 분담 체제가 가동된다면 매년 5~10종 정도가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

또한 교과서의 질 관리 업무는 교육전문직이 담당하고, 행정 처리는 행정적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하여 인정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과서 개발의 질은 결국 투입 인력의 질과 비례한다. 교과서 개발에 대한 교육적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좋은 교과서가 만들어진다.

## V. 마무리

교과용도서 국·검·인정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국정제는 질 관리 차원에서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교과서를 공급할 수 있는 체제인 반면,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지 못하고 국가적 입장에서

개발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 반면에 인정제는 교육과정과 인정기준에 대한 기준에 기초하되, 개발이 보다 자유롭고 융통성 있게 운영될 수 있다. 현장의 필요에 맞춰 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특정 지역·학교에 맞춤형으로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질 관리 차원에서의 상대적으로 오류가 많을 수 있다는 단점은 감수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인정제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려면, 다원화된 관리·운영·집필진·발행기관들이 충분한 인력 지원, 재정 투입, 기반 구축을 바탕으로 인정도서 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공통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를 위한 상호 네트워크(협의)를 형성하고, 기본적인 처리 기준을 준수하고 충분한 재량권을 가지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현장 중심의 인정도서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다년간에 걸쳐 국정도서와 인정도서 업무를 경험하면서, 정책 담당자로서 다양한 교과서 관련 일들을 처리해 왔다. 일의 성공은 마음이 담기느냐에 달려 있다. 교과서 업무 관계자들 중에 교과서 개발에 마음을 쏟고, 영혼을 불어 넣는 사람들은 그 열매가 남 다르다. 결과물인 교과서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다.

시도 인정도서 업무 담당자, 집필진, 심의진, 발행사들이 인정도서 개발에 마음을 다할 때, 몇 배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다는 가장 상식적인 말로 마무리하면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인정도서 개발의 경험이 향후 인정제 발전에 기여하는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필자소개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 김형철 교육연구관(문학박사)

# 인정교과서 개발 업무의 성과와 과제



**고 윤 자**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 I. 들어가며

‘2010 교과서 제도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국정도서의 검정 전환 확대 및 검정방식 개선, 인정도서 확대이다. 이는 교사들이 자체 제작한 학습 자료나 시중의 일반서적도 인정 절차만 거치면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교과서의 지속적 질 관리 및 외형체제 개선은 교사들의 자율성, 창의성을 요구하는 계획으로 학교 현장의 교실수업의 새로운 변화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수업 방식이 강의식 설명식이 아닌 토론식, 탐구식 수업이 더욱 강조되고 이에 적합한 교과서 개발이 요구되었다.

학생들의 꿈을 이루게 하는 교과서 개발은 구분·고시를 통해 결정된 인정도서를 16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위임받은 인정 교과서의 개발·심사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기존의 인정도서 업무에서 구분고시 및 법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들은 일정 기간 업무 매뉴얼에 대한 연수의 기회가 주어졌고 이후 2014년 적용 인정도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 인정도서는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로 볼 때 업무 흐름이 매뉴얼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발상의 전문성, 심사의 중립성, 업무 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파악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이다’라고 할 만큼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핵심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인정 교과서는 내용의 정확성과 인정 승인의 과정의 적법성과 합리성, 과정의 투명성을 갖추어 적시에 개발·보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 II. 인정교과서 개발의 성과

교사의 성직자적인 신념이 짧은 기간에 적은 예산으로도 기간본보다 양질의

인정 교과서를 개발하게 되었다. 물론 수정·보완을 위해 함께한 현장 교사들의 노력은 시간과 예산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었고 이는 국정·검정에 뒤지지 않는 좋은 인정 교과서의 기본이 되었다. 개발 대표자 및 집필진에게 인정 교과서 개발의 방향, 개발상의 유의점, 개발될 인정 교과서의 교육과정 등을 안내하는 연수를 통해 인정 교과서 개발에 대한 일반적인 안목을 가질 기회를 제공했다. 1회성 연수가 아닌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수시로 궁금증을 풀어주기도 하였다. 1차 개고본의 검토를 위한 기초조사에서 교육과정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인정교과서에 담길 내용의 적절성, 삽화, 컷 등의 내용체제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수정·보완하도록 개발진에게 안내하였다. 이를 반영한 수정본을 다시 본심사에 준하는 2차 심사에서 헌법 정신과의 일치, 교육의 중립성 유지, 지식재산권의 존중 여부, 교육과정의 준수, 내용의 선정 및 조직,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정 교과서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심사기준 항목에 따라 심사하였다. 재택 검토를 통해 심사진 개인적인 기준을 도출하고 숙박 심사를 통해 기준의 통일성을 기했다.

인정 교과서의 개발은 교과 전문성을 갖춘 전공 교수를 비롯하여 학교 현장의 교사, 자체 윤문진, 연구진, 단원별 집필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전공 교수들의 학문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교사의 현장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인정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는 기존에 교과서 개발에 참여했던 전문가들과 새롭게 참여하게 된 새로운 전문가들의 협력으로 교과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시너지 효과도 얻게 되었다. 교육부장관의 권한 위임은 인정 교과서가 그동안 서울 중심으로 개발 주체가 지방으로의 분산되는 효과도 갖게 된 것이다. 교육의 중립성 차원에서 고무적인 일의 시작이라 할 만하다.

교과서는 주어지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냈다.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은 만들어서 가르치는 교과서의 개발로도 이어졌다. 교사들이 자체 제작한 학습자료가 인정 절차를 거치면 교과서로 사용 가능하다는 교사의 교수권을 반영한 교과서의 개발이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교육은 학습자의 학습여건에 맞게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배가된다. 교육은 마땅히 수요자 중심이어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현장지도 경험과 학생에 대한 안목이 교과서에 반영이 될 때 현장 밀착형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인정 교과서가 전국 시·도에서 개발됨으로써 학교 현장 교사들의 교수방법이 교과서와 연계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 측면이 있다. 기존에도 교사들은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개인 연구뿐만 아니라 교과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학습 방법에 대한 논의들을 해 왔다. 그러나 그 결과를 전국의 교실현장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기 그리 많지 않았다. 현장교사의 개인적인 한계를 교수진의 연구력과 1차, 2차 심사 과정과 감수 과정을 통해 학문적인 오류를 수정하고 이를 보완하는 과정 속에서 학문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결과도 갖게 되었다. 큰말이 나가면 작은말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다. 언제까지나 큰말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은 큰말을 대신하는 작은말을 큰말로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교과서의 개발이 작은말을 큰말로 키우기도 했고 한 곳에 집중되는 집필 편향성을 개선하는 방안으로도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서 업무의 부담이나 전문성의 부족에도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위한 16개 전국 시도교육청 인정도서협의회 역할이 중요했다. 인정도서협의회는 인정도서 개발상의 흐름을 한 방향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문제의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의회는 주기적으로 가동되어 중심 교육청을 중심

으로 합의안을 이끌어 냈고 이는 전국시·도교육청의 인정도서 업무 흐름의 기본이 되었다. 경험이 많은 업무담당자와 새롭게 맡게 된 업무담당자의 만남은 업무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전달 받는 정보 공유의 장으로 충분한 공간이었다. 책자로 제공된 인정 업무 매뉴얼의 한계를 대면 협의를 통해 또는 수시 통화나 이메일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고 전문성 부족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기는 데 기여하였다. 인정 교과서가 구분 고시를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였기에 절차에 대한 체계성과 적법성이 다른 어떤 업무보다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전국시·도인정도서협의회는 그 역할을 중요했고 충분했다. 협의회의 만남은 다양한 사례와 문제를 접하는 정보 공유의 장 뿐만 아니라 업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하였기에 협의회의 역할과 협의회를 이끌어가는 중심 교육청의 활약이 매우 컸던 것이다.

### III. 인정교과서 개발의 과제

인정교과서는 개발 과정상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과제들을 안고 있다. 교육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과 감수 과정을 거침에도 교과서 개발 과정과 심사 과정 업무 추진 중에 제기 되는 과제 등 풀어야 할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있었다.

먼저 개발상의 과제들을 살펴본다. 개발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은 예산으로 양질의 인정 교과서를 개발한다는 것은 개발에 참여하는 집필진의 보이지 않는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다. 내용 선정이나 내용 구성, 이를 구현하기 위한 집필 과정이 기간분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학습자 중심의 교과서를 집필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

다. 그러나 집필진에게 주어진 시간의 부족은 내용의 충실도를 보장하기 어려웠다. 물론 1차, 2차 심사 과정을 검정도서의 방향과 다르게 1차부터 교육과정과의 연계성과 내용 선장까지 검토하기도 하였지만 내용 자체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했다. 부족한 개발 기간은 전문성을 갖춘 집필진을 확보하는 데도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고 전국 각지에 있는 집필진과 협업하기보다는 인근에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드러냈다. 여기에 적은 예산은 교과서에 담길 삽화나 컷, 슬라이드 등을 다양하고 질이 좋은 것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였다. 개발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인정교과서 개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심사 과정상의 과제들이다. 심사 과정이 검정에 준한다는 측면에서 1차(기초조사에 준함), 2차(본심사에 준함) 심사 과정이 검정처럼 하기에는 개발된 내용이 부실한 경우 기초조사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충분히 전문적인 집필진이 위촉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1차 기초조사에서 걸려내야 하는 것이 기초조사임에도 본심사에 준하는 내용들이 검토되어 수정보완하게 되었고 2차 심사에서도 2차 심사 본연의 내용과 기초조사까지도 함께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집필자의 내용상의 오류도 있지만 심사위원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충분한 심사 시간 확보의 부족과도 연결되는 문제였다. 심사위원은 전공교수, 전공교사, 산업체 전문가 등 교과문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력풀을 갖추고자 하였으나 전문계 교과문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의 확보가 그리 쉽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심사 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논의를 충분히 하지 못하는 데서 오류들이 생기게 되었다. 내용의 부실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의 가동이 여의치 못한 경우를 대비한 인력풀의 공유와 충분한

한 심사 기간이 확보 될때 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업무 추진상의 과제이다. 전국 시·도인 정도서협약회의 역할은 업무 추진상의 오류를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인정교과서 업무는 적법하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업무 중압감 때문에 교과서 업무가 기피 업무로 인식되었고 이는 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이어져 6개월을 주기로 업무 담당자가 바뀌는 시·도 교육청도 있게 되었다. 따라서 업무의 연계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업무 파악이 시간을 낭비하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여기에 업무 담당자의 업무 책무성을 이끌어낼 만한 유인책이 없다는 것도 한 요인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하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전문성과 적법성, 합리성, 투명성, 체계성, 다양성, 구체성 등이 요구되는 인정, 교과서 업무는 중압감이 그만큼 큰 업무이다. 또한 업무담당자가 전문직과 일반직으로 구성된 경우와 일반직만으로 구성된 경우, 전문직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 등 인적 구성의 측면에서도 장단점이 있다. 일반직의 행정업무와 서류상 정리에 전문직의 교육과정이거나 교과 전문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때 업무 피로도가 적었다고 본다.

#### IV.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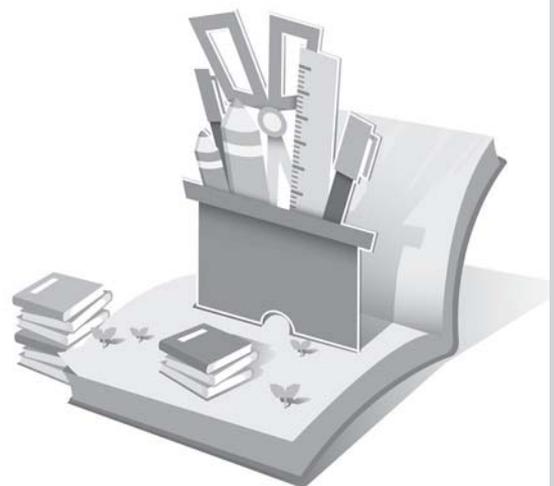
현재 교과서 편찬 목록 수 총 607종의 83%인 503종의 교과서가 인정도서로 개발되고 승인되었다. 교과서 개발의 문호 개방이 주는 커다란 장점이 제대로 발휘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시점이다. 인정 교과서의 개발이 교사의 교수권 측면에서 교실수업이 탐구식, 토론식으로 개선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볼 때 의미있는 업무·과정이라고 본다. 그러나 개발 과정과 심사 과

정 업무 추진 과정상의 과제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 될 때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첫술에 배 부를 수 없다 하더라도 교과서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인정 교과서 개발상의 과제들은 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기관의 노력과 교과서 체제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 업무 담당자의 업무 책무성, 개발진의 전문성 확보, 충분한 예산을 통한 양질의 인정 교과서 개발에 대한 지원책, 연구 환경 조성과 이를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등이 해결되어 백년지대계를 향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때라고 본다. 

#### 필자소개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인정도서 개발심사(2012-2013), 현장교사들의 교실수업 개선 연구 활동 및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교육 활동 지원에 노력을 하고 있다.



# 인정교과서 개발 업무 담당자의 역할에 대한 소고(小考)



**임연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나의 인정교과서 개발 업무는 2013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과정 팀 장학사 근무에서 비롯된다. 그동안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사회과 교과서의 지역화 교재와 초등학생을 위한 관광교육 교재의 집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교과서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업무 담당자로서 인정 교과서 개발을 주도하기는 처음이었다. 인정도서 업무 매뉴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이 그렇게 9월부터 시작한 업무는 이전 담당자가 체결한 위탁 개발계약서 정리, 개발 보조금 교부, 2013년 적용 중학교 교과서 가격 조정 권고와 또 다른 쪽지의 담당 업무를 처리하면서 해를 넘기게 되었다.

## 인정교과서 개발 업무 들여다보기

창의적인 산지식을 제공하고 학습자 친화적인 미래형 교과서 보급을 목표로 '2010 교과서 제도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른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 고등학교 선택과목 국·검정 도서의 인정 전환 확대 정책으로 각 시·도 교육청은 교과서의 안정적 개발 및 적기 공급을 위하여 소수 선택 과목의 인정 도서를 분담하여 개발하게 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2014년 적용 고등학교 인정 교과서 개발 사업은 개발기관 공모 및 선정 → 개발 보조금 교부 → 심의 → 승인 → NEIS 등록 → 출판 단계를 거쳐 학생들에게 공급되며, 우리 교육청도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와 특성화고 전문교과의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 기관 추가 공모 끝에 2012년 8월 제주도내 및 타시도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위탁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3년 8월말까지 개발도서의 승인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심의일정을 계획하였다. 특히 인정 교과서의 질 관리를 위해 1, 2차 심의 및 수정 보완 검토심의회까지 세 차례의 심의 단계를 거치도록 개발진에 안내하였다.

인정교과서 개발 일정

단계	주요 내용		
공모	개발 기관 공모 및 선정		
개발보조금 교부	6개 산학협력단, 11책 개발진		
심의준비	심의계획 수립		
심의 (심사)	원고본 심의 (1차 심의)	원고본 접수	
		1차 심의위원 사전연수	
		1차 심의 (기초조사)	재택(7일) 출석(1일)
		결과 정리	
		수정·보완(집필진)	
	개고본 심의 (2차 심의)	개고본 접수	
		2차 심의위원 사전 연수	
		2차 심의 (본심사)	재택(8일) 출석(2일)
		결과 정리	
		수정·보완(집필진)	
	수정본 제출		
	수정·보완 검토심의		
	승인	결재본 제출	
		심의회운영	
결과 정리			
NEIS 등록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 대상의 사전 연수를 실시하였다. 심의기준을 안내하고 심사 경험이 많은 타시도의 심사위원을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함으로써 인정 교과서 심의 경험이 없는 제주도내 심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노력도 전개하였다. 특히 재택 심의를 통한 개별 검토 결과를 가지고 공동의 논의를 거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게 되는 출석 심의에 불참하는 심의위원이 없도록, 심의위원별 개인 일정을 조율하여 출석 심의 날짜를 정하고 출장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주하는 어려움, 스스로 찾아가는 해답

3월 5일 원고본이 접수되고, 1차 심의위원 사전

연수를 시작으로 심의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으나 그 절차나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심사도서는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되므로 업무 담당자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심사 업무를 진행하면 되겠지만, 개발도서의 경우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교과서 질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집필진과 심의진, 업무 담당자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개발도서 업무 담당자는 인정 교과서 개발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나 역시 그런 어려움에 마주하곤 했으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스스로 해답을 찾아 나갔다.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된 어려움은 개발·집필진과의 관계에서였다.

인정 교과서 개발진에게 개발 일정과 함께 원고본 접수일을 안내하였지만 대부분의 개발도서 원고본이 원래 예정된 날짜를 훌쩍 넘겨 접수되었고, 접수된 원고본의 수준도 기대 이하였다. 원고본 접수를 기다리며 가졌던 심의위원들과 나의 기대는 원고본을 훑어보는 동안 ‘올해 안으로 교과서가 개발될 수는 있을까?’ 하는 우려로 바뀌고 말았다.

개발 계획서상의 판형과는 달리 A4 용지에 인쇄하여 스프링 제본으로 제출한 원고본과 단원별 집필자마다 제각각인 편집 체제에서는 창의성과 참신성을 느낄 수 없었다. 거의 모든 페이지마다 발견되는 오탈자와 맞춤법 오류 등은 심각한 정도여서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재고하게 만들었다. 개발진들은 원고본 제출 시일에 급하게 맞추느라 그랬노라고, 계속 수정 보완을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하였지만 업무 담당자로서는 걱정이 앞설 뿐이었다.

교과서 개발 경험이 없거나 원고본 이후 편집 내용을 대폭 수정한 개발·집필진 쪽에서는 공지한 일정에 맞게 심의본을 제출하지 못하겠으니 심의일

정을 연기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개고본 심의일정을 연기하게 되면 이후의 모든 일정들까지 연기되어 당초 계획한 8월 말까지 개발 완료는 힘들 것이었다. 원고본이 수준 이하였던 도서들은 1차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심의본을 접수해 보아야 교과서의 질 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다고 제출 날짜에 도저히 맞추지 못하겠다는 개발진에게 막무가내로 제출하라고 한들 접수되는 심의본의 수준이 불 보듯 뻔하지 않겠는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예정에 없던 인정도서 개발 집필자 연수를 개최하였다. 위탁 개발 계약을 체결한 제주도 내·외 대학의 대표 집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도서별로 추진 상황을 일일이 재확인하면서 예정된 개고본 접수일에 제출할 수 있는 교과서들을 A군으로, 15일 정도 늦게 제출할 수 밖에 없다는 교과서들을 B군으로 묶어 심의 일정을 달리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같은 기간에 11책 모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담당자로서는 훨씬 효과적이지만 개발·집필진의 입장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음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구성된 개고본을 심의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시 마주하게 된 어려움은 심의진을 구성하는 일이었다.

인정 교과서 개발 경험이 그리 많지 않은 우리 교육청은 심의를 위한 인력풀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현실이었다. 표기·표현 심의위원 외에도 전공 교과별로 5~7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해서 팀을 꾸려야 하는데 이미 우리 교육청 위탁계약 개발도서 집필위원으로 원고 집필을 하고 있는 제주도내 대학의 교수들과 교사들은 제외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다. 타시도의 심의위원을 위촉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지만 '섬'이라는 제주의 지역 특성으로 인해 심의수당 외에 교통비, 숙박비와 체제비 등 추가 비용

발생 부담 때문에 포기하고 말았다.

고민 끝에 일부 중학교 교사들을 포함하여 제주도 내의 고등학교 교사들 중 전공 교과별로 '도 단위 교과연구회'의 도움을 받아 심의진을 구성하였다.

심의는 재택과 출석을 병행하는 방식을 계획하였다. 한 차례의 인정 교과서 심의를 위해 5, 60명에 이르는 심의위원들이 참여하다 보니 심의위원 개별적으로 인정 교과서를 검토하고 심의하는 재택 심의는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으나 출석 심의는 그렇지 못했다.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교사들이 학교 행사, 학생 지도, 다른 업무 관련 출장과의 중복, 기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 출석 심사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최선의 방법은 심의 일정을 확정하여 공문으로 발송하기 전에 심의위원의 참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별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여 모든 심의위원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확정하는 것이었다. 심의위원 모두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번거롭기는 했지만 그 결과 심의위원이 100% 참석하여 출석심의가 진행되었다.

간혹 개발도서의 개발진과 심의본 편집과 디자인 인쇄 계약을 체결한 인쇄업체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인정 교과서 업무 담당자는 이들 간의 계약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개발진은 인쇄소에 대한 불만을, 인쇄소는 인쇄소대로 개발진에 대한 불만을 내게 말하곤 했다. 문서를 작성하다가 잠시 멈추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불평들을 쏟아내면 때로는 계약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문제라고 잘라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갈등이 지속된다면 결국 개발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그 뒷감당은 업무 담당자가 해결해야 할 몫으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적극적인 경청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지만 전화선을

통해 들려오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성의껏 응답해 주었다. 그런 과정이 거듭되자 개발진과 인쇄업체 사이의 갈등의 골이 점차 메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개발진이나 인쇄업체 쪽이나 그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업무 담당자와의 소통을 원했기 때문이리라.

심의진의 심의에만 전적으로 맡길 수 없는 상황도 있었다.

특성화고 전문계 교과 중 관광 외국어 교과의 관광 영어, 관광 일본어, 관광 중국어 교과서는 전자저작물을 포함하여 개발을 하게 되었다. 외국어라는 교과 특성상 전공 교과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도 하였지만, 교과서 개발이 완료되어야만 그에 따라 전자저작물도 오류 없이 녹음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교과의 교과서는 심의단계에서 치밀함과 정확성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정작 위촉된 영어교과 심의위원들은 학교에서의 수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채택 검토는 충분히 했는지, 대충대충 심의를 진행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섰다. 또한 예술(음악) 교과의 ‘음악과 매체’ 교과서는 기간본이 없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개발되는 교과서라는 점에서 심의 위원들에게만 심의를 맡길 수가 없었다. ‘음악과 매체’ 과목의 교육과정을 알고 있는지, 단원 구성에 대한 충분한 심의 안목은 갖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해답은 감수기관을 활용하는 데 있었다. 이들 교과서에 대한 감수 기관의 감수 결과는 도움이 되었다. 우리 교육청 심의진들이 미처 찾지 못한 오류들을 지적해 주었고 교과서 내용 및 단원 구성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까지 제시해 주었다. 특히 관광 영어 교과서의 책임 감수자인 장안대학교 신희원 교수는 2회의 감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해 주어 오류없는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힘을 보태주었다.

인정 교과서 개발 완료 후 개발진에서 최종본 교과서를 보내왔다. 배송된 상자를 열어 교과서를 꺼낼 때마다 두세 차례의 심의를 진행하면서 익숙하게 보았던 교과서 표지였지만 얼마나 새롭게 느껴졌던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첫 교과서이니만큼 우리 교육청 개발 교과서를 사용할 교사와 학생들도 나와 같은 설레임을 느낄까 하는 설레임과 궁금함은 개발 교과서를 교사와 학생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생각에 이르자 곧 걱정으로 변했다.

인정도서 전환 확대 정책은 교과서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인정 교과서 개발 업무 담당자들의 책무성 또한 커지고 있다.

2013년 인정도서 업무를 담당한지 일 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업무를 처음 담당했을 때의 난감함은 많이 사라졌다. 가격 조정 권고, 교과서 수정 보완, 인정도서 개발과 심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해답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인정업무 전문가라고 치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가 마주했던 두려움과 난감함으로 인정도서 업무를 보고 있을 누군가에게 편안하게 읽히기를 기대하면서 2013년 한 해 동안 인정교과서 11책을 개발한 나의 경험을 심의 업무 중심으로 두서없이 적어 보았다. 

#### 필자소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인정도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인정도서 감수 사례(수학)



**황우형**  
고려대학교 교수

교과서는 교사 및 시설과 함께 학교교육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교과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극도의 경쟁적인 사회적 구조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경쟁 구조에는 항상 경쟁을 위한 평가가 수반되는데, 평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기준이 대부분의 경우 교과서가 된다.

이와 같이 교과서는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를 집필하고 이를 심사하고 출판하는 과정이 줄속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과서와 관련된 문제는 충분한 연구 시간 없이 집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검정과 인정 심사 과정도 단 기간내에 이루어진다는데 있다. 또한 검정위원과 인정심사위원의 자질도 자주 논의의 주제가 되기도 한다.

교과서는 국정, 검정, 인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적으로만 보았을 때 인정도서가 월등히 많은 상황이나 아직도 주요과목은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할 수 있다. 사실 필자는 인정교과서 심사 절차에 관하여는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지난해 수학 인정교과서 감수를 하면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인정교과서 감수 절차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어서 이를 교과서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나누고자 한다.

지난 1월달 2013 인정도서 감수기관의 책임자로 2013 인정도서 감수 운영 결과보고회에 참석했는데, 이 보고회를 통하여 감수의 모든 과정이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진행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수고하신 많은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필자는 수년전 중학교 수학 교과서를 검정한 경험이 있다. 당시 1년여 동안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 검정위원들이 수차례 정도 일주일 이상 합숙하면서 교과서 검정이 진행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수학 인정도서 감수기관 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하면서 감수과정도 검정 과정과 비슷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 다만 감수는 본 심사과정이 아니므로 어떤 의미에서든지 보조적인 역할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난해 6월 인정도서 감수위원 연수에 참여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전반적인 인정도서 심사과정이 교과서 검정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인정도서 감수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감수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심사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 다만 심사위원과 감수위원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따른다는 설명을 듣고 나서야 감수과정이 인정도서 심사의 보조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도 본심사를 하기 전에 기초조사 위원들이 기초조사를 실시하다. 표절된 부분이나 잠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여 검정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인정도서 감수는 검정도서의 기초조사와는 다르게 본심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었다.

감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감수위원을 섭외해야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감수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행인 것은 섭외한 대부분의 위원들은 교과서나 참고서 저자 및 집필진이었는데 이미 인정도서와 관련한 경험이 있어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분들은 교과서를 감수한다는 자부심으로 감수위원을 수락하는 것으로 보였다. 앞으로 인정도서 심사에서 감수의 역할을 재정립해야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감수위원에게 요구하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

려면 감수비용에 대한 재고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감수기관 신청 시 두 번째로 준비해야하는 것은 수학 영역별로 감수위원을 나누는 것이었다. 수학 분야는 기초수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미적분 II, 기하와 벡터, 고급수학 1, 고급수학 2 모두 9영역의 감수를 신청해야 했다. 실제로 선정기관으로 선정되더라도 지원한 모든 영역의 감수를 하는 것은 아니어서 감수위원의 전문분야와 가르치는 학생들의 학년 및 수준 그리고 선호과목을 고려하여 감수위원을 섭외해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중에 실제로 감수하게 된 과목은 기초수학과 확률 및 통계과목이어서 감수위원을 다시 조정해야했다.

감수를 수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은 잘 진행되었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기간 내에 감수결과를 보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알고 보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감수 일정이 촉박해졌다고 알게 되었는데, 인정 교과서 감수가 계획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리 감수 진행시 지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예상해서 감수절차를 계획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감수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감수위원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감수위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였고, 어떤 부분은 집필진 또는 심사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해야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앞으로도 감수의 역할이 현재와 같이 심사의 일부 또는 심사를 한번 더 실시하는 개념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감수위원과 집필진, 그리고 심사위원간의 의사소통 과정과정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수학과목에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과목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다. 수학은 교사 등 전문가 입장에서도 수학문제를 읽어보고 바로 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바로 문제의 오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 수학은 모든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아야 하는데, 수학교과서 한편의 문제를 며칠 안에 다 풀어본다는 것은 감수 위원에게 큰 도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확률과 통계 문제 중에는 해결하는 데 비교적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수학교과서의 감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시간이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수학의 경우 시간이 부족하면 감수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감수를 마치고 느끼는 소감은 인정도서의 감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심사와 감수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심사를 두 번 한다는 개념으로 감수가 이루어지려면 감수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심사와 동일하게 책정해야 하고, 심사위원과 감수위원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만들어서 충분히 상호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감수의 개념이 심사를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이라면 가장 효율적으로 심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야 또는 방법을 찾아서 그 분야 또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서 감수위원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심사위원과 감수위원의 역할도 분리되고 의사소통 과정이 미흡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까지는 2013 인정도서를 감수하면서 느낀 바를 두서없이 적어 보았는데, 이제부터는 인정도서를 포함한 교과서 검정 등 교과서 관련 심사에 관하여 전반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필자는 몇 년 전 교과서를 집필한 경험이 있는데, 당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를 동시에 집필하였다. 수학교육학

을 전공한 필자의 입장에서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는 것이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유능한 중학교 교사들과 함께 1년 이상 고생하면서도 중학교 교과서를 재미있게 집필한 기억이 있다. 다양한 활동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기존의 교과서와 차별하여 개념 이해 중심의 활동을 포함하는 수학 교과서를 집필해 보려고 시도했다. 반면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는 우리나라 현실에 더욱 충실한 교과서를 집필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입시에 초점이 맞추어진 고등학교 수학을 개념이 중심이 되고 활동이 중심이 되는 교과서로 구성하는 것은 학교 현장과 괴리감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런데 검정심사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고등학교 교과서는 무난히 통과되었는데 중학교 교과서는 그렇지 못했다. 그 당시에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심사위원들 중 새로운 수학교육의 경향을 잘 모르는 위원이 많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결과는 어찌면 당연한 것이었다. 많은 수학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교과서를 직접 저술하기 때문에 실제로 교과서를 심사할 전문가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이번에도 인정도서 감수위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주변에 많은 유능한 교사들은 이미 다른 기관에서 감수위원으로 섭외되었거나 인정도서 집필과 연관되어 있어서 감수위원으로 섭외할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교과서 및 관련 분야의 교과교육이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교과서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은 대부분의 경우 교과서가 집필된 후에 위촉하게 되는데, 이 순서를 바꾸면 적어도 그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교과서를 집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국가차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교과서는 학교교육의 중요한 요소이고,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나라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분야에서 과학이나 기술과 같이 빠른 시간 안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하나씩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선진국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다음은 인정도서 감수에 직접 참여한 감수위원들이 느꼈던 점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필자가 언급한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있으나 실제 감수위원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감수절차에 대한 생각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제공하고자 한다.



## 느낀 점

- 감수 기간이 촉박하였으나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현직 교사들을 감수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체계적인 감수 시스템을 통해 감수 위원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여 기한 내에 성공적으로 감수를 수행할 수 있었다.
- 수정사항들이 다소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교육 과정을 준수하고 내용의 선정 및 조직 측면이 잘 구성되어 있었다.
- 일부 교과서는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과 특성을 잘 고려하여 편성되어 있었고, 교과서의 전체적인 구성이 현직 교사가 수업하기에 적절한 흐름과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일부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를 조합하여 구성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어서 교과서 간의 내용과 질의 편차가 큰 편이었다.
- 감수위원들이 보완서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교과서 보관 및 관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보완에 다소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 감수위원들의 전체 합숙을 통해 전반적인 검수 및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감수위원들의 교과서 내용 및 문항 오류에 관한 최종 논의 시, 집필진의 내용 선정 의도와 문항 선정 의견을 조율해보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 교과서 감수 결과, 경험이 풍부한 현직 교사들의 장점과 수학교육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학계 전문가들의 장점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었다. 교과서 감수 시, 현직 교사들과 학계 전문가들의 적절한 배분이 감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문제점 및 보완점

-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촉박한 감수 일정이다. 현직 교사인 감수위원들이 며칠 이내에 많은 분량의 교과서를 꼼꼼히 보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감수 결과를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의 일정 또한 너무 촉박하였다. 학교 업무와 수업을 진행하면서 감수를 해야 하는 교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힘든 작업일 수밖에 없었다. 양질의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집필 기간도 충분해야 하지만, 감수 및 심사 기간도 충분히 제공될 필요가 있다.
- 집필진, 감수자와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좋을 것 같다. 감수 시 집필진의 의도를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감수위원과 집필진과의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회의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감수위원들 상호간에 감수한 내용을 서로 피드백 해주는 작업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 감수 내용이 미 반영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피드백이 서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
- 어법과 문법에 관련된 내용의 경우, 국문학 전문가들의 검수가 사전에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
- 감수 인건비 조정, 인센티브에 대해 고려해 주면 좋을 것 같다. 감수 시 중요한 오류를 발견한 감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감수자에게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 집필진에게도 오류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감수위원들에게 최종 수정 완료된 교과서를 1부 제공해주면 관련 교과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필자소개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 졸업

미국 Indiana University of PA M.Ed (수학교육학 전공)

미국 University of Georgia Ph.D (수학교육학 전공)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교수



# 인정도서 제도의 현황과 과제<sup>1)</sup>



김 정 호  
미래문화연구소

## 1. 인정제의 쟁점은 무엇인가?

교과서 편찬 시스템은 정부와 시장 및 학교의 이해관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정부는 정책 비전을 정하고, 그것에 맞는 전략을 선택한다. 시스템은 그 비전과 전략을 구현하는 수단인데, 정부는 이것을 통해 시장을 지배한다. 시장은 정책을 수용해야 하지만, 정부가 바라는 대로 행태를 쉽게 바꾸지는 못한다. 정부와 시장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는 정부와 시장에 비하여 수동적인 편이다. 주어지는 여러 상품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만 하는 학교는 편찬 시스템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편이다. 물론 자유발행제라면 학교가 시장과 정부를 제어할 수도 있지만, 국·검·인정제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정부는 '교육과정 수시 부분 개정'을 하면서 2011년에는 '인정제 대폭 확대'를 추진하였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비전으로 한 정책은 정부 개입 축소와 시장 자율 강화라는 전략으로 이어졌다. 그 전략적 시스템인 인정제는 '주관은 시·도 교육청, 과정은 국·검정과 동일, 가격은 발행사 자율화'라는 상황에서 시행되었다.<sup>2)</sup> 시장은 2012년부터 교과서 개발을 시작하여 2013년에 심의를 거쳐 올해 새 교과서를 발행하였다.

여기서 논의해 볼 사안은 '인정제가 과연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더 적합한 시스템인가, 앞으로 인정제를 더 발전시키려면 시스템의 무엇을 수정·보완해야 하는가'라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논점은 '정책 비전 = 구현 전략 = 시스템 = 시행 과정 = 결과'의 정합성 여부를 말하는 것이다. 비전을

1) 이 논의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인정도서 제도 개선 연구'(김정호·김만곤·김종숙·이춘식·이림, 2013)에 기반한 것이지만, 정책 제안이 동 재단의 공식적인 의제는 아니다.

2) 전문계 학교의 소수자 선택 교과서는 시장이 개발하지 않아서 정부가 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인정이라 하여 각 교육청에 분담시켰지만, 모든 시스템은 과거의 국정과 동일하다. 시장경쟁이 이루어지는 심사도서는 검정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하도록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명시하였다.

구현하는 전략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수반한다. 역기능은 매우 중요한 현안이 아니고 또 막아 낼 방법이 있다면, 정책은 순기능에 집중하면 된다. 물론 순기능이 극대화되도록 하려면 그 전과는 분명하게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우리 상황은 어떠한가?

## 2. 인정제 확대는 적절한 전략인가?

전략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 수단이다. 정부는 가치 우선 순위와 자원 동원 방법을 제시하여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만약 전략이 옳다면 이해 관계자들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것이다. 그 결과는 분명 효율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관련 생태계와 맞지 않으면 시행 과정과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교과서의 다양성과 창의성은 다원적 개방사회의 교육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정부가 직접 편찬하는 국정이나 엄격한 심사로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검정 체제에서는 기대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편이므로 인정제를 확대하는 것은 정책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정부 규제를 줄이고 시장 자율을 강화하는 것이 다양과 창의를 위한 전력이라는 점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더 나아가 아예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자유발행을 허용하면 더 좋을 것이라는 다소 성급한 주장도 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민간의 창의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검정보다 심의를 약하게 하여 최소한 탈락에 대한 발행사의 불안을 막아주어야 창의적인 교과서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그것을 인정제라고 하며 대폭 확대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려면 세 가지 정도의 선행 조건을 준비해야 한다.

첫째는 창의성을 확실하게 살리는 순기능 촉진과 더불어 자율성에 따른 역기능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사회가 주목하는 교과서의 현안은 오류와 편향을 없도록 질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다. 정확한 사실과 균형있는 관점은 다양성과 창의성보다 더 중요한 좋은 교과서의 조건이다. 국정 교과서는 실험 본으로 1년간 학교의 검증을 받고, 검정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야 발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는 많다. 그렇다면 심의도 약하게 하고 부적격 판정도 거의 하지 않는 인정 교과서의 품질은 어떻게 될지 가능성을 추론해 보자. 민간의 자율성을 높여 주었기 때문에 저자가 책임감을 더 가지고 오류를 줄일까, 아니면 이미 합격은 보장된 것이니 검정보다도 느슨하게 만들어 오류를 재생산하고 있을까?

둘째는 인정제에 맞는 세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국정에서 검정으로의 이행은 시장경쟁과 심사 처분이라는 대전환을 이루는 것이다. 다시 검정에서 인정으로 간다면 다양하고 창의적인 저작을 장려하기 위하여 심사 처분을 약하게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적·부 판정을 전제로 하는 검정 심사가 아니라 필요 요건의 이행 여부 정도만 확인하는 인정 심의를 해야 한다. 심의 도서만이 아니라, 개발 도서도 국정에 비하여 더 쉽게 편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검정을 인정으로 전환하여 얻을 수 있는 실제적 이익이 없다. 시장이 볼 때는 중요한 것이 시스템의 내용을 개편하는 것이지, 그 과정을 누가 관리하는 가가 아니다. '교육청의 개발·심의 = 인정'이라는 형식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셋째는 인정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참여자들의 전문성과 경제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시스템상 관리 주체인 교육청이 인정제 관리를 해 왔는데, 조직과 예산 및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 교과서를 개발하고 심의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처리가 아니고, 교육 전문성을 토대로 하는 연구 과정이어야 한다. 당연히 그 일은 교과 교육 전문가가 주관해야

하고, 일이 끝난 뒤에도 계속 연구를 해 나가는 상설 조직이 필요하다. 아직 교육청에는 그러한 관리와 연구를 담당하는 조직이 미비한 편이다. 교육청이 교과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인정제가 성공하기 어렵다. 발행사는 검정보다 인정제에서 어떤 경제성을 얻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경제성은 비용 절감과 수익 증대를 말한다. 여기에 인정 교과서 가격 자율화가 쟁점이 되었다. 발행사는 창의적으로 개발한 교과서 가격을 비용 대비 수익성까지 고려하여 책정하는데, 사회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한다. 결국 가격 한계를 전제로 한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발행사의 창의성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불합격 공포가 없는 마당이니 발행사는 아주 낮은 비용으로 최소한의 조건만 갖춘 교과서를 개발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학교가 교과서를 선택할 때 품질과 가격을 대비하며 검토하지 않는다면, 이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질 관리 시스템과 독자적인 특성화 및 생태계의 대응력'이 인정제 확대 정책의 전제 조건인데, 2011년 이후의 상황은 어떠하였는가? 우선 느슨한 심의를 예고한 상황에서 시장의 자율적 관리나 심의 과정의 강제적 제어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sup>3)</sup> 그리고 검정과 동일한 심사 시스템이나 개발 과정은 인정제의 정체성을 살리는 데 제약점이 되었다. 교육청의 조직화 부족과 지역 참여자들의 전문성 한계 및 발행사의 자율적 대응력 부족 등도 인정제를 발전시키는 데 장애가 된다. 이렇게 시대적 추세와 세계적 상황으로 볼 때 인정제 자체는 당연히 확대시켜 갈 유용한 제도이지만, 그것을 시행하는 세부 조건과 생태계의 대응력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야 인정제가 발전

할 수 있을까?

### 3. 인정제 시스템 무엇을 보완할 것인가?

정부가 규제를 강하게 하면 시장은 할 수 없이 순응만 할 뿐 생태계의 자생력을 상실한다. 정부가 규제를 철폐하면 시장은 사익 추구에 함몰되어 공익을 외면하기 쉽다. 정부와 시장의 이해가 맞는 경계선을 찾아야 공익과 사익을 조화시킬 수 있다. 교과서 편찬 시스템도 그러하다. 앞에서 본 인정제의 요건 중 역기능 방지와 인정제에 맞는 세부 시스템 구축은 심의와 선정 과정에서 찾아야 한다. 인정제의 취지인 정부 관여를 줄이고 시장의 자율적 창의성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심의 과정과 학교 선택 과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순기능의 극대화와 역기능의 극소화라는 정책 포지션을 분명하게 천명하여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주어야 한다. 가장 경계할 역기능은 오류와 편향이고, 최대한 기대하는 순기능은 창의적인 내용 구성과 편집 체제이다.

교과서의 기본은 분명하게 지키면서 독자적인 개성은 한없이 살릴 수 있도록 하려면 심의기준과 심의 관점을 초점화해야 한다. 현 공통기준의 적법성과 정확성 여부만 심의하고, 그 이상의 교과기준은 제외해야 한다. 공통기준은 질 관리의 기본인 만큼 철저하게 조사하여 위배되면 검정과 같이 시장 진입 자체를 막아야 한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질적 평가는 학교에 맡겨 생태계의 자연 도태 기능을 살리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 심의한다 하여도 소수의 위원이 단기간에 오류를 다 밝히기는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은 인정도서 심의 과정을 공개하여 사회적 검증을 같이 받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생

3) 매일경제신문은 교과서 상황을 '출판사들 책은 오류투성이면서 수익만 쟁겨..'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매경 2014. 2. 11.) 물론 이 기사가 엄정한 증거를 토대로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회는 이와 같이 교과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하기 쉽다. 언론과 사회의 오개념을 막는 방법은 교육계 내부의 전문성에 터한 철저한 반복 검토와, 정식으로 발행하기 전에 사회적으로 공개 검토를 받아 바로잡는 것이다. 이것은 국·검·인정 할 것 없이 적용해 볼 일이다. 이제 교과서는 학교 안의 교재만이 아니라 사회적 공론을 반영하는 국가적 지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소한 것이고 그 절차적 부담이 과할 것이란 우려 때문에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다.

차기에는 사회적 논란이 적은 교과를 선별하여 시험적으로 해 볼만 일이다. 시장의 자율에 대한 최종 심판은 학교가 해야 한다. 정부는 오류와 편향을 걸러 낸 최소한의 질적 관리는 분명하게 한 도서를 제시하고, 학교는 정말 교육적으로 가치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것을 선정한다면 시장 생태계의 자정 기능이 복원될 것이다. 시장의 창의적 자율은 학교의 전문적 자율로 검증해야 한다. 문제는 소규모 학교가 많고, 외부의 간섭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교과서 선정을 학교 단위에서 교육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개별 학교가 특정 교과서를 선정한다고 시민사회단체가 불법적 압력을 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현상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 길이 바로 선정 단위를 광역화하는 것이다.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어떤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사의 교육과정·교과서 전문성이다. 지역 교육청의 지적 자산 가치는 교사의 전문성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 시설 환경은 평준화되고, 가르칠 내용도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동일하다. 지역별 차이는 교사의 전문성 정도이다. 인정 교과서를 개발하고 심의도서를 심의하는 주체가 교사라면, 교사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sup>4)</sup> 교육청은 인정제 시스템 보완 정책으로 교사의 교과서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새 교과서가 공급된 뒤, 교과별 교사 연구 모임을 지원하여 모든 교과서 체제와 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그것을 다시 미국과 일본 정도의 교과서와 비교하는 연구를 해야 한다. 차기 교과서 편찬기 전에 기초 연

구 자료를 지역 교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여기에 학생들의 분석 의견도 모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동시에 교육청은 외부의 교과서 전문 연구 기관과 연대하여 개발과 심의에 초점을 둔 연수를 진행할 수 있다. 이것이 지역 교육의 인프라를 확실하게 축적하는 일이고, 그 효과는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교육청은 인정도서 확대 정책을 교사의 교과서 전문화 기회라고 보고, 교육청을 행정 조직에서 교육 조직으로 전환시킬 계기로 삼아야 비전이 있을 것이다.

정부는 다음 교육과정기의 교과서 편찬을 위하여 인정제 심의와 학교의 선정 시스템을 개편하여 인정제의 장점을 살리고 약점은 방어하도록 해야 된다.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와 교과서 중심주의 수능 시험 출제는 '다양하고 창의적' 이면서도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내용과 특정 이념이 편향되지 않는 균형된 관점'을 유지하는 교과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무조건 인정제가 아니라,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한 구분의 재분류도 검토해야 한다.<sup>5)</sup> 교과서는 일반 소비재와 달리 국민의 지적 수준과 사고의 성향을 결정하는 내구적 생산재이다. 시장의 명목적 자율성보다 정부의 실용적 지원이 교과서 편찬에는 더 중요한 가치이다.



#### 필자소개

사회과 교육을 전공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과정 정책 연구, 교과서 개발과 검정 관리,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구관리 등을 하다가 정년퇴임한 뒤 강의와 미래문화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4) 인정도서 개발과 심의에 참여한 지역 교사들이 밝힌 애로 사항 중에서 '전문성 미약과 예산 부족 및 기간 촉박'이 가장 많았다.

5) 국정은 후진국의 정치적 도구이고 검정도 정부 개입이 과도하니 (생태계의 현실은 무시하고) 인정이나 자유발행제를 하여야 선진국이 된다는 가설적인 주장의 타당성 자체도 이제는 검증해 보아야 한다. 학교의 수요가 적어 시장이 생산하지 않는 전문계 교과서는 당연히 국정으로 해야 하고, 대외적으로 국익과 직결되거나 정권과 무관하게 국민 통합을 위한 과목은 (국정으로 하거나) 국정형 검정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검정을 하더라도 시장이 비용에 얽매이지 않도록 국정과 같이 정부가 일정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저작과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를 하는 것이다.

# ‘인정 교과서 정책 개선 방안’ 연구 결과 보고<sup>1)</sup>



**서 지 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

##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의 교과서 정책은 학생 수준이나 흥미 등의 서로 다른 요구에 부합하고, 학습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 및 교과서 선택권의 확대를 위해 인정 중심의 교과서 체제로 전환하는 자율화, 다양화의 교과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정책에 따라 인정도서의 비율이 전체 교과용도서의 84%로 확대된 가운데 2012년부터 시행된 인정 심의 과정을 거쳐 교과용도서들이 본격적으로 학교 현장에 보급되었다(서지영외, 2012). 본 연구는 인정제 확대 정책 시행의 중간 점검의 차원으로 정책 시행 첫 라운드 결과를 분석하여 인정 교과서 정책 목적 달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정부가 추구하는 교과서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인정 교과서 정책의 도입, 개발, 심사, 선정, 적용, 질 관리 등의 전반적 측면에서 실제 정책 시행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정책 목적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며 정책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인정 교과서에 대한 이해

연구에서는 배경이 되는 인정 교과서 정책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인정 교과서와 관련된 국내의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교과서 승인 제도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미래의 인정 교과서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3차에 걸쳐 시행하였고, 결과로 인정 교과서에 대한 본질적 개념이나 인정 교

1) 본고는 서지영, 임찬빈, 김정호(2013)가 수행한 ‘인정 교과서 정책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과서 정책의 목적과 기본적 요소, 질 높은 인정 교과서에 대한 정의 등을 구하였다. 전문가 의견에서도 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인정 교과서의 개념은 '개발 또는 출판된 도서에 대해 해당 과목의 교과서로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학교에서의 사용을 승인한 도서'이며, 이에 터하여 인정 교과서 정책을 '학생의 수준, 흥미 등과 다양한 교육 현장의 요구를 고려해 현장 적합성이 높은 맞춤형의 교과서를 공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라고 정의, 제안하였다.

또한 다양한 선행 연구 자료를 통하여 '인정 교과서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를 파악하고자 했는데, 자료 분석 결과 '내용의 정확성과 공정성', '학습 자료로서의 적절성', '학습 효과 증대 가능성', '현장 적합성'이라는 네 가지의 질적 요소가 도출되었다.

### 인정 교과서 정책 시행 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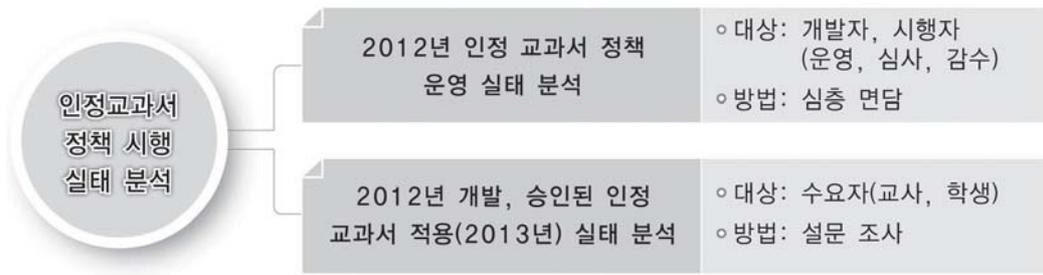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인 인정 교과서 정책의 시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자 인정 교과서 정책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내용이 실제 교과서로 승인되기까지 즉 교과서의 개발 및 심사 승인과 관련된 정책 집행 상황에 대한 부분과 교과서가 학교교육 현장에 적용되는 부분을 모두 포함하여 보고 있기 때문에 각각

에 해당하는 자료를 정책 운영 실태 조사와 정책 적용 실태 조사로 나누어 수집하였고, 분석하였다.

정책 운영 실태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은 교과서 개발자 및 교과서 승인 업무(운영, 심사, 감수) 수행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구득하였고, 면담은 2012년 인정 교과서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2012년 인정 교과서 개발 및 심사에 대한 실태, 인정 교과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자 대상자들의 특성에 맞추어 해당되는 질문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정책 적용 실태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은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유층 표집한 중학교 120개교, 고등학교 60개교에서 인정 교과서 적용 대상 학년인 1학년 1개 학급의 학생들과 중학교 영어, 과학, 체육, 미술 교사 각 1명, 고등학교의 영어 교사 1명에 대해 설문 조사하여 이루어졌다. 교사들에게 시행한 질문은 인정 교과서 확대 정책에 대한 인식, 인정 교과서의 효과, 교과서 선정 업무에 대한 인식 및 실태, 인정 교과서 및 정책에 대한 요구와 개선점이었고, 학생들에게 시행한 질문은 검·인정 교과서 비교, 수업에서의 활용도(이상 고등학생에게만 질문), 교과서에 대한 만족도, 학습 효과성에 대한 것이었다.

실태 조사를 통해 얻은 실증적 자료를 가지고 인정 교과서 정책의 시행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는 현재 시도에 위임, 운영되고 있는 인정 교과서 정책이



[그림] 인정 교과서 정책 시행 실태 분석 개요

실제 실행되는 현장 실태를 근거로 하여 정책 집행 상황 및 파급 영향력 등을 분석해 정책 효과를 알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행 충실도, 적합도, 달성도의 분석 준거를 설정하고, 준거별 하위의 분석 지표를 바탕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 판단하였다. 준거별 정책 효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시행 충실도 측면에서,

심사 운영을 위한 계획과 진행이 절차적으로는 충실하게 진행되었으나 업무 조직의 구성과 예산 확보 등 기본적인 정책의 운용 사항에 대한 충실도나 심사 전문성 확보 부분에서 개선점이 요구되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검정 기준과 차별화되는 인정 기준의 마련과 업무 전담 인력 및 전담 조직의 구성,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의 위촉, 충분한 감수의 시행 부분에서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으며 결론적으로 현재의 업무 체제 하에서 충실하게 인정 교과서 정책을 시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귀결되었다.

집필자들이 인정 교과서가 갖는 장점인 다양하고 창의적 시도를 제한적으로 할 수 있었으나 심사의 유연성이나 인정 교과서로서의 특성을 고려한 때문은 아니었으며, 심사에 필요한 요소들에서 인정과 검정에 대한 차별화를 체험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심사자들은 심사 분량이나 소요 시간이 고려되지 않아 적절한 심사를 할 수 없었고, 업무 파악을 위한 안내나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여 심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제기하였다. 심사 업무에서의 난점은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의 확보이며, 업무 효율성과 충실도를 저하시키는 가장 큰 문제점은 부족한 예산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업무 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소수의, 잦은 이동이 있는 담당자들로 상시

업무의 수행이나 업무 전문성을 갖추기에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시행 충실도는 매우 미흡하다고 분석되었다.

#### 적합도 측면에서,

먼저 인정 교과서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찬성 비율이 높았고, 인정 교과서로 전환되면서 학생 및 교육 환경을 반영해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그러나 인정 교과서 도입 취지인 교과서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실제 교사들에게 체감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교과서의 질이 낮아졌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외에도 외형적 체제에 대한 개선에는 긍정을 나타냈으나 교과서가 갖는 교수학습 방법에서의 다양성이나 학습 자료로서의 활용 적절성 등에 관련 응답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에서 인정 교과서 정책이 학교 현장에 적합하고 요구를 충족했다고 볼 수 없었다.

시도교육청에의 인정 교과서 업무 위임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담당할 업무에 대한 전문성 미흡과 교육청별 교과서 심사에 대한 일관성 유지의 어려움 측면에서 우려를 나타내며 위임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교과서를 학교에서 선정한다는 자체에는 긍정적이지만 전적으로 학교에만 부담 지우기에는 선정 업무의 과중이나 판단 근거가 되는 자료나 기준의 미비로 나타나는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 표출되었고, 이에 선정 절차의 간소화, 선정 심사 체계 및 기준 마련, 참고 자료 제공 등 다양한 업무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더불어, 질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시도 및 학교 담당자들의 인식이 부재하고 시행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정책 방향이나 정책 자체의 적합도에 대한 측면은 적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실질적 현장 적합도를 제고하

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달성도 측면에서

개발자들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심사가 검정에 비해 융통성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집필 의도의 반영이 보다 쉬웠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적으로 다양성이나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정도나 교과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식 면에서 기존의 교과서 또는 검정 교과서 개발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교육과정에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자 지침이고 심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획기적인 시도나 해당 교과서만의 독특성을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합격률이 높았기 때문에 출원 종수는 늘어났지만 실제 내용의 다양성이나 이로 인한 학습 효과의 제고가 이루어졌는지 실제적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질 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앞서 적합도에서도 제시한 것과 같이 인식이 매우 낮아 인식도 제고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현장의 교사 및 학생, 학부모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질 관리의 가시적 효과를 높이는 구체화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반적으로 달성도 측면은 새로운 유형의 교과서를 접하는 효과 이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정책 목적의 달성도를 충족했느냐의 점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향후 인정 교과서에 정책에 대한 제안

정책 시행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시행 효과를 분석함과 함께 연구에서

는 분석 결과에 터하여 문제 해결 접근 및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접근의 두 가지 방향으로 정책 제안을 제시하였다.

문제 해결 접근은 먼저, ① 검정 정책과 차별화되지 않은 정책 시행 업무를 전문성이나 여건이 준비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분석되었고, 이에 대해 업무량에 현실화한 인정 교과서 업무 지원 방안을 제공하거나 인정 교과서 정책 취지에 적절한 수준으로 업무를 대폭 축소하자는 인정 교과서 업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고,

② 현재 인정 교과서 정책 실제와 교육 현장 여건 및 수요자의 인식, 인정 교과서 관련 법 규정이 서로 모순된 구조로 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분석되어, 정책 목적, 법규, 업무 수행 절차 및 담당 기관, 업무 수행 능력이 일관성 있게 연계되는 구분 고시로 개선해야 한다는 구분 고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고,

③ 유연하고 느슨한 인정 교과서 취지에 대한 개발자의 오해와 인정 교과서 업무 담당자의 부담감 및 부실한 승인 절차의 운영으로 인정 교과서의 질적 저하가 나타났다는 문제점이 분석되어, 인정 교과서에 적합한 질 개념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운영가능한 질 관리 방안을 구안, 적용해야 한다는 질 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인정 교과서 정책에서 추구하고 있는 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보급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최소한의 핵심적 요소로 구성한 인정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심의 기구를 운영하며, 정책 목적에 맞게 교과서 범위를 넓히는 실질적인 인정 승인 절차로 개선하고, 인정 교과서 취지와 활용에 대한 수요자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며,

② 자율성 강화와 만족도 제고라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시도교육청 또는 단위학교에 실질적 자율성을 부여하고, 교과서 평가, 선정, 활용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발행 시장의 전문화 체제를 구축하여 실질적이고 공정한 시장 중심의 운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안한 정책 방안들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연구에서는 세 가지 추진 전략과 함께 실천할 구체적 과제 및 추진(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검정과 차별화된 인정 교과서 제도의 개념을 재규명하고 관련 법 규정을 개정, 보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검정과 차별화된 인정 교과서 제도의 목적과 특징을 고려하여 인정 교과서 개념을 설정하는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② 인정 교과서 제도의 구체적 개념 정의와 승인 대상의 특성 및 과정에 대한 기본적 사항이 포함되도록 법 규정을 개정하며, ③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 목적에 적합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인정 교과서 권한을 전면 위임하도록 법 규정에 해당 사항을 포함하는 과제를 제안하였다.

둘째, 마련된 인정 교과서 개념에 근거해 교과서 구분을 개정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구분 고시의 근거 마련을 위한 수요자 및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기반한 합리적 구분 방안을 마련하고, ② 인정 교과서 제도의 목적과 특징에 적합한 과목으로 수정된 교과서 구분으로 개정 고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단순화, 전문화, 조직화된 인정 교과서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① 정책 목적에 맞도록 인정 교과서 관련 업무를 단순화, 간소화하고(본 연구에서 개선된 인정 교과서 심사 절차 안을 제안함), ② 시도교육청의 내실있는 인정 교과서 업무 수행과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며, ③ 인정 교과서 업무를 총괄, 주관하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0. 1. 12.).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 서지영, 김혜숙, 이영아, 차조일, 최미숙(2012). 교과서 정책의 효과 분석 (연구보고 RRT 2012-4).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서지영, 임찬빈, 김정호(2013). 인정 교과서 정책 개선 방안 (연구보고 RRT 2013-6).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필자 소개

국제 비교, 정책 효과 분석, 검인정 정책 개선, 디지털 교과서 등 교과서 정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교과서 검정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TIOS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구입문의

오탈자수정

제본분량  
불량

교환문의

교과서  
정  
문의

제안하기

교과서  
내용  
문의

# 교과서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One-stop으로!

##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TIOS

교과서는 어디서 사야 하지? 교과서 불량은 어디 가서 신고하지?  
사소한 일이지만 많이 답답하셨나요? 교과서 관련 민원을 One-stop으로  
처리하는 포털사이트, TIOS를 방문하세요.  
교과서에 관한 문의부터 오탈자 수정, 제본불량 신고, 그리고 새로운 제안까지-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TIOS가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약속 드립니다.

**교과서 민원 처리는 Yes, TIOS!**

### ● TIOS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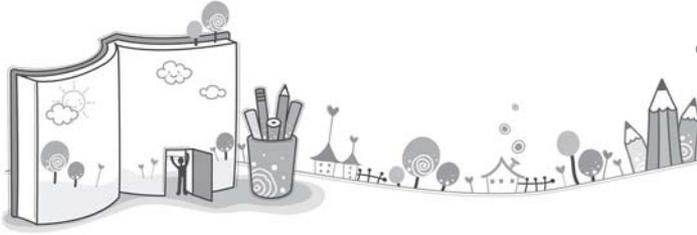
TIOS는 Textbook Information One-stop Service의 줄임말로,  
교과서 관련 민원 업무의 One-stop 처리가 가능한 교과서 관련  
포털 사이트입니다.

### ● TIOS이용방법

TIOS는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쉽고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1566-8572**

**www.교과서114.com**  
**www.textbook114.com**



## 국어-도덕 연계 수업 · 평가 설계



방 경 화

경기 고창중학교 교사

### 1. 삶을 생각하는 수업이 필요하다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계획(안)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교육 당국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시위주의 경쟁으로 암기식·주입식 교육에 매몰되어 있으며, 학습 흥미도 및 행복지수가 아주 낮은 상황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고민의 시간과 계기도 부족하다고 한다.

아직 많은 교실 수업이 지식 전수, 해당 교과의 지식 축적, 그 지식의 가치를 터득케 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선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 밖의 세계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배웠으나 정작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며 타인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는 데도 서툰 인간으로 자라게 된다.

학생들에게 자아, 타자, 삶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표현이 가능한 역량을 함양할 기회를 학교 수업-평가를 통해 좀 더 자주 부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분과적 교과중심의 교육과정 체제 하에서는 교과와 교과의 관계, 교과지식과 삶의 관계가 서로 유리되는 경향이 짙어 교실 수업이 자신의 삶을 사유하고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능력, 삶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각 교과는 그 자체로서 완전한 것으로 다루어지기보다는 학생들의 역량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각 교과는 하나 이상의 다른 교과와 상보적인 관계에 놓일 필요가 있다<sup>1)</sup>고 한다. 이에 국어-도덕 교과를 연계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사유하고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경험, 삶 전체를 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수업-평가를 설계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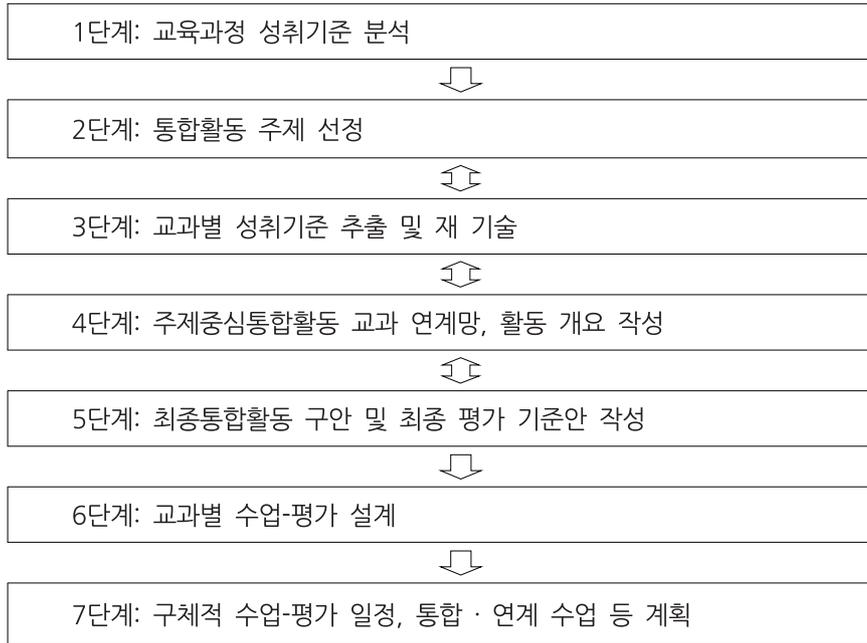
### 2. 교과 간 주제중심통합활동 설계 모형

앞서 상상한 수업-평가를 설계하기 위해 기존의 모형을 변형해 보았다. Susan M. Drake의 KDB 모형

1) 소경희(2007).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역량(competency)'의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제25호 제3호, 한국교육과정학회.

2) KDB 모형에 관한 최근의 번역서는 『통합교육과정 개발과 평가의 기초』, Susan M. Drake: 유제순, 장인한 역(2013)을 참고하면 된다.

2)은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는 간간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표준(standard)의 분석을 통해 그의 도달을 중시하면서도 그 속에 포함된 지식(to Know)과 기능(to Do)을 의미 있는 행동 방식(인성-to Be)으로 다리를 놓아 학생들의 삶과 직접 연계된 의미 있는 주제중심통합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 모형을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우리나라 중등학교 상황에 적용 가능하면서도 통합적 사고 역량과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한 주제중심통합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 모형을 설계하였다.



### ● 1단계: 교육과정 성취기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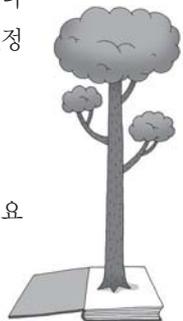
교과별 교육과정 성취기준 스캔 및 클러스터 작업을 한다. 교육과정 문서의 성취기준별로 지식, 기능, 태도의 요소를 추출해 한 페이지로 만들어 두면 활용하기 편리하다. 교사의 교육과정 해석을 통해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전체 조망도를 만든다.

### ● 2단계: 통합활동 주제 선정

각 교사가 협력하며 통합활동 주제를 선정한다. 이 때 교육과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이슈와 비전, 사회나 세계의 당면한 문제 등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의 유의미한 삶과 관련된 구체적 실천이 가능한 주제를 선정한다.

### ● 3단계: 교과별 성취기준 추출, 재 기술

몇 번 협의를 하면 구체적 활동의 윤곽이 나오게 되는데 교과별로 1단계의 결과물을 통해 이 활동에 필요한 성취기준을 정밀하게 찾아내고 필요한 경우 이를 주제중심통합활동에 맞게 재 기술한다.



● 4단계: 교과 연계망, 개요 작성

단계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적절히 수정된 활동의 윤곽을 그린다. 처음엔 성취기준 중심 관계망 정도만 나오지만 마지막엔 구체적 교과별 활동까지 포함된 망이 나오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육과정 성취기준 외에도 학생들에게 더 가르쳐야 할 지식, 기능이나 길러주고 싶은 역량, 인성 등의 요소를 풍부하게 가미하는 것이 공통성과 개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을 것이다.

● 5단계: 최종통합활동 구안 및 최종 평가기준안 작성

주제중심통합활동 전체의 바라는 결과를 학습자들이 성취했는지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최종평가 장면(수업이자 수행평가)과 평가기준안을 설계하는 단계이다. 교과별 수업-평가 설계에 앞서 최종 수업-평가를 먼저 설계하는 것은 교과 간 복잡한 활동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 중등학교 현실에서 처음 목적을 정확히 달성하게 해주는 길잡이가 된다. 대개 배운 것을 총합하여 시사회, 발표, 전시, 회의, 공연 등을 하며 교사, 동료, 자신에게 평가를 받게 된다.

● 6단계: 교과별 수업-평가 설계

주제중심통합활동에 포함된 각 교과와 성취기준별 수업과 평가를 설계한다. 최종 수업-평가에 필요한 모든 지식, 기능, 태도는 갖추어져야 함을 전제로 설계한다.

● 7단계: 구체적 수업-평가 일정, 통합 또는 연계수업 등 계획

중등학교에서 섬세하게 작업할 부분이다. 최종활동 이전까지 필요한 교과별 수업-평가의 일정을 활동의 성격에 맞게 동시 또는 선후로 배치하고 최종활동일을 정한다. 필요한 경우 교과 간 수업시간표를 연속으로 배치하여 블록을 만들고 두 교사가 동시에 수업하거나 연속으로 수업을 하며 학생들의 통합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 3. 국어-도덕 주제중심통합활동 설계 사례

2009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성취기준을 토대로 국어과의 언어활동과 도덕과의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우리·타인과의 관계' 영역의 활동을 연계하여 자아(자기 이해, 자기 삶 성찰, 자아 존중), 타자(가족, 친구, 이웃), 삶(공부, 진로)의 영역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이해와 표현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는 주제중심통합활동 프로그램을 설계해 보기로 한다.

● 1단계: 교육과정 성취기준 분석

국어, 도덕 교사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스캔하고 자신의 해석을 통해 클러스터한 후 학기 단위로 조망도를 만든다.

### ● 2단계: 통합활동 주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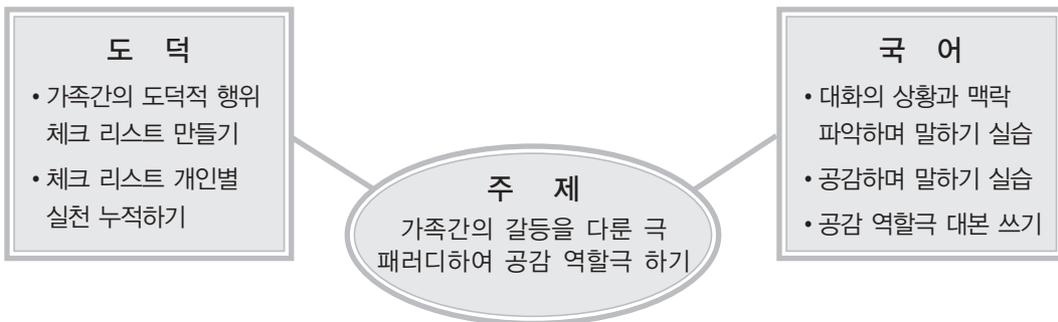
국어과와 도덕과 교사가 협력하여 영역별 통합활동 주제를 선정한다. 이 때 국어, 도덕과 교사는 ‘가족 간 갈등을 다룬 극을 패러디하여 공감 역할극 하기’라는 주제를 정했다. 도덕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가족 간의 화목함이 중요함을 알고 그를 위해 구성원이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함을 아는 것에서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이끌어내는 수업을 하고자 하며, 국어 교사는 대화를 통해 상대방과 공감하며 말할 줄 아는 역량을 키워 주고 싶은 데 학생들이 보다 가치 있는 내용으로 말하는 수업을 진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 ● 3단계: 교과별 성취기준 추출

국어과 성취기준 ‘대화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듣고 말한다.’와 도덕과의 ‘가정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한 의사소통의 방식을 이해한다. 노인들을 공경하는 마음과 자세를 갖고, 우애 있는 형제자매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나의 삶에 가정의 화목이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바람직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부모의 관점과 자녀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한다.’를 적용하기로 한다.

### ● 4단계: 교과 연계망, 개요 작성

최종통합활동 주제와 교과별 활동까지 포함된 관계망을 다음과 같이 만든다.



그리고 핵심역량<sup>3)</sup>(이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 등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성취기준별 지식, 기능, 태도 등의 분석 결과, 추가하고 싶은 지식, 기능, 태도, 교과별 활동 등을 담은 개요표도 작성한다.

### ● 5단계: 최종통합활동 구안 및 최종 평가기준안 작성

관련 성취기준들이 모두 달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최종평가 장면(수업이자 수행평가)인 모둠별 공감역할극하기의 구체적 활동 내용과 통합평가기준안을 설계한다. 또 학생들이 교과 간 활동의 진행 과정, 자신들이 해야 할 과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태의 활동 안내문을 제공해 최종 평가 장면까지 잘 기억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한다.

3) 경기도교육과정(2012)에 제시된 창의지성역량 및 교과별 핵심역량을 활용함.



#### ● 6단계: 교과별 수업-평가 설계

주제중심통합활동 이전까지의 각 교과 별 활동인 상대방과 공감하며 말하기 실습(국어), 공감 역할극 대본 쓰기(국어), 도덕적 실천 체크리스트 작성과 실천(도덕) 등에 관한 수업과 평가를 설계한다. 이 때 학기 단위로 작성된 조망도틀 속에서 교과별 시량도 조절한다.

#### ● 7단계: 구체적 수업-평가 일정, 통합 또는 연계수업 등 계획

먼저 두 교과 시간을 연속으로 배치하여 가족드라마를 감상하고 각 교과의 성취기준 해당 수업을 전개한 후 두 교과 수업을 블록을 묶어 통합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선정한 극을 패러디한 역할극을 발표하기로 한다.

### 4. 주제중심통합활동의 가치

2009 개정교육과정에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인성 교육을 실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2013 학교교육계획 반영 교과부 주요정책'에서는 국어, 도덕, 사회과에서 인성교육을 교과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다수 구안하여 교육과정에 지속적으로 배치한다면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과 인성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의 모형을 활용해 국어과와 도덕과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천중심의 수업이자 역량중심수행평가가 되도록 도덕적 갈등 사례로 모듈별 UCC 제작하기, 아름다운 사이버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리플릿 만들기, 주민자치회의를 통한 협상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하기 등 교사의 창의적 발상에 따라 다양한 주제로 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교과를 더 넓혀 국어-도덕-과학과를 통합하여 환경 문제에 관한 자유탐구 프로젝트 실천하기 등으로 세 교과 이상의 확정 설계도 가능하다.<sup>4)</sup>

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이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을 수반해야 한다.<sup>5)</sup> 국어-도덕 통합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아 이해와 성찰을 기반으로 한 자기 삶의 설계 및 구체적 실천을 위한 핵심 역량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역량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종래 교과교육에서 다루어 온 가치 있는 지식과의 관련 속에서 그 의미가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아, 타자, 삶을 성찰하고 이해하며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의사소통능력,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 대인관계능력 등의 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본다.

설계에 사용된 모형과 그 시도는 현장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수업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성취기준에의 도달이 가능한 책무성과 적절성을 모두 만족하는 2009 개정교육과정 재구성의 구체적 방법을 상상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의욕을 가진 중등학교 교사들이 주제중심교과통합 프로그램을 설계하고자 할 때 최초의 목적을 잃지 않는 깔끔한 설계와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4) 부록에 설계 사례를 제시하였다.

5) 소경희(2007), 전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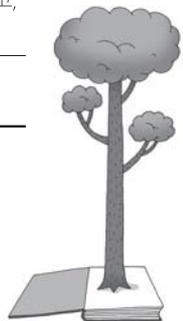
## 부 록

## 국어-도덕과 주제중심통합활동 설계 사례

## 1. 도덕적 갈등 사례로 모둠별 UCC 제작하기

문학적 갈등은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국어과의 주요 학습 내용이며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이기도 하다. 그런데 학생들은 그 중 내적 갈등 양상을 이해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을 보인다. 이런 경우 대개 도덕적 갈등을 다룬 경우가 많다. 아직 도덕적 갈등 상황에 대한 경험과 깊이 있는 성찰의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인 듯하다. 중학교 시절은 인성의 함양과 바른 가치관 정립의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 수업에서 단순히 국어의 갈등 양상 파악에 머물기보다는 문학 수업을 통해 도덕적 성찰에 의한 판단 능력을 함께 기르도록 해주면 더욱 효과적이다. 또 도덕 수업도 문학작품의 감상과 창작 일화를 통한 도덕적 상상을 유발해 감수성이 풍부해진 상태에서 도덕적 판단 능력을 기르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생들이 자신들의 일상 삶에서 겪은 도덕적 갈등을 다룬 짧은 영상을 제작하고 친구들과 함께 그에 담긴 갈등 구조를 파악한 후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체험을 한다면 복잡한 갈등 구조를 선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삶에 의미 있는 문학과 도덕의 연계 수업이 가능할 것이다.

주제	도덕적 갈등 사례로 모둠별 UCC 제작하기		
창의지성 역량	의사소통능력, 자기관리능력		
국어	쓰기 문학	성취기준	2962.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을 파악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2938. 영상 언어의 특성을 살려 영상으로 이야기를 구성한다.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2959. 자신의 일상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찾아 다양한 작품을 표현한다.'를 활용해 영상 소설로 교과 내 통합도 가능)
		핵심역량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의사소통능력
도덕	도덕적 주체로서 의 나 -도덕의 의미	성취기준	도911. 도덕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핵심 규범 체계라는 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도덕적 삶을 영위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핵심역량	자율적인 도덕적 판단 능력





## 2. 아름다운 사이버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리플릿 만들기

『트루먼 스쿨 악플 사건』이라는 이야기로 단원을 전개한다. 낱말형성법 새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는 단원인데 그런 기회를 통해 학생들은 평소 무심히 사용하던 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다. 종종 학생들에게 비속어를 분석하여 그 뜻을 알려 주면 일시적으로 사용 빈도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낱말형성법을 학습하고 그 원리를 사이버 언어 중 상대방을 언짢게 할 수 있는 말들의 분석에 적용하면 학생들이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고 사용을 자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수업은 낱말형성법을 학생들의 실제 삶과 밀접한 사이버 언어생활에 적용함으로써 그 원리를 깊이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과 또래들의 언어 사용 실태의 문제점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부여한다. 또 바른 언어 사용을 통한 인성교육에 큰 도움이 되며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는 경험도 동시에 할 수 있어 공감 능력 발달,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존중 교육, 사이버 폭력의 원인을 스스로 고찰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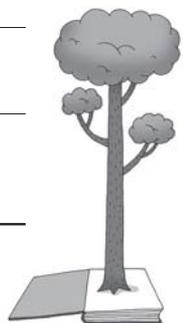
주제	아름다운 사이버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리플릿 만들기		
창의지성 역량	의사소통능력, 민주시민 의식		
국어	문법 쓰기	성취기준	2945. 낱말의 짜임을 분석하고 새말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한다. 2939. 매체의 특성이 쓰기의 내용과 형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글을 효과적으로 쓴다. 29310. 쓰기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
		핵심역량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의사소통능력
도덕	우리·타인과의 관계-사이버 윤리와 예절	성취기준	도923. 익명성, 자율성, 다양성을 특성으로 하는 사이버 공간에도 타인 존중과 도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권리(인격권, 프라이버시 등)를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으며, 지켜야 할 예절을 준수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특히, 사이버 범죄 및 폭력의 동기와 결과에 대해 비판적이고 반성적으로 성찰하며, 동시에 바람직한 해결 절차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갖는다.
		핵심역량	자율적인 도덕적 판단 능력, 공동선 구현을 위한 실천 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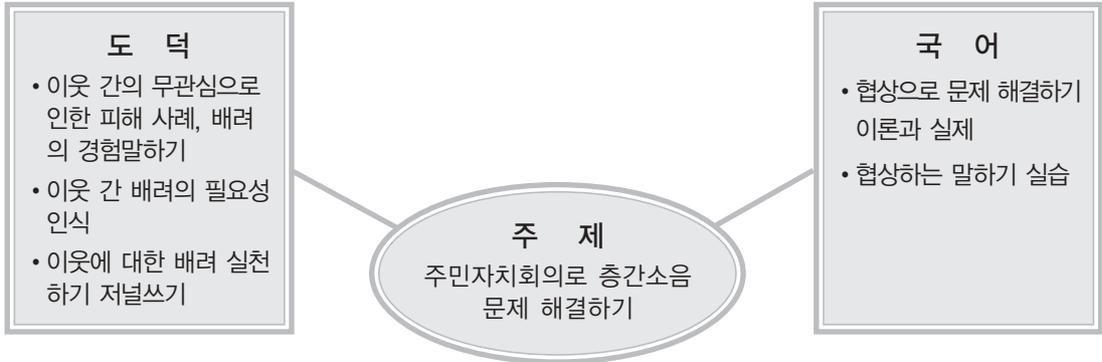


### 3. 주민자치회의를 통한 협상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하기

일상생활의 다양한 문제 상황을 설정하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말하기의 경험은 학생들에게 협상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하고 의견이나 입장이 다른 상대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듣기·말하기 능력을 키워 줌으로써 학생들의 현재와 미래 삶에 무척 가치가 있는 역량이며 동시에 학생들의 흥미를 끄는 활동 중심 수업이다. 이 수업-평가는 학생들이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타자 중의 하나인 이웃과 나의 관계를 적절히 인식하며, 이웃을 배려하고 상호 협동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제에 가까운 상황을 제시하여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학생들의 삶과 통합하는 활동으로 설계한다. 이런 활동은 각 교과의 배움에 실제감을 줄 것이며 학생들의 삶에서 이웃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역량을 형성하는 데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주제	주민자치회의를 통한 협상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한다.		
창의지성 역량	협력적 문제발견·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민주시민 의식		
국어	듣기·말하기	성취기준	29111. 협상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의견의 주장이 다른 상대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핵심역량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의사소통능력
도덕	우리·타인과의 관계 -이웃에 대한 배려와 상호 협동	성취기준	도924. 이웃과 나의 관계를 올바르게 인식하며, 이웃을 배려하고 상호 협동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핵심역량	자율적인 도덕적 판단 능력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 공동선 구현을 위한 실천 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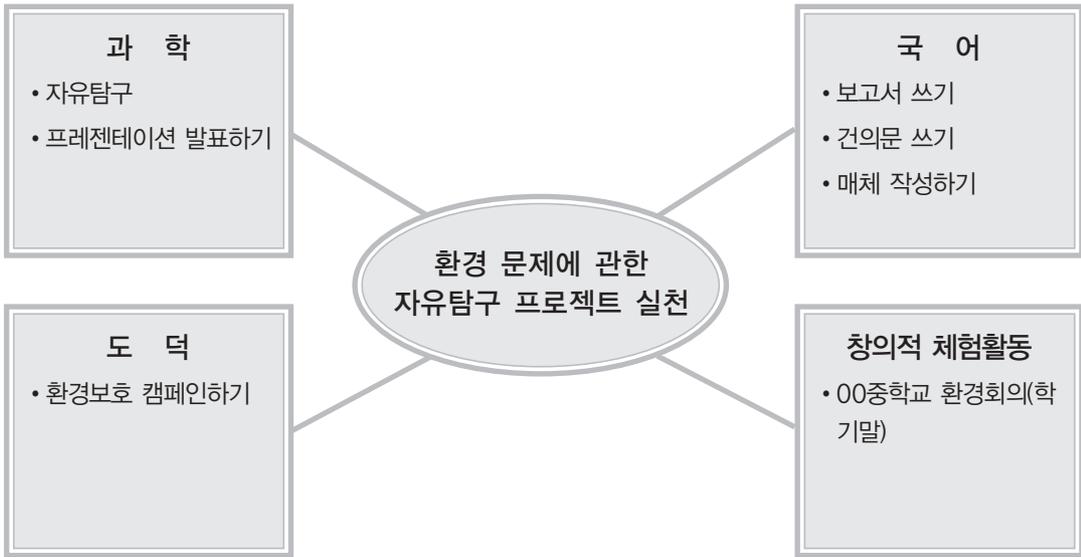




#### 4. 환경 문제에 관한 자유탐구 프로젝트 실천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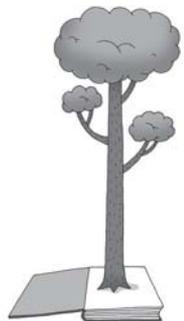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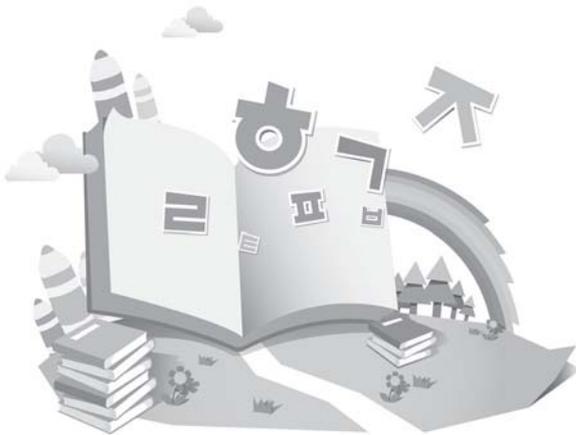
과학과의 환경과 과학의 관계를 인식하는 자유탐구 활동과 도덕과의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 윤리적 관점에서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수업, 국어과의 보고서 쓰기, 건의문 쓰기, 매체 제작을 통해 발표하는 말하기가 통합된 활동이다. 이를 통해 도덕과에서는 생태계 보존을 위한 도덕적 민감성을 함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국어과에서는 의미 있는 쓰기, 말하기 활동이 가능하며 과학과에서는 도덕적 성찰이 결부된 자유탐구, 탐구 결과로 본격적인 보고서 쓰기 지도, 프레젠테이션의 방법이나 말하기 지도가 가능해진다.

주제	환경 문제에 관한 자유탐구 프로젝트를 실천한다.		
창의지성 역량	의사소통능력, 협력적 문제발견 · 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민주시민 의식		
국어	듣기·말하기 쓰기	성취기준	2933. 관찰, 조사, 실험한 내용을 절차와 결과가 드러나게 보고하는 글을 쓴다. 2935.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문제해결 방안이나 요구 사항을 담은 글을 쓴다. 2919.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용을 매체 자료로 구성하여 발표한다.
		핵심역량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의사소통능력
도덕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환경 친화적인 삶	성취기준	도941.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소비 생활과 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평가하여 환경 친화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핵심역량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
과학	01. 과학이란?	성취기준	9012-2. 과학이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환경, 탐구, 과학적 원리 적용 사고 등을 포함하여 재 기술할 수 있다.)
		핵심역량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문제해결력 과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 능력



**필자소개**

경기도 고창중학교 국어 교사. 논술, 토론 수업으로 2009년 경기도 토론지도교사상 수상, 교실수업개선실천연구대회 입상. 현재 삶과 밀착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과통합, 역량중심 설계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제.언.

## 교과서 수정 · 보완 모니터링

- △ 국어과의 교과서 수정 · 보완 모니터링 활동을 통한 제언
- △ 사회과의 교과서 수정 · 보완 및 모니터링
- △ 교과서 모니터링의 발전을 위한 제언



교과서의 오류나 문제점은 교과서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므로 일차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한 단계 높은 수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는 2011년부터 교육부 위탁사업으로 교과서의 질 제고를 위한 현장교사들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에는 국어, 사회, 역사, 도덕, 수학, 과학 교과서를 대상으로 58명의 교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여 교과서를 수정 · 보완하고 현장적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에 이 사업에 참여한 교사들의 제언을 들어보았다. 

## 국어과의 교과서 수정·보완 모니터링 활동을 통한 제언



조 용 옥  
온양여자중학교 교사

필자의 학창 시절을 비롯하여 교사가 된 지금까지 줄곧 교과서의 독자였음을 떠올리며 본고의 서두를 열고자 한다.

필자의 학창 시절에 교과서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독보적인 매개체였다. 그래서 그런지 학창 시절 새 교과서를 받던 날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새로 받은 교과서의 읽을거리와 볼거리들은 한 번에 다 보기가 아까워서 아껴 봐야 할 정도였다. 단연 국어 교과서의 인기가 가장 높았고 교과서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나 삽화 하나에도 웃음꽃을 피울 정도였다. 교과서를 받은 날 저녁은 달력을 찢어 교과서의 표지를 싸고 교과 명을 쓰느라 온 정성을 쏟았다. 그렇게 교과서에 애지중지 정성을 다했고, 배울 때에는 교과서에 선생님들의 말씀을 받아 적어 정리하여 신성시할 정도였다.

이번 겨울 방학식 때에도 어김없이 새 학년 새 학기의 국어 교과서를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에게 나눠준 교과서란 집으로 운반해야 할 물리적 무게와 함께 학습 부담감의 심리적 무게까지 더해져 달가운 대상이 아니었다. 예전처럼 교과서를 애정 어린 마음으로 이리저리 넘겨보거나 새로운 정보를 찾기 위해 눈을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름이라도 바로 써서 자신의 소유임을 표시만 해줘도 고마운 것이 교과서의 신세가 되었다.

필자의 초보 교사 시절에는 수업의 목표 도달을 위한 나침반과 같은 도구로서의 교과서 역할을 망각하고 교과서 자체가 수업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부끄러운 과오를 범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교사 개인이 교과서의 역할과 기능을 알고 활용하기까지 동반되는 시행착오는 필수적이며 그 과정에 현격한 개인차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드디어 교과서를 재구성하거나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교과서 집필 과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었다.

학창 시절에는 금과옥조로 삼아 의심의 여지 하나 없었던 대상이며, 초보 교사 시절에는 수

업의 목표로 완전 정복해야 할 대상이 될 뻔 했던 교과서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 지원으로 한국교과서 연구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과서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3년간의 교과서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모아 교과서의 오류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완성도 높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나아가 어떻게 하면 친근하면서도 현장 적합성이 높은 교과서를 만

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전문성 또한 신장할 수 있었다.

교과서 모니터링단으로서의 지난해 활동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해에는 중·고등학교 국어 교사 16명이 2013학년도에 새로 적용될 중학교 국어 교과서(총 14종의 84권 가운데 발행된 44권) 신간본을 학교 현장의 수업 진도보다 빠르게 검토하여 매월 21일까지 개인별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

[표 1] 교과서 모니터링의 관점과 검토 내용<sup>1)</sup>

관점	검토 내용
적합성	교육과정의 목표달성에 적합한 내용인가?
	학생의 발달, 요구, 흥미, 노력에 알맞은 내용인가?
	학습내용의 분량은 적절한가?
	중복된 내용은 없는가?
	학습내용, 용어의 수준과 난이도는 알맞은가?
	학습 시에 필요한 교재, 교구는 쉽게 구할 수 있는가?
연계성	학습내용의 조직에서 학년간, 교과내의 계열성이 잘 반영되었는가?
	교과간의 횡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학습내용이 제시되었는가?
	학습 내용의 배열, 조직은 서로 연계성 있게 제시되었는가?
정확성	제시된 삽화, 사진, 도표, 통계 등은 적절하게 선정되었는가?
	제시된 내용이나, 용어들의 표현, 표기는 정확한가?
	편향성이 있거나 논리성이 결여된 내용은 없는가?
	오자, 탈자가 있거나 용어가 통일되어 있는가?
	통계 값은 최신의 자료를 제시하였는가?
보편성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주장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있는가?
	지역, 종교, 성역할 등에 편견있는 내용, 삽화는 없는가?
	올바른 직업관에 의해 편찬되었는가?

1) 「교과서 질 관리를 위한 2013 교과서 모니터링단 워크숍 및 오리엔테이션」중 “교과서 모니터링 관점 및 방법(윤석주)”에서 교과서 분석 관점으로 제시된 것을 중학교 교과서 모니터링의 관점으로 삼았다.



였다.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는 개인별로 잘못 지적할 수 있는 오류나 편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2인 1팀으로 8개의 팀을 만들어 개인별 검토 보고서를 다시 팀별로 교차 검토하였다. 팀별로 교차 검토한 의견을 서로 주고받아 합의된 모니터링단의 최종 검토 보고서를 매월 25일까지 작성하여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모니터링단의 보고서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교과서 수정·보완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출판사에게 통보된다. 그러면 출판사는 집필진 협의회를 개최하여 모니터링단의 의견에 대한 출판사별 수정 계획서를 작성한 후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 다시 보고하게 된다. 회답으로 온 출판사별 수정 계획을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교육부는 해당 공문을 통해 전국의 각 학교에 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모니터링단도 자신들의 검토 의견에 대한 출판사의 수정 계획을 한국교과서연구재단으로부터 받아 수정 계획서에 반영되었거나 미반영된 사례를 분석하여 환류 자료로 활용하였다.

우선 교과서 모니터링 활동의 범주 가운데 크게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과 목표와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학습 자료로서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충실성을 살피려 노력하였다. 그리고 실제적인 검토 활동은 아래와 같은 교과서 모니터링의 관점을 토대로 세부 내용을 점검하여 교과서의 오류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적합성과 관련되어 수정 계획에 반영된 검토 사례는 교과서의 학습내용이나 용어의 수준이 학생의 발달, 요구, 흥미, 노력과 비교하여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학습내용의 분량을 조절해야 한다거나 학습목표를 명확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도 있었으나 교과서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웠다. 이런 경우 모니터링단의 의견이 학습내용의 이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출판사의 전체적인 교과서 체제에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수정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연계성과 관련되어 수정 계획에 반영된 검토 사례는 학습 내용의 배열이나 조직이 서로 연계성을 갖도록 조절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학년군제 도입의 취지를 살려 학습 내용을 유연하게 조직할 수 있으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학년군 내에서 교육 내용이 위계적으로 배치될 수 있음을 전제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다. 연계성과 관련하여 단원 구성이나 체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검토 의견에 대해서도 이미 교과서 개발이 완료되었기에 출판사의 교과서 전체 체제를 따르겠다는 경우가 많았다.

정확성과 관련되어 수정 계획에 반영된 검토 사례는 오자, 탈자, 띄어쓰기 오류, 중복된 표현, 비문이나 번역식 문장의 오류, 의미가 불명확한 문장, 부정확한 용어의 표현, 도표나 삽화의 부적절한 활용에 대한 수정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정확성과 관련된 검토 의견은 거의 출판사의 수정 계획에 반영되었다.

모니터링의 관점으로 적합성과 연계성에 비해 정확성과 보편성이 주된 검토 관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성과 관련된 교과서 검토 사례가 가장 적었다. 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의 주장과 편견을 배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지역, 종교, 성 역할, 인종 등에 편견 있는 내용이나 삽화도 작년과 비교하여 찾기 어려웠다.

이밖에도 교과서의 단원별 특색과는 무관하게 하

나의 체제를 적용하는 것, 교과서의 권위를 내려놓지 못하고 지식 전달형이나 정보 압축형의 어려운 서술 방식을 고집하는 것, 과도한 학습 분량으로 학생의 다양한 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것, 다양한 평가 문항이나 사례 제공이 부족하여 참고서를 필요 조건으로 당당하게 제시하는 것 등이 교과서 전반의 고질적 문제들로 거론되었으나 바로잡기 어려운 나쁜 버릇으로 굳어져 출판사는 수정 계획에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2013년 상반기인 3월~8월 사이에 중학교 국어 교과서 모니터링단에서는 수정·보완할 검토 의견으로 850건을 보고하였으며 그 가운데 317건(37.2%)만 수정 계획에 반영되었다. 미 반영된 검토 의견들 중에는 모니터링단의 정보 및 전문성 부족에 기인한 것도 있었지만 이미 출판된 교과서에 대한 체제나 편수 방침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한계를 느끼기도 하였다. 따라서 검정 후 발행된 국어 교과서를 수정·보완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단의 끊임없는 의견 제시와 그 의견이 장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겠다.

교과서 모니터단의 활동을 통해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교과서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 변화를 깨닫게 되었다. 과거 우리 사회는 교과서를 정부에서 만드는 특별하고 완벽한 책으로 '금과옥조' 또는 '성전(聖典)과 같이 신성시하였다. 그러나 요즘은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구현하는 교육·학습 자료 중의 하나로 수업 방법을 개선하는 도구적 관점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교과서에 대한 관점은 변화되었지만 실질적인 교과서의 기능과 역할은 예전 그대로라는 생각이 든다. 지식과 기술의 폭발적인 팽창의 시대에 표면적으로는 다양화되었다고는 하나 교과서라는 기존의 틀을 답습하면서 교육과

정 상의 목표나 성취기준의 달성 여부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교육 현실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교육 현장에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고 암기하기 위한 교수-학습 중심의 획일적인 매체로서 교과서의 기능과 역할은 사라져야 한다. 지식과 기술의 폭발적인 개발과 더불어 그 접근 방법의 다양성과 융이성은 상상 그 이상이 되었다. 우리 교육의 전반이 급변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매개체인 교과서의 기능과 역할이 진화되기를 요청받고 있다. 교과서가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고 암기하는 압축형 자료집이 아닌, 지식과 기술을 차별적으로 선택하거나 활용하여 가치를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학생 중심의 활용자료로 거듭나야 한다.

아직까지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도덕, 사회, 역사와 함께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유로 검정 후 발행하고 있다. 게다가 일반적인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자를 미리 제한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보 또한 제한해 놓고 집필되고 있다. 교과서라는 기존의 틀을 답습하며 교과서를 만드는 순간 이미 그 매력의 반 이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게다가 참고서 없이는 활용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는 학생 개개인의 필독 도서로 나누어 주는 순간 나머지 매력마저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거창하게 '교과서 선진화 방안'이나 '국·검정 교과서의 시대적 부적합성', 심지어는 '입시제도와 교과서 개선의 선후관계'를 따지지 않더라도 교과서 개방 정책과 더불어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어 교과서를 인정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유 발행제를 실현해야 한다. 국어 교과는 모국어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



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모국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적합한 국어 사용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활동을 담은 교과서와 그마저도 제한하는 참고서의 무차별적인 정답을 제공하는 행태는 국어 교과서의 목표 자체를 스스로 부인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국어 교과서는 그 어느 교과서보다도 더 학생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택하고 조직하며 활용하여 만들어 나가는 용도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교과서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교과서의 완성도와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을 경험할 수 있었다. 자생적이면서도 다각적인 교과서 모니터링단의 활성화가 바로 그것이다. 수시로 교과서의 자료가 수정·보완된다면 살아있는 지식을 활용한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 개방 정책을 토대로 열린 교과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책이나 제도 정비와 더불어 국가 단위, 출판사 단위, 학교 단위, 교사 단위로 교과서 모니터링단이 활성화되어 교과서의 이상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 필자소개

마인드맵으로 함께 찾아가는 국어 수업을 브랜드로 활동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 모니터링단으로 활동



# 사회과의 교과서 수정 · 보완 및 모니터링



**김혜환**

한국교원대학교부설  
고등학교 교사

## 1. 사회과 교과서 모니터링의 필요성

사회과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 이해와 해결에 필요한 탐구력, 의사결정력, 비판적 사고력 등의 고차적 사고력을 기르고 사회 참여의 태도를 습득'하도록 하는 교과이다. 특히 '정치적, 종교적, 사회·문화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과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교과서의 문제점 및 과제들은 거듭되는 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식의 전달에 치우치고 있고, 특정 교과에서는 이념이나 견해차에 따른 갈등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에 있어서는 핵심 매개체이다. 이러한 교육적 성격하에서 교과서의 내용이나 표현상의 오류, 문제점은 매우 사소하고 단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교과서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므로 단순히 넘겨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즉 내용이 아무리 좋은 교과서라 할지라도 오류가 발견되면 신뢰를 잃은 교과서가 되므로 오류와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현장 적합성이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는 일이 중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 교과서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교과이다. 더군다나 교과서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과 교과서는 정확성을 유지하고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오류로 인한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사회과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검토 과정을 거치기 위한 사회과 교과서 모니터링은 필수적이고 의의 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사회과 교과서를 교과서 검정기준에 따라 수정 보완한 사례를 통하여 교육 현장에서 요구하는 질 높은 사회과 교과서를 제작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기준에 따른 교과서모니터링의 실제

### 가.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교과서에 제시한 사실, 개념, 이론 등은 정설화된 것으로 적합하고 정확한지, 자료는 정확하고 출처가 분명한지, 특정 지역, 계층, 인물, 성, 상품, 기관, 종교 등을 비방, 왜곡 또는 옹호하지 않았으며, 편견 없이 공정하게 기술하였는지를 검정기준으로 내용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살펴보게 된다. 실제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를 모니터링 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양적 연구 방법 - (중략) 그 다음에 실제로 자료 수집을 하는데 **실험, 질문지 조사, 면접 조사, 관찰, 문헌 분석**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면접 조사, 관찰은 질적 연구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하였으므로 양적 연구방법으로 면접 조사와 관찰을 기술한 부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여 수정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밝히고, ...

위의 내용은 헌법 조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밑줄 친 부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로 수정하였다.

개념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견된 사례도 있다. 예를 들면 사회 보험 중 건강보험료는 지역 가입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고 있다.

개인이 부담하는 사회 보험료는 위험의 정도보다는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되므로 소득 재분배 기능도 가진다.

“소득에 비례하여”라고 서술한 것은 “소득 수준 등 부담 능력에 따라”로 고쳐야 한다.

사회과 교과서는 개념, 사실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으면 학생이 오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용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 나. 표기·표현 및 편집

사회과 교과서에는 지명, 통계, 도표 등이 많이 제시된다. 그러므로 한글, 한자, 로마자, 인명, 지명, 용어, 통계, 도표, 지도, 계량 단위 등의 표기가 정확해야 하며, 편찬상의 유의점을 충실하게 따랐는지, 오·탈자, 문법 오류, 비문 등 표기·표현상의 오류가 없는지, 편집 디자인, 지면 등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구성되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즉, 산업 재해, 공해, 질병, 실업, 안전 사고, 이혼, 노후 빈곤 등에게서 벗어나려는 사회적 욕구와 관련이 있다.

(나) 서구적 생활 양식이 확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위의 (가)에서 밑줄 친 부분은 표현상의 오류로 ‘등에게서’가 아니라 ‘등에서’로 수정하였으며, (나)는 문법적 오류로 ‘확산하는’이 아니라 사동사 ‘확산되는’이 옳은 표현이다.

### 다. 사회과 교과서 모니터링의 한계

사회과 교과서 모니터링 활동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오류는 정확성, 표현, 표기, 편집에 대한 부분이었다. 이는 교과서 모니터링활동이 검정기준에 제시된



교육과정의 준수 여부, 내용의 선정 및 조직, 창의성,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영역에 대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이미 교과서 편찬의 기준으로 교과서 저작자들이 이 기준에 따라 교과서 집필 및 검정에 참여하여 출판되었으므로 이후 모니터링 결과가 반영되기 위해서 집필진과의 협의가 있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사회과는 이러한 검정기준에 위배된 내용이라고 모니터링해도 교과서가 적격으로 판정된 후이므로 내용의 선정 및 조직, 학습 방법 및 평가 등 영역의 모니터링 결과는 관점에 따른 차이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논란을 불러일으켜 갈등 상황만 초래할 수 있어서 교과서 분석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는다.

### 3. 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회과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

교과서의 수정·보완과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질 높은 교과서를 확보하고 교육현장에 적합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과서 오류 예방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서 모니터링 활동은 교과서의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중심축이다. 교과서의 오류와 문제점을 발견·수정을 통하여 교과서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학교 현장에 공지하여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교과서 오류 예방 및 수정·보완 방안으로는 현장 교사들의 검토가 강화되어야 하며, 저작자와 편집자, 출판사별 검토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교육부가 개별적인 오류사항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일본의 사례처럼 오류 사항

의 책임을 전적으로 출판사에서 지거나 미국의 사례처럼 시장의 원리에 따라 오류의 수준별로 벌과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교과서 연구기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인력풀을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다. 한국 교과서연구재단에서의 교과서 모니터링 활동처럼 해당 교과목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를 검토함으로써 전반적인 학습의 연계와 학습 내용의 해당 학년 적절성, 내용의 중복이나 비약 등을 심도 있게 볼 수 있다. 이 때 전문가들이 보다는 안목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개인적 노력과 아울러 한국교과서재단의 구체적인 연수나 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관련 직무연수의 개발과 참여를 촉진하는 홍보가 필요하다.

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질 높은 사회과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교과서 관리, 적용, 나아가 급변하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교육의 목표, 방향 등도 함께 고민할 수 있다면 교과 교육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길이 될 것이다. 

#### 필자소개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고 있다. 학교인구교육 관심을 갖고 “초중등학생의 결혼 및 자녀가치관 정립방안연구(김태현 외, 2006)”에 연구진으로 참여하였으며, 2012년 특별연구교사로서 “인성교육”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 교과서 모니터링의 발전을 위한 제언



**정 종 식**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교사

수학과 교과서 모니터링단은 2013. 2. 21(목)부터 22(금)까지 2일간 실시된 워크숍 및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 2학년 교과서를 모니터링하게 되었다.

본인이 교과서 모니터링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지난 1년은 교과서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모니터링 활동이 얼마나 의미있는 일인지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이러한 의미있는 교과서 모니터링 활동이 더욱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1. 교과서 모니터링 운영체제

교과서 모니터링은 교과서의 질적수준 및 내용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와 출판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오류나 기술내용에 대한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 많은 교사와 학생이 수업의 지표로 삼는 교과서를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활동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과서 모니터링은 몇몇의 교사에게 의해 지적되고 수정이 요구되는 체계라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물론 교과서 모니터링단에서 제시하는 권고 또는 수정의견이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이 교육부의 교과서기획팀에 보고되고 각 출판사에 수정 및 보

교과서 모니터링단

↓ (모니터링 결과 및 의견 제출)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결과수합 및 보고)

교육부 교과서기획팀

↓ (수정 및 보완 지시)

출판사 및 한국검인정교과서

[ 모니터링 운영체계 ]

완 지시가 되는 과정에서 그 의미는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현 모니터링 운영체계의 시작점인 교과서 모니터링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모니터링 위원회의 질관리와 연수를 통한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 2. 교과서 모니터링의 방향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사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교과서의 내용이 지적되고 수정 요구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위원별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별 모니터링 위원들이 협의를 거쳐 정제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수학과에서 실제로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전체 위원회의 협의를 진행해 본 결

과, 어떤 위원은 저자의 뜻을 이해하고 통념상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였고 또 다른 위원은 객관적으로 수정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으며 제시된 의견에 대한 다른 의견을 제시한 위원도 있었다. 이는 온라인상 협의의 제한점이 가장 컸다고 할 수도 있으나, 본인이 교과서 검정위원으로 활동하며 10여일간의 합숙을 통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위원 들끼리 모여 논의를 하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결론을 내기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교과별 모니터링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정제된 의견을 제시하려는 노력보다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합하여 전달하는 것이 교과서 모니터링의 목적에 맞지 않을까 한다.

둘째,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일방적인 ‘권고’ 또는 ‘수정’ 지시가 아닌 모니터링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출판사에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모니터링 보고서는 검정심사이나 인정심사 과정에

도서명			발행사			
단원명						
일련 번호	쪽	행	원문	수정 권고 사항	이유 또는 근거	비고 (수정/권고)
1						
2						

[ 기존 보고서 양식 ]

도서명			발행사			
단원명						
일련 번호	쪽	행	원문	모니터링 의견	이유 또는 근거	
1						
2						

[ 보고서 양식 제언 ]



서 사용되는 양식과 동일하여 모니터링이라기보다는 교과서를 심사한 후 평가결과를 통보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모니터링을 하는 위원 역시 '권고' 또는 '수정'의 지시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실제로 지난 2013년 2월에 참가한 오리엔테이션에서 교과별 발표시 모니터링 결과를 출판사에서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위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느끼기도 하였다. 만약 위의 의견을 수용하여 목적에 따른 모니터링의 방향에 변화가 생긴다면 보고서의 양식 또한 다음과 같이 '수정 권고 사항'이 아닌 '모니터링 의견'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3. 오리엔테이션 체제 보완

2013년 2월에 있었던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교육부 연구사 및 재단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2012년도 모니터링 위원들의 발표를 본 후 교과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가장 아쉬웠던 것은 바로 오리엔테이션이었다.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도 모니터링 위원들의 발표는 대부분 해당 교과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다른 교과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지 않다 보니 처음 모니터링을 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모니터링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만약 모니터링 위원의 발표가 지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공유하여 의견을 수렴하거나 그에 따른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된다면 모니터링 체계가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된다.

둘째, 전국 각지로 흩어져 있는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협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과별 협의회를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니터링 위원에게는 한 주제에 대해 다른 위원들의 견해를 듣고 그에 대한 논의를 하며 고민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모니터링 위원이 모니터링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하여 지적하고 수정하길 원하는 모니터링이 된다면 저자나 출판사에서 그 의견을 수용하길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따라서 지난 1년 동안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토의하며 1년간의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새롭게 참여하는 위원들에게는 모니터링의 목적 및 방향을 전달하고 기존의 위원들에게는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셋째, 1개의 교과서에 대해 매년 반복하여 모니터링이 실시되므로 교과서별로 지난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작년 어떤 모니터링 위원이 A교과서의 B내용을 C로 수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해당 출판사에서 이를 수용하여 수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올해에는 다른 모니터링 위원이 같은 교과서의 C내용을 다시 B로 수정하라고 의견을 제시한다면 이는 모니터링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과서별로 지금까지 시행된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여 출판사에서 수용한 것과 수용하지 않



은 것을 분류하고, 수용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오리엔테이션에 모인 위원들간의 논의를 통해 올해에도 제안을 할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출판사에서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과서 모니터링 활동이 앞으로 1년, 2년만 시행할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프로젝트라면 더욱 지금까지 있었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공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을 뒷받침하는 보다 의미있는 활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소개**

2009개정 중학교 수학교과서 집필 및 2007개정 중3 수학 교과서 검정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13년 수학교육상 장관표창을 수상하였다.

**4. 교육부의 관심과 지원 필요**

교과서 모니터링단의 역할이 단순히 교과서를 모니터링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도 교과서의 질을 높이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하기 어렵다. 교육부에서는 교과서의 중요성에 비추어 심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이라는 활동까지 병행해가며 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교과별 모니터링 위원들의 선발부터 관리 및 교육, 체제 보완 등이 가능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교과서모니터링단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연구원 1명뿐이며 이 연구원 역시 교과서모니터링단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교과서 모니터링단의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업무가 과중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교과서모니터링단의 운영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위원들의 선발부터 관리 및 교육, 체제 보완 등을 위해서는 최소한 인력을 충원하여 교과서와 관련된 성과를 내는 하나의 사업이 아닌, 학교 교육





박정희  
(전)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장

## 싱가포르에서 경험한 교과서

아시아 최고의 교육력을 갖춘 나라,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의 두 나라는 유사한 점이 많다. 작은 국가이면서 있는 자원은 오직 사람밖에 없는 나라, 교육으로 국가발전의 도모하는 나라. 두 나라는 교육 경쟁력 부문에 있어 단연 세계 상위권이다.

여러 면에서 두 나라의 교육경쟁력의 우월을 가리기 어렵지만, 교육 선호도에서 싱가포르가 한국 교육보다 훨씬 앞설 것이다. 한국이 1인당 300만원의 사교육비 부담으로 허덕이고 있다면, 싱가폴은 교육 비즈니스로 외화를 끌어 모으고 있다. 교육 경쟁력을 갖춘 187개의 싱가포르 초등학교, 169개의 싱가포르 Secondary School

과 미국, 영국, 호주 각국에서 설립 운영하는, 인가받은 33개의 수준 높은 International School이 있다. 우리나라 초·중·고 싱가포르 유학생이 2,000여명 이상이고 동남 아시아 부호들의 자녀들이 싱가포르 초·중·고에 다니는 것으로 보아도 싱가포르 교육의 선호도는 매우 높다.

### □ 싱가포르 교육의 특징

싱가폴 교육제도의 특징은 크게 두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2개국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bilingualism이다.**

Bilingualism은 초등교육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초등교육은 4년의 기초 교육 단계(Foundation Stage)와 2년의 적응 교육 단계(Orientation Stage)로 구성되고 있다.

기초단계(Foundation Stage)에서는 전체 교과 과정의 대부분을 영어와 모국어(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중 택일), 수학 등 필수과목과 음악, 미술 공예, 체육, 사회 과목을 배운다. 영어가 공용어로 수업의 대부분을 영어로 진행하지만 민족 간 융화, 효율적 의사소통을 위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을 학교교육과정에 삽입하여 각 민족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 국민 누구나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민족어를 알아 누구나 2,3개 언어는 능숙하게 한다.

**둘째, 철저한 능력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제는 기본적으로 6-4-2-3제로 편성되어 있지만,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육까지 각 단계별로 치러지는 시험 성적에 따라 진학, 취업 등 진로가 결정된다. 초등학교 5학년부부터 6학년까지 이루어지는 적응 및 지향 단계에서는 개개인의 언어학습 능력을 기준으로 EM구분(English & Mother Tongue)을 하는데 크게 3개의 과정(우수반, 일반반, 기초반)으로 구분한다. 중학교는 시험에 의해 진학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부부터 우리나라 고3처럼 입시 부담이 크다. PSLE(Primary School Leaving Exam)은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결과에 따라 중학교를 배정받게 되는데 Special Course(10%), Express Course (50%) Normal Course(40%)가 있다.

Special Course와 Express Course는 고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지만, Normal Course 학생들은 보통 졸업 후 취업을 한다. 만일 이 학생 중 학교졸업자격시험(GCE 'O' Level : 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Ordinary Level')가 합격하면 고등학교 진학이 가능하다.

고등학교는 2년 과정의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 과정인 주니어 칼리지(junior college)와 3년 과정의 심화 학교(centralised institute)이 있다. 고등학교 교과과정은 자연계, 인문계, 상업계 등 3계열이며 중학교 졸업 자격시험 결과에 따라 계열이 나뉘어진다. 3년제 대학 준비기관에는 인문계과목에 회계, 경영 등 상업과목이 첨가되어 있고, 각 계열별 학과목 수는 8~10과목 정도이다. 졸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등학교 졸업자격시험(GCE 'A' Level: 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Advanced Level')을 치러야 한다.

싱가폴에는 세계 100대 대학교 순위에 드는 국립 싱가포르대학(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과 난양공대(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가 있고, 특수 대학교 형태인 싱가포르 경영대학(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예술대학 등이 있다. 싱가포르 대학이 아니더라도 세계 우수대학의 분교, James & Cook University 등 해외 우수 대학교 분교가 많아 영미권 대학의 학위를 싱가포르에서 취득할 수 있다.

싱가폴 교육은 능력과 실용적인 교육제도로 학교마다 서열화 현상이 뚜렷하다. 명문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우리나라보다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으며, 우수 인재는 국가가 별도로 관리한다. 싱가포르 거주 인구는 약 550만명 중 300백만 이상이 외국인이다. 외국인 자녀들은 싱가포르 현지학교에 다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선진 교육 시스템으로



갖춘 International School에 다닌다. 싱가포르에서는 법적 조건만 갖추면 국제학교를 설립하기에 용이하고, 교육시장이 개방되어 외국인이 설립한 국제학교들이 많다. 도시국가 싱가폴은 싱가포르 현지 학교와 국제학교들이 모여 있는 세계 교육시장의 각축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릴 적부터 철저한 능력과 경쟁체제를 갖춘 싱가포르의 공교육 local school과 각 나라의 선진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International School은 싱가포르 거주 학생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학생까지도 끌어들여 서로 경쟁하고 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학생, 학부모들은 내 자녀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폭이 넓고, 더 좋은 학교가 있으면 언제든지 자녀를 옮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한 사람의 학생을 유치하거나 영입하기에 위해 사활을 걸고 학교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만일 학생, 학부모에게 외면당하면 학교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결국 문을 닫게 된다.

## □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의 교육과정 전략

필자는 싱가포르라는 교육 경쟁 시장 안에서 학교가 살아남는 방법을 보고 배웠다. 그동안 교육청에서 보내준 교사와 배정된 학생을 가지고 안정되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국 교육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경험과 도전이었다. 싱가포르의 한인 인구는 1990년대 2,000여 명에서 현재 25,000명으로 10배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2011년까지 학생 수는 1993년의 58명에서 100여 명을 넘지 못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교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었다.

그 이유는 살고 있는 나라만 바뀌었지 모든 학교

운영이 싱가포르 내 학교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교육과정 역시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싱가포르에 살면서도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같이, 때론 한국에 있는 초등학교보다 못한 교육 서비스에 불만이 많았다. 교과 과정 뿐만 아니라 학교 행사나 방법, 학교 조직, 운영이 글로벌 교육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교민이나 주재원 입장에서 한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재외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교육과정과 표준화된 학교 서비스만 제공된다면 자녀를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데도 학교는 그 상황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싱가포르 교민들이 원하는 학교는 한국의 정체성 교육과 국제적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이었다. 한국의 정체성 교육, 즉 한국어, 한국사와 수학, 과학 등을 가르치되 국제 수준에 맞는 외국어 구사 능력, 다양한 리더십 활동, 세계사 등 실용적 교육을 원한 것이다.

학교는 절박했다. 천덕꾸러기처럼 교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인가? 한국교육의 저력을 보여 줄 것인가? 절박한 마음을 담아 교육과정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교직원들과 논의를 시작했다. 그리하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에 대하여 단계별 추진 전략을 만들었다. 그 다음 학교 역량을 분석하고 실천 내용을 다듬었다. 우리 학교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영어교육의 부실이기 때문에 영어교육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재편성이 최대 이슈였다. 1차년도 목표는 영어시수 확보(주당 18시간)와 영어 수준별 교육 부분 실시(5시간), 2차년도의 목표는 영어 수준별 전면 실시 및 원어민 1명당 10명 학생 확보, 3차년도의 목표는 영어 수시 평가 시스템, 하루 1권 영어책 읽기 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영어 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중국어도



할 줄 아는 학생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 관리자와 사무국이 할 일과 교사들이 해야 할 역할을 분담하였다. 외국어 교육과정의 변화는 시간이 갈수록 효과가 나타나 다른 국제학교 학생 못지 않은 영어 소통 능력 향상과 영어 읽기, 쓰기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생겨났고, 중국어도 잘 하는 학교로 부상되기 시작했다. 초등학교만 있던 것을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연이어 개교하면서 학생수 400여 명이 되는 종합학교가 되었다.

## □ 교육과정의 편성과 코디네이터

이러한 교육과정의 재편성 안에는 교과서 선택과 활용이 가장 중요했다. 교육과정이 교육에서 바라는 목표라면 교과서는 목표를 달성시키는 지도책이다. 본교도 그동안 한국 정부에서 보내준 교과서를 교재로 선택하여 한국과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에서 제공하는 교과서만 가지고는 교육과정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고 싱가포르에서는 작동되지 않았다. 우리말을 전혀 못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영어를 한 마디도 못하는 학생이 전학을 오고, 한국 역사도 처음 접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역사 전문가가 되고자 꿈꾸는 학생이 있고, 많은 것이 한국과는 달라 우리 학교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였다.

싱가폴의 학교에는 교육과정을 관리하고 조직화하는 교육과정 코디네이터가 있다. 교육 실무 경력과 교육과정 이해도가 높은 분을 교육과정 코디네이터 또는 교육과정 Header Teacher로 임명하거나 영입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 교장, 교감은 학교 행정적 책임자라면, 교육

과정 코디네이터는 학교 교육과정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본교에서도 국제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했기 때문에 영어 교과에 한하여 영어코디네이터를 두어 교육과정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영어 코디네이터는 원어민 교사 채용, 수업 장황 뿐만 아니라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각 학년별 영어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이에 맞는 교재를 선택하고 교직원 연수까지 책임진다. 학생, 학부모로부터 교사 수업에 대한 평가를 듣고 다시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영어 능력 향상에 큰 변화를 주었다.

학교에서 교육과정 코디네이터는 중핵적 위치에 있다. 이 코디네이터는 수업을 하지는 않지만, 누구보다도 수업에 대한 이해가 깊어 학교 교육과정을 이끌고 가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교무부장이나 연구부장의 직무가 교육과정 코디네이터와 유사하나 싱가포르의 작동 방법은 전혀 다르다.

## □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활용

싱가폴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프레임을 주면 각 학교는 학교 실정에 맞게 그 내용을 확대 심화시켜 적용하고 있다. 특히, 요즘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의 재량권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고, 교육부 안에도 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를 배치하였다. 전문가들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한 결과를 시범학교에 적용한 뒤 좋은 사례들을 따르도록 촉구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의 재량권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는 한편, 싱가포르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에 맞는 교과서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직접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법은 우리와 비슷하여 수업에서 중핵적인 교재로 활용되나, 처음부터 끝까지 교과서를 통독하고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라 교과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취하고 동떨어진 분야에 대해서는 그 단원을 빼고 다른 단원으로 교체하기도 한다. 특히, 요즈음 들어 싱가포르에서는 교사의 수업 방법이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그룹으로 토론하여 답을 찾는 수업, 아이패드 같은 컴퓨터 기자재를 사용한 수업의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과서를 신봉하는 한국 교육과는 차이점이 많다. 한국 교육에서 교과서를 철저히 통독하는 것은 평가에 있어서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나온 지식을 평가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다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감에 시달리는 것이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다른데도 평가는 똑같이 해야 하는 현실에서 교과서를 벗어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싱가포르학교나 다른 국제학교, 또는 본교의 외국인 교사들의 평가 방식을 보면 객관적 사실을 알아보는 항목보다는 원리와 과정, 생각, 문제해결력... 등을 묻는 평가이기 때문에 교과서보다는 교육과정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를 그대로 가르친다는 것에 익숙해지면 교사는 더 이상 교재 연구에 몰입하는 작동 기제를 멈출 수 있다. 더 나아가 교사의 능력을 잠재우고 교사 개인의 발전에도 저해가 된다. 본교에서는 수학과 과학 교과서를 한국 정부에서 보내준 교과서로 가르쳤으나 그 내용이 본교 학생들에게 매우 어렵고 상황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단원이나 소재가 있어 해당 교사가 부교재를 만들어 학습에 투입하였다. 교사는 부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힘이 들었지만, 스스로 만든 교재이므로 학습 효과가 높고, 자긍심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후 그 영역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영어 교과과목의 경우는 한국

의 영어 교과서는 수준이 너무 낮아 캠브리지 대학에서 발행한 교과서를 선택하였으나, 그것으로 영어 읽기 분야를 보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교사들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학생들에게 유용한 영어 읽기 사이트를 찾아, 학교 수업 이외에 가정에서 매일 1권의 영어책 읽기 활동을 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연중 4회 실시하는 speech contest, 교사 학생 일대일 인터뷰, writing, 수업 참여도, 인터넷 사이트(책읽기 누적 횟수) 등이 자연스럽게 학생의 영어 평가 장면이 되고 있다.

교육은 가르치는 티칭(teaching)의 시대에서 이끌어주는 코칭(coaching)로 넘어가고 있다. 교사가 교과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거나 교사 학생 간 문답형식의 수업은 쇠퇴되어 가고 있다. 한 반에 있는 학생들의 지식의 합이 교과서 내용보다 훨씬 높고 넓다. 어떻게 보면 교과서의 한정된 지식은 학생에게는 이미 죽은 지식일 가능성이 높다. 싱가포르 국제 교육 시장에서 절실하게 느낀 것은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교재)일 뿐이라는 생각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 필자소개

2005년부터 교육부 초중등교육과 연구사로 출발하여 2008년부터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팀장을 맡아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 및 학생안전망 구축 사업인 "wee project"를 기획 추진하였다. 2011년부터는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교장으로 파견되어 한국형국제학교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여 재외한국학교의 교육과정 변화에 기여하였다. 현재는 인천은봉초등학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 교과서와 편수관



**김 용 만**

코리아국제중고등학교(일본 오사카) 교장

한국이 지닌 세계적 위상을 보면, 무역, GDP 지표 등 경제규모가 대개 10위 전후에 있고, 민주화 지수도 기존 선진국 수준과 같은 레벨에 있어 이제 명실공히 선진국이라고 말해도 될 수준에 이르렀다. 이 정도의 국력을 이룬 것은 우리 국민이 지난 반세기 동안 '조국근대화'의 기치 아래 역량을 모아 국가발전에 힘을 기울이고 모두가 각 부문에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국가의 모든 부문에서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총체적인 국가발전을 이룩하였지만, 그 각 부문의 발전 속에서 으뜸되는 공은 교육 부문이 차지해야 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대해 필자도 공감한다. 교육 부문 속에서도 국가의 역동적인 교육투자와 시설개선, 교사들의 노력 등 여러 부문이 조국근대화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보지만, 필자는 바람직한 국민을 기르기 위한 본질적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1순위로 올려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2세들에게 인류와 민족의 문화유산을 전수하고, 새 시대에 필요한 지식과 가치관, 그리고 이를 탐구하는 방법과 기능을 가르치려는 것으로서, 학생들에게 가장 근접해 있는 교육의 본질 구현 자료로서, 필자는 이 교육과정, 교과서와 이것을 업무로 다루던 편수관들이 우리의 조국 근대화를 이룬 역군을 길러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광복 후 우리 식 교육을 막 시작하려는 때에는 우리 문자로 가르칠 수 있는 책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 외솔 최현배(초대 편수과장, 국장) 선생을 비롯한 초기 편수팀(편수사, 편수관보, 편수관)이 가르칠 교수요목을 정하고 교과서를 편찬하는 데 쏟은 노력은 우리 교육의 기틀을 짜기 위한 노력 그 자체였다. 그 후 지금까지 학생들이 배우고 공부해 온 교과서는 그때 그때의 시대적 상황에 맞는 내용으로 짜여짐으로써 이를 가지고 공부한 학생들이 세계적 교육사조를 따르면서도 우리의 상황에 맞는 내용을 공부할 수 있어, 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전의 기틀을 쌓고 있는, 조국근대화의 역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만드는 배후에 바로 실력있고 사명감에 불타는 편수관들이 있었던 것이다.

외솔을 비롯한 초창기의 편수관들은 국어, 공민, 국사, 셈본, 노래책, 농사짓기, 글씨본 등 한글로 된 교과서 편찬, 공급에 힘을 기울였으나, 차츰 시대적 사조에 따라 경험중심 교육과정에 터한 각 교과과 교과서를 편찬하게 되고, 새로운 교과인 사회생활과의 도입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교과서도 세계와 흐름을 같이 하면서 나아가고 있었다. 이 때, 국어과를 맡았던 박창해 편수관이 철수, 영이, 바둑이를 등장시킨 경험중심 단원 구성을 한국어 교과서를, 이상선, 최병철 편수관이 일제 시대의 수신, 지리, 역사를 대신하는 사회생활과 교과서를 편찬한 것은 과히 교육 내용의 혁명적 전환이었고, 이들 교과서로 공부한 이들이 세계 속의 한국, 조국근대화의 토대가 될 지식을 알게 모르게 익힐 수 있었던 것이다.

6.25 전쟁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외솔 선생과 6명의 편수관들은 피난 수도 부산의 작은 절(묘심사)의 납골당으로 쓰던 방에서 전시 교재(전시 생활, 전시독본 등)와 4X6판으로 줄인 교과서(용지가 부족하여 판형을 줄일 수 밖에 없었

음)를 퍼내 전시에도 우리 학생들이 교과서 없이 공부하는 일이 없도록 힘을 썼다. 부산 피난 시절에 용지도 없었지만, 인쇄시설이 모자라 운크라의 용지 원조가 있어도 교과서를 찍지 못할 상황이 되어, 원조 당국에서 우리 교과서를 일본에서 인쇄해 오겠다고 하자, 외솔 선생은 "다른 것은 몰라도 교과서는 절대로 일본에서 찍을 수 없다. 민족의 자존심이 허락할 수 없다"고 버티어 결국 국내 인쇄업자들이 아직 수복이 안 된 서울로 몰래 들어가 인쇄설비를 뜯어오는 이른바 '도강작전'을 감행한 것도 외솔과 편수관들의 애국적 충정이 배경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환도 후부터 우리 선배 편수관들은 수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학생들의 수요에 맞추어 교과서를 개발·검정하여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였을 뿐 아니라, 인쇄, 출판 산업을 키우는 데 공헌하였다. 당시의 인쇄, 출판업계에서 교과서는 최고의 물량을 대주는 지위를 누렸다. 당시 국어과 편수관이면서 편수과장을 겸하고 있던 최태호 편수관은 '검인정 규정'을 법제화하고 교과서 검정의 룰을 정하여 좋은 교과서가 공정한 룰에 의하여 검정되어지도록 하였다.

이렇게 '50년대의 편수관들이 성공적으로 교과서를 편찬, 공급한 것은 6년 의무교육의 성공적인 출발이 이루어지게 하였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당시의 편수관들은 국어과의 최태호, 홍용선, 이희복, 수학과와 조기환, 이수남, 사회과의 이상선, 최병철, 강우철, 이정인, 김종빈, 최홍준, 과학과의 박만규, 오연석, 최영복, 영어과의 홍순철, 가정과의 현병진, 주월영, 음악과의 금수현, 미술과의 안병용 등이었는데, 이분들은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지닌 명망 있는 국가·사회적 인사들이었다.

DATE 편수관은 행정직이면서도 교과 지식의 기반으로 하는 전문성을 살려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편수관 한분 한분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보다 연구하고 협의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줄곧 이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5·16과 같은 큰 변혁기에도 홍용선, 조기환, 홍순철과 같은 고참 편수관이 국장 등으로 승진해 나가거나, 많은 장기 근속자들이 사표를 내거나 대기 발령중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학생들이 배우고 공부해야 할 교과서가 내가 맡은 교과, 남이 맡은 교과를 따지지 않고 모든 교과서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했다. 교과서의 적기 공급은 어느 한 편수관의 일이 아니라 편수관 모두의 과제였기 때문이다.

'60, '70년대의 편수관들은 역동적인 국가발전, 특히 경제 발전에 보조를 맞춘 인력자원 개발을 위한 지식 기술 교육의 혁신과 민족 주체성 교육의 요구에 발맞추어 초·중·고등학교와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전문학교와 특수학교, 체육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제정하면서, 이와 관련된 국정교과서 편찬, 중·고 교과서 검정, 국·검정 교과서 수정 지시 등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밤낮없이 시간외 근무를 해야 했다. 거기에 기술교육 쇄신과 발맞춘 기술·기능 인력(이 인력을 박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의 기수'라고 했다) 양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 교과서를 편찬했는데 김종우, 황벽 편수관의 업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자 결국 정부 당국에서 공업계 편수인력 정원을 5명이나 늘려주기도 했다. 이러한 고유 업무 외에도 수출 증대를 위한 국가적 과제 달성을 위한 '수출산업'이라는 교사용 지도서 편찬, 재외국민 교육을 위한 재외국민

용 '한국의 생활' 교재 편찬 등 국가적 과제 수행과 관련된 교재를 편찬하기도 했고, 전국 교육대학의 공통교재 발행까지도 편수관이 나서서 지휘하기도 했다.

제 2차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69년)에서 신설된 도덕과와 한문과는 여러 면에서 의미있는 것이었다. 교육과정의 한 영역을 차지하던 도덕 교육 활동이 교과화된 것은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으로서, 우리 나라의 도덕 교육의 중심이 교과활동이 되고 교과 외 활동이 이를 행동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

한문과가 교과화된 것은, 국어교육의 영역에서 한자를 일단 배제시킴으로써 한글전용의 길을 더욱 탄탄하게 하면서 한문 교육이 보다 전문화되는 길을 텅 것이었다. 당시 한문과를 담당하던 국어과 편수관 정진권은 그가 맡은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한자가 빠진 국어교육의 신지평을 여는 길을 텅고, 중·고등학교별 한문교육용 기초한자를 각각 900자씩 정하여 한문교육의 틀을 잡도록 하기도 했다. 그는 나중에 초등학교 통합교과서 '바른생활'에서 도덕, 사회, 국어과적 소재를 가지고 통합된 교재를 만드는 주역이 되기도 했다. 그 교재의 첫 단원에 등장한 "하늘, 파란 하늘, 파란 하늘에 태극기"로 시작되는 교과서의 첫 장면은 국어를 처음 대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나라와 우리글, 우리나라의 계절과 자연 등을 평생 기억할 수 있는 상징으로 남게 한 매우 뜻있는 것이었다.

지식의 구조화와 기본개념, 학문의 원리가 강조된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 짜여진 제 3차 교육과정과 이와 관련된 새 교과서들은 '70년대 들어 '세계 속의 한국'으로 뻗어가는 국력과 함께 우리 교육의 수준이 세계와 함께 나아가는 지평을 열었다. 각 교과에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

충실한 교과서를 만듦으로서 세계 속의 한국 교육의 신 지평을 열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현장교육의 실천과 연구는 세계가 한국 교육에 관심을 갖게 했다. 이 제 3차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편수관들을 보면, 은용기 편수관이 그 열개가 되는 총론 부분을 주관하고, 초등은 은용기, 중등은 장운식, 고등은 임병기, 실업계는 황벽, 전문학교는 허강, 특수학교는 박순만, 교육대학은 안위중, 체육중·고등학교는 한형식 편수관이 주관하였는데, 모두에게 관련되는 각급학교 교육과정이지만, 각각의 부문을 한 분이 맡아 주관함으로써 공통적 업무를 능률적, 협력적으로 처리했다.

1977년에 일어난 검인정 교과서 탈세 사건의 여파로 대부분의 편수관이 사직하는 사태가 생겼지만, 편수관 입장에서 보면 이 사태는 매우 억울했던 사건이었다. 발단은 단일본 교과서 발간으로 새 교육과정에 의한 검정이 연기되고 기존 검정 교과서 지분을 가진 업자들이 인세를 비롯한 기존의 지분을 가짐으로써, 신규로 교과서 검정에 참여를 노리던 업자들을 배제시킨 것이 발단이 된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상황으로는 단일본은 그 나름대로의 당위성이 있었고 편수관들은 단일본 교과서를 편찬하는 주역으로서 그 편찬 경비를 단일본 교과서의 주체인 한국중등교과서(주)의 경비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후의 소송에서 편수관의 결백이 밝혀졌지만, 편수국과 편수관은 큰 상처를 입었다.

그 후 공채 등으로 새 진용으로 짜여진 후배 편수관들은 새로운 연구개발형 교육과정 제도와 1종도서(현 국정도서), 2종도서(현 검정도서), 인정도서로 대변되는 새 교과서 제도 아래서 그 후유증을 비교적 신속하게 극복하면서 교육과정, 교과서 업무를 추진하였다.

'70년대 말부터 대부분의 교과서가 초·중·고 공히 새 교과서 제도에 의한 1종도서 중심으로 개발, 편찬되자, 새 진용으로 짜여진 편수관들은 위탁개발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소, 대학의 1종도서 연구개발팀을 이끌거나 공동 작업을 하면서 새롭고 질 높은 교과서를 편찬했다.

이 시기에 교과서의 전면 컬러화가 시행되면서 교과서의 품격을 높이려는 편수관들의 노력은 판형 확대로 이어졌다. 국판 교과서는 가르치고 배우는 양을 담거나 학습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했기에 판형 확대를 지향하게 되었다. 당시 과학과(생물)를 맡고 있던 정완호 편수관은 크라운판 과학 교과서를 주장하면서 교과서 판형 확대의 길을 텃다. 과학 교과서의 크라운판화는 나중에 4X6배판 교과서로의 길을 열어, 초등학교의 많은 교과서들의 판형이 4X6배판으로 확대되었다.

제 5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는 지금까지 '1교과 1책'이라는 공식을 깨고, '1교과 다책'으로 전환되어 도덕은 '도덕'과 '생활의 길잡이', 국어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수학은 '수학'과 '수학 익힘책', 사회과는 '사회'와 '사회과 탐구', 과학과는 '과학'과 '실험관찰', 실과는 '실과'와 '실습의 길잡이' 등으로 편찬되었다, 이것은 교과서가 보다 다양하고 능률적인 학습자료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주 교과서를 보완할 보조자료를 교과서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종래의 교본적 교과서관을 크게 변화시킨, 교과서 발전사에서 보면 과히 혁명적인 것이었다. 이와 같은 교과서의 다책화는 당시 교육과정담당관 김철현 장학관이 제 5차 교육과정 개정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면서 약 30억원의 예산을 신청하여 재가를 받음으로써 성사된 것이었다.

DATE

이 시기에 필자가 담당했던 사회과 교과서의 지역판(지역 교과서)이 나가 교사들의 교재 재구성 부담을 줄이면서 각 시·도의 교재 개발 역할을 기르는 길을 텃다. 이것은 교과서 사상 처음의 국정교과서(1종도서) 지역판이 되었다.

이들 교과서가 나가던 '80년대와 '90년대에는 학교급별·교과별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담당하던 편수관(연구관, 연구사)들의 숫자가 50명 정도로 전 교육과정 시대에 걸쳐서 가장 많았다, 하지만 당시의 편수관들은 이웃 일본의 교과조사관, 교과서조사관 숫자에 비하여 턱없이 적다고 불평하곤 했다.

'90년대 중반, 필자를 포함한 장기근속 편수관의 부외 진출을 신호로 직제에서 편수국과 편수관 자리가 차츰 줄어들더니 2000년을 전후하여 편수국은 거의 와해되는 수준으로 기구와 인원이 줄었다. 교육부의 행정 중에서 중심에 있어야 할 교육내용 행정이 고사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 결과 중앙정부 수준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주관하는 부서는 이를 수행할 적정한 수의 편수 인력을 확보할 수 없어, 직접 주관하고 조정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연구 기관에 예산 지원 정도를 해주는 부서로 전락했다. 거기에 영어, 과학 등의 교과 관련 업무가 타 실국에 분산되어 있어, 전 교과 업무가 서로의 연계 속에서 집합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편수업무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근래 국사 교과서 문제가 대두되자 교육부의 편수기능을 되살리려는 말이 나오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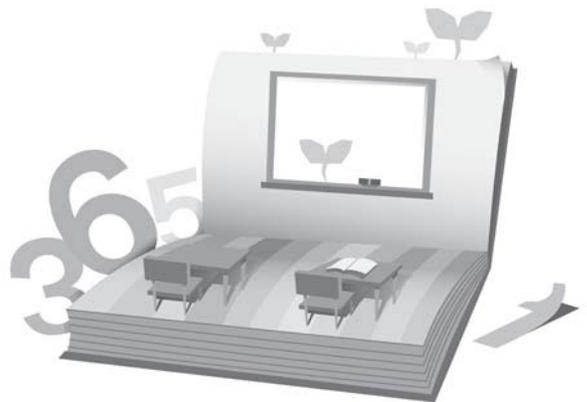
교육부의 행정을 태양계에 비유하여 태양계의 중심에 편수 행정의 있고, 각 지원·관리행정이 혹성을 이루어야 한다고 제안했던 정태수 전임 차관의 제안처럼 교육내용 행정은 교육행정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각 지원·관리 행정은 중심 행정을 지원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그 위에 실력과 철학이 있는 유능한 편수관이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행정을 주관하면서, 교과서 연구개발을 통한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구나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통일된 나라의 교육 설계도인 새 교육과정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능한 편수관으로 조직된 편수 조직은 하루 빨리 부활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 필자소개

진주사범, 건국대 정경대, 서울대 환경대학원 졸, 東京都立大學에서 3년간 연구하였으며, 12년간 진주 봉래초, 대이중고교, 서울여고, 서울공고에서 교사생활을 하고, 21년간 문교부 편수국 연구사, 연구관, 교육과정담당관, 사회과학편수관 등을 역임. 국립교육평가원 학력평가부장, 성수여중, 도쿄한국학교, 한양대사대부속고 교장 역임. 현재 일본 오사카 코리아국제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있다.





## 원심점과 구심점



**홍 후 조**  
고려대 교수,  
와세다대 방문교수



두어 달 일본에 살면서 상대방을 붙잡고 분통이 터지는 심정을 알리고 싶고 가슴을 치는 때가 있으며, 비교하여 부러운 때가 있다. 다 무병장수에 안 좋은 반응이다. 미워하느라 본받지 못하는 것도 참 많다. 서울 강남에 그렇게 많은 일제차에 비해 도쿄 시내에 세계 각국 차들이 굴러다녀도 한국 차는 한 대도 없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한국대사관에서 관용차로 몇 대 쓴다고 한다. 연일 친일, 친일 욕하면서 우리는 배알이 있는가?

점심을 먹고 작심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다. 그 면상을 보고 싶었다. 와세다대학에서 와세다로를 쪽 따라가면 나온다. 이것은 일본 왕궁 옆 얇은 언덕에 자리잡고 있다. 입구에 선 엔(円)자 모양의 도리는 엄청나게 웅장하게 만들었다. 본전까지는 사찰의 일주문과 같은 큰 도리가 2개가 서 있다. 여느 신사와 다름없지만 여기는 일반인들이 본전가가

이 못 가게 하고 멀찍이 참배하게 한다. 경찰들이 여기저기서 눈을 부릅뜨고 있다. 옆에 일부러 일반인 참배처를 따로 만들어 두었다. 개인, 가족, 동료들이 삼삼오오 끊임없이 들락거리고, 검은 양복을 입는 단체참배객도 적지 않다. 누구나 그 앞에서 동전을 던지고 박수를 하고 합장하며 짧은 묵념을 한다. 야스쿠니신사에는 1904년 러일전쟁부터 2차대전 말기까지 일제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앞장선 이들이 그와 무관하게 안장된 이들과 합사되어 있다고 한다. 국립묘지 입구에서 참배를 하면 그 안에 안장된 모든 이에게 참배하는 것과 같게 만들어 둔 것이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대대로 가업을 이어서 정치한다. 2차 대전에 패전한 독일처럼 정치지배층이 물갈이되지 못했다. 그들 정치지배층의 혈맥이 끊긴 적이 없다. 그래서 일본에게 식민지배나 침략에 사

과하라고 해도 안하고 못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자기 조상의 '대단한 업적'에 대해 듣고 자란 아들과 손자가 되돌아서서 제 조상 무덤에 침을 뱉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간간이 마른 목을 추스르며 침을 뱉어가면서, 혼잣말로 일제를 저주 분개하면서 주변과 뒤뜰을 둘러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2차 대전 전후로 일본이 얼마나 '천신만고 끝에, 각고의 노력'으로 한반도와 중국대륙과 동남아에 '진출'을 하였는가를 각종 작전도와 사진, 그림, 유물로 전시해두었다. 야스쿠니는 침략전쟁기념관이다. 히로시마 원폭기념관이 왜 일본이 원폭을 맞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고, 그저 원폭 피해와 내용 없는 평화를 내세우는 것과 다름없다.

옆의 기념관에는 일본의 군용기와 이를 보고 그린 소학교 아이들의 입선작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다. 양증맞은 모자를 쓴 천진난만한 유치원생을 보

면서, 정말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머리를 흔들면서, 저들도 자라서 '왜놈'이 될까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 섬뜩해진다. 세계화시대에 나는 유학도 하고 해외 체류도 하면서, 왜 아직도 사해동포주의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에 머물고 있을까? 기념품 가게는 일본(제국주의)적인 것을 판다. 다른 한 전시실에는 일본도를 전시한다. 그리고 동영상에서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장인들의 땀 흘리는 모습을 비춰준다. 30여명의 노인과 중년들이 그 기록물을 보고 있다. 100여 년 전 우리 민족은 저 칼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베이고, 찢리고, 몸을 다쳤으며, 위협 앞에 떨었을 생각에 미치면 지금도 치가 떨리고 오싹하다. 그렇지만 단칼에 싹둑 베는 일본도, 섬뜩할 정도로 날카로운 일본도, 여기를 둘러 가는 일본인을 비롯한 많은 이들은 일본적인 것을 흠뻑 느끼도록 되어 있다. 야스쿠니를 비롯하여 일본 전국 각처에 있는 신사는 일본정신(和魂)의 구심체이다.



야스쿠니 신사 옆 기념관에 전시된 2차 대전 당시 군용기



야스쿠니 신사 옆 기념관에 전시된 2차 대전 당시 동남아 침략로 건설을 미화한 사진들

우리의 구심점은 무엇이며 어디인가? 우리는 무엇으로 국민들을 단결시키는가? 내가 보기에, 오늘날 우리는 정치적으로 과잉독재 후에 과잉민주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성숙한 민주주의, 민주시민의 자발적 책임, 의무는 찾아보기 어렵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며 온갖 폐법이 난무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과잉성장 후에 과잉복지로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허덕이고 있다. 모럴 해저드가 계속되어도 내가 있는 동안만 괜찮으면 된다. 문화적으로 과잉확일화에서 과잉다원화로 사고와 언어, 행동과 생활의 기준이 지나치게 상대적이어서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다. 학교의 교육도 이런 분위기에서 멀지 않다.

우리에게 분열할 원심점은 많은데 뭉칠 구심점은 무엇인가? 오늘 형세는 임란전, 병자호란 전, 19세기 말, 해방 후 찬탁반탁 시기와 다를 바가 없다. 원

심점은 많아서 분열하고 흩어지는데, 구심점은 거의 찾을 수 없어 뭉치기 어렵다. 온갖 갈등이 많을수록 먹고 살기 좋은 직업업체인 정치인이나 언론인, 전문데모꾼들은 이를 더 부추인다. 소박한 애향심이 더 숭고한 애국심을 삼켜버린 이들도 적지 않다. 참으로 안타깝고 때로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애국자연하는 이들은 모두 국내 문제로 갈등을 부추기는 자들이다. 그들은 국내정세엔 천 개의 눈과 입을 가졌으나, 국제정세, 외교안보전략 등에는 청맹과니가 되어 있다.

꿈에도 소원이라는 남북통일이 우리의 구심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한 때는 그러했던 것 같다. 1994년 통일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91.6%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대답했고, 8.4%가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리고 통일이 부담되어도 빠를수록 좋다는 대답이 62.3%였다. 그러나 2013년 KBS 여론조사를 보면 통일이 반드시 되어

야 한다는 응답이 24%, 그리고 큰 부담이 없다면 통일이 좋다가 45%,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31%나 나왔다.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반대가 급증했다. 현 대통령이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대박' 날 일이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을 여론의 조롱거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가 적지 않다. 주변 강대국들은 우리의 이런 속내, 희망, 의지, 능력 정도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결국 이이제이(以夷制夷)다. 마르고 당도록 분단을 이용해먹을 수 있다고 속으로 꾀재를 부를 것이다. 한국이나 북한이나 참 먹기 좋은 어부지리(漁父之利)감이다.

어지러운 머리를 흔들며 옆에 있는 일본 왕궁이 있는 공원을 한 바퀴 돌았다. 방어벽인 호(濠)를 엄청 크게 파 놓았다. 일왕궁은 규모도 엄청나지만 감히 일반인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바깥쪽을 널찍하고 흰히 볼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했다. 아주 멀리 떨어뜨려 전체적 권위를 더하였다. 둘레가 4-5킬로 정도 되는 듯한데 그 보도를 따라 달리는 조깅족으로 넘쳐난다. 대형리무진 버스 4대와 호위차량을 동원하여 확성기를 단 천황송배족들이 도쿄 시내 곳곳을 빙글빙글 돌면서 애국적 구호를 외쳐댄다. 우리 옛 조상들은 중국도 가 보았고 왜국도 와 보았을 것이다. 거기엔 왕궁을 수호하기 위해 엄청난 호를 팠음을 알았을 것이다. 심지어 일본의 쇼군들도 자기 사는 거처를 그렇게 방어했다. 우리는 역사상 960번의 외침을 당했다고 한다. 잦은 전란을 겪으면서도 왜 그런 호를 파지 못했을까?

중국의 자금성을 가 본 사람들은 느낄 것이다.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이 서울의 왕궁을 보면 우리를 깔 볼 것 같다. 나는 늘 돈이 좀 들어도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을 이어야 한다고 본다. 경희궁과 덕수궁까지 이르면 더 좋겠다. 잘 모르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이어서 쓰였을 것으로 본다. 규모로라도 좀 번듯했으면 좋겠다. 다리가 아파서 한국의 궁궐은 다 돌

러보기 어렵다는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뭐야 이게 다야!?” 대만의 국립박물관, 파리의 미술관, 대영박물관 등등을 말할 때 며칠을 볼 분량이라고 하듯이, 우리 궁궐도 이어두면 좋겠다. 최소한 저들이 깔보고 가지는 못하게!

1932년 1월 8일, 이봉창 선생은 도쿄 교외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인 히로히토를 겨냥하여 사쿠라다몬(櫻田門) 부근에서 수류탄 1개를 던졌다. 말이 다치고 마차가 손상됐으나 히로히토는 다치지 않아 거사는 실패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얼마 못 가 사형당했다. 만약 당시 지원이 제대로 되어 성능 좋은 폭탄이 만들어져서 거사를 성공시켰다면 우리나라와 아시아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 이후 지원에 힘입어 윤봉길 의사의 폭탄 성능은 좋아졌고 그래서 성공했다. 내일이 바로 그



이봉창 의사를 추념하여 사쿠라다몬 앞에 헌화하는 필자



도쿄시내 아스쿠니 신사 전경

날이다. 정말 안타깝다! 이봉창 선생이여, 오늘 이 나라의 내분의 참담함을 보시고 우리 얼이 약해짐을 굽어 살피소서!

오늘 내 나라와 내 일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 분신자살하는 이가 적지 않다. 심지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 분신한 이도 있다고 한다.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고 승복을 낚는 사람도 적지 않다. 정말 억울했을 미국의 엘 고어를 생각한다. 그는 자기 나라와 국민의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승복' 했다. 자유민주국가인 내 나라를 허물지 못해 왜들 안달일까? 대외적으로 이어도를 중국의 힘에서 지켜내기 어렵고, 독도를 일본의 야욕에서 지켜내기 어려운 가운데, 붕괴될 수밖에 없는 북한을 중국의 손아귀(조차지, 신탁통치)에서 건져내려고 통일을 준비하는 이들은 너무 적다. 독도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대해, 위안부에 대해 사과도 보상도 않는 일본에 대

해 비분강개한다면 누군가 여기서 분신을 해야 했으리라. (물론 인명을 그렇게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이어도를 지켜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나는 지금도 마라도를 국유화해서 항공모함도 없는 나라에서 공군 기지라도 만들어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합하여 우리의 영해, 영토, 영공인 이어도를 지킬 수 있다고 본다.

나도 실현하지 못하는 생각이 결국 남 탓을 하게 된다. 인터넷을 보면 10자를 적는 이들이 모두 애국자들이다. 내가 일제 강점기에 살았다면 나는 독립투사가 되었을까? 나는 '불령선인'이 되었을까? 당시 살았던 사람들을 분류해보면, 적극반일, 소극반일, 결친일 속반일, 필부필부, 결반일 속친일, 소극친일, 적극친일 중 대다수는 양극단과 상관없다. 그럼에도 당대에 살지 않았다고 하여 자기만 애국자

연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세 차례 걸쳐 반민족친일본자들을 발표했는데 1,005명이다. 역으로 보훈처는 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를 발굴 포상해왔는데 오늘까지 13,403명이다. 다행히 애국자가 13배나 많다. 친일부일한 사람들이 처벌받지도 손가락질 당하지도 않고 숨어버린 자가 많으니 이 또한 숫자놀음일 뿐이다. 당대를 철 든 성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2천만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래도 애국지사는 0.1%도 안 된다. 이럼에도 나는 그 축에 들었을까? 그보다, 그보다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가혹한 치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비참한 삶과 죽음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했을 사형, 학살, 죽음, 투옥, 고문, 감금, 폭행, 차별, 멸시, 천대, 유랑, 강제 노역, 겁탈, 약탈, 위협, 누명, 옥살, 비하 등등이 우리 조상들의 가슴 속 깊이 맺힌 한이다. '왜놈, 떼놈'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한 맺힌 민족 아닌가? 우리는 나라 잃은 설움을 너무 일찍 잊었다. 그러니 960번의 외침을 당했지 않았는가? 역사를 잊은 민족, 내분을 거듭하는 민족, 꿈을 잃은 민족은 망한다!

왕궁을 돌아 국회도서관을 따라 가다보면 인근에 의회(중의원, 참의원), 각 행정부처와 각국 대사관들이 나란히 있다. 왕궁을 둘러싸고 국가의 중요 통치기관과 외국대사관들을 함께 배치한 것이다. 천황송배사상이 이런 물리적 구심점으로 나타난 것으로 본다. 우리는 어떤가? 행정부처는 세종시에, 그 행정 수반인 대통령은 서울 광화문에 있다. 국회는 여의도에서 장차관과 고위직을 불러올린다. 과장 이하 해당 부서 직원들은 줄줄이 따라와 머리를 조아린다. 이 무슨 짓인가? 나라의 중요한 일을 화상회의로 할 수도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대통령도 국회도 세종시로 가야 한다. 한심한 일에 가슴이 미여온다.

걸어서 걸어서 이미 어둑해진 메이지도리(明治通路)에 있는 S라인 건물의 대한민국 문화센터가 반갑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 1층을 둘러보았다. 참 좋다. 도쿄 한 복판에 이만한 건물에 이 정도 시설과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나라가 세계에 몇 나라나 될까? 참 뿌듯하다! 내 나라 대한민국! 조금 더 걸어서 와세다대학 쪽으로 오면 오오쿠보거리다. 지난 날 슬럼가였던 곳에 한국인들이 정착하면서 번듯한 변화가로 변신한 곳이다. 참 장하다! 대한민국인들!

다시 역사 앞에 겸허히 반성해보자. 나라가 위급할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할 수 있을까? 내일 사쿠라다몬(櫻田門) 앞에 누군가 이봉창 의사를 묵념을 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누군가 거기서 머리를 숙이고 있을까? 나라도 가야하지 않을까? 당시 도쿄 거리 어디에나 흐드러지게 피어났을 그 붉은 동백꽃 한 송이를 바쳐야 하지 않을까? 오늘 그 분들이 만든 나라를 위해 속 깊은 피눈물을 흘려드려야 하지 않을까! 

#### 필자소개

국가교육과정기준 개발, 사회협동성, 창의성, 진로와 같은 주제와 특정 대상 집단을 위한 교육과정 기준 개발, 교과서 제도 연구, 교육 현실에 기초한 교육이론 개발, 교육정책 개발에 관심이 많다.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

# (사)한국검인정교과서 이종원 이사장



▶ 한국검인정교과서가 우리나라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검인정교과서의 설립목적과 비전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법인은 1982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고의 교과서 전문기관입니다. 지금까지 교과서를 안정적으로 발행·공급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기여 하였으며, 교과서 발행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공급과정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정 교과서를 공동 생산·공급하여 왔으나 교과서 발행체제가 개별발행 체제로 바뀌면서 교과서공급 전문물류회사로 전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법인은 선진화된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교과서공급 전문물류회



사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질 좋은 교과서를 학교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학생·교사·학부모에 대한 서비스를 높혀 나가겠습니다.

- ▶ 법인은 정관(제2조)에도 명시하였듯이 “교과서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설립목적과 경영적 철학이 뚜렷합니다. 실제 교과서가 어떻게 일선학교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회원사들은 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담아내는 양질의 교과서를 편찬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교과서를 적기에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우선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각 학교로부터 주문을 받아 10월경부터 생산을 시작합니다. 공동 생산한 교과서와 개별 발행사가 생산한 교과서를 납품받아 익년도 1월말까지 일선 학교에 공급하게 됩니다. 학생의 전·출입에 따른 추가 소요분이 발생하면 수시로 추가 주문을 받아 생산·공급합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는 약 1만2천여 개입니다. 교과서를 적기에 발행·공급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차질 없이 학교 현장에 적기에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려면 우선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과서 제작과 생산 공급에 많은 비용이 선 투입되고, 교과서 대금은 6~7개월 이후 수금되어 발행사들이 막대한 금융비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이 교과서 대금 납부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앞으로 법인이 교과서 공급 전문 물류회사로의 역할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면 그간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국·검정도서가 대폭 인정도서로 전환되었습니다. 공동 발행은 줄어들다가 2015년에 종료되는 대신 개별발행은 그만큼 확대됩니다. 현재 개별 발행 검·인정도서는 발행사와 매년 계약으로 우리 법인이 공동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법인은 2007년 파주에 물류창고(9,657㎡)를 준공하였으며, 2012년에는 제2 물류창고(3,915.62㎡)를 추가 확보하여 명실공히 교과서공급 전문물류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별발행의 전면 시행은 발행사 간 경쟁 격화, 관리감독의 애로 등으로 교과



서의 적기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공급일원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국·검·인정도서 공급업무의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안정적 적기 공급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 법인이 개별발행사와 매년 계약하는 자율 공동공급 방법도 국가수준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지난 정부의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에 의해 디지털 교과서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의 역할과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정부의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은 새 정부에서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효과성 검증과 현장 준비 등의 이유로 전면적용에서 시범 적용으로, 그리고 시범 적용 결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향후 추진계획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서책·음반·영상·전자저작물 등 모든 유형의 교과용도서에 대하여 수요자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불편 없이 제공받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디지털교과서가 개발 완료되어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로 이원화된다면 주문,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할 기능도 분산되고 교육부의 관리·감독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 교과서 발행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우리 법인이 전시, 주문, 공급, 대금 수금, 개별 판매 등 모든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행하도록 적극 추진 할 계획입니다.

▶ 끝으로, 이사장님께서 꿈꾸는 법인의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법인은 설립 목적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양질의 교과서를 적기에 공급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개별발행 체제에 맞추어 교과서공급 전문물류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발행사가 양질의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안도 모색하겠으며, 정부의 교과서 정책에 부합하는 법인의 업무 영향력 향상에도 힘쓸 생각입니다.

끝으로 그 동안 교과서 제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교육적 사명감으로 질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해 부단히 애쓰시는 모든 교과서 출판인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교과서를 통해 세상을 보다



김선희

경기 모현중학교 교사

학교 현장의 2월은 학년말 마무리와 함께 새 학기를 준비하는 시기이므로 아주 중요하고 바쁜 업무들이 많다. 졸업식, 종업식, 선생님들의 발령으로 아쉬운 이별을 하고 새로운 선생님들과 만나게 되면 첫 교과협의회를 하고 꼭 챙겨가야 하는 것이 바로 새 학교 교과서이다. 물론 전 학교에서 가르치던 교과서와 동일한 종일 수도 있지만 새 마음으로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과 내용을 더 알차고 재미있게 가르쳐야지 다짐하며 심기일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교사에게 교과서는 밥줄의 의미를 넘어서 학생들에게 정보와 지식을 즐겁게 가르치며 소통하는 중요한 도구이자 교사와 학생을 이어주는 매개체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필자는 2년간 교과서모니터링을 하면서 한국교과서재단과 인연을 맺게 되어 '교과서'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교과서를 둘러싼 수많은 카테고리들 아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단계이다. 특히 2013년은 역사 교과서 편향성 논란으로 국가적 진통을 앓았던 해라 교과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위상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하게 되면서 '교과서' 관련 기사나 공문을 더 유심히 보게 되었다. 작년 가을 재단

측에서 국제교과서 심포지엄 초청장을 몇 차례 메일로 보내주셔서 가볼까 하는 호기심이 생기기도 했지만 학교에 매인 몸으로 평일 오후 시간을 내기 힘들어 그냥 지나치고 말았다. 그러던 중 한국교과서재단 홈페이지에서 교과서연구지를 보고 그 심포지엄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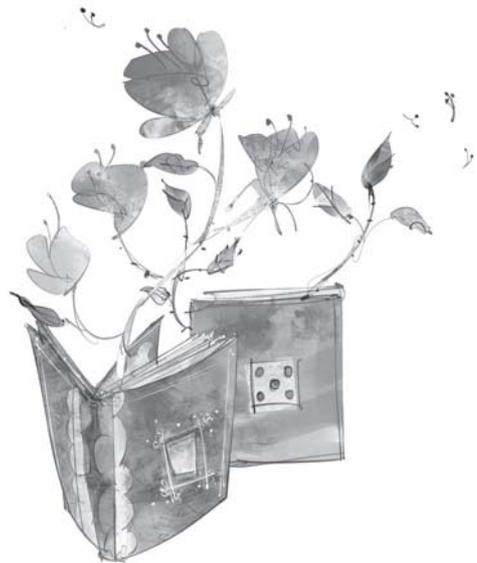
「교과서 연구(제74호)」에서 특별기획으로 다룬 2013 국제 교과서 심포지엄의 주제는 '수업 및 평가에서의 교과서 활용과 전망'으로,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의 저명한 교과서 관련 학자, 연구자들이 모여 교과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과 정보 공유의 장이 되었다. 세계교과서학회 회장의 기조 강연 중 인상적인 것은 컴퓨터나 각종 스마트 기기들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도 종이로 된 '교과서'에 대한 의존도가 컴퓨터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다양한 교과서관을 바탕으로 교과서가 가져야 할 위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소개되었는데 많은 교사들은 교과서가 교육의 질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고 간주하고 교과서를 교육과정 개혁의 유용한 도구, 새로운 교수법을 위한 아이디어 원천으로 간주하며 활용하지만 한편에서는 교과서에 의존하는 경향은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

야 한다는 공통된 의식을 조장하고 이는 자유로움과 독자적인 의사 결정을 저해하고 수업을 기계적으로 만든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한다. 수업자료로서의 적절성 측면과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도구로서의 측면에서도 견해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국제적으로도 교과서가 핵심 교육과정을 담아내며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이끌어내는 도구로서 아주 중요하기에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사명감과 열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자리가 되었을 것이다.

‘현장교육’에서 소개된 학생들의 궁금증을 자극하여 놀이인지 수업인지 헷갈릴 정도로 즐거운 배움에 빠져들게 만드는 수업, 융합 독서교육을 통한 팀칭으로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워가는 노련한 수업 설계를 보면서 교사로서의 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배움이 일어나도록 즐겁고 가치 있는 수업을 디자인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교과서 쓰는 날’이라는 글을 통해 어린 시절 새 책을 받고 표지를 싸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책을 살펴보던 시절의 설렘과 추억이 느껴져 잠시 시간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방학이라는 달콤한 여유를 즐기다 우연히 보게 된 「교과서 연구」를 통해 교과서에 대한 국제적 전망을 다소나마 이해하며 교과서에 대한 가치관을 재정립할 수 있었고, 같은 교과서라도 그것을 매개로 한 교

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교과서는 어떤 이에게는 학창 시절의 추억을 곱씹어 보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또 교과서는 교육과정 이든 삶의 과정이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그 무엇일 담아내어 그것을 토대로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한다. 하지만 그것이 주는 기본이 세상의 전부인 양 교과서 수준의 사고에 머물렀을 때는 참 진부하고 고리타분해진다. 교과서의 진리가 삶의 진리와 맞닿아 있다는 깨달음을 얻고 나니 「교과서 연구」를 통해 세상을 보는 안목 또한 높아진 기분이다. 🌿



**알림** 우리 ‘교과서 연구지’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교과서 연구’를 보시고 도움이 되었다고 느낀 특집기사 또는 다른 원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보내주세요. 담당자의 이메일(editor@textbook.ac) 또는 연구재단 홈페이지의 참여마당-연구지 제안에 접수된 의견 중에서 독자의 소리에 게재되면 교과서 연구지를 1년간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

# 연수를 마치며.....



김 태 현

아현산업정보학교 교사

학교현장에서 수업을 통해 자신을 많이 되돌아보게 된다. 정해진 일과와 혼잡한 업무 속에 흥미롭고 신명난 수업은 쉽지 않다. 교사가 즐거워야지 학생의 학업성취도 또한 높아진다. 스위스의 철학자 아미엘은 교육이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통해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다. 자각은 교학상장(敎學相長)으로 이루어짐을 통감한다. 난 이러한 목마름으로 못내 자신을 속박하고 있었다. 행복한 학교생활은 수업에서 비롯되고 수업을 신명나게 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교수법이 담긴 교과서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그러다가 우연히 교과서 개발 전문가 과정을 알게 되었고 연수에 큰 기대를 품고 참여하게 되었다.

추운 날씨에도 전국 각지에서 교과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고 배우고자 많은 선생님께서 함께 하셨다. 강의에 앞서 마련된 따뜻한 커피 한 잔에 몸을 녹이며 안면도 없는 분들이지만 반가운 미소로 눈인사를 했다. 교육이라는 공동된 분모 속에 같은 길을 걷어가는 동반자라서 그럴까?

초·중등 교과를 넘어 급변하는 학교현장에서 모두들 행복한 수업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시리라 생각했다. 그러한 설렘 속에 난 맨 앞자리를 꿰차고 뺏뺏한 교재를 넘기며 강의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첫 강의가 시작되었다. 교과서를 제작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교육정책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관련 교과에 대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교육이라는 큰 틀아래 연구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자리였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추어 정책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식견은 하루아침에 얻을 수 없다. 깊은 관심과 통찰 속에 꾸준히 노력하고 공부할 때 비로소

학생들에게 참 지식을 심어줄 수 있다.

짧지 않은 강의시간이 시나브로 지났다. 강의를 경청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소중한 것이며 이러한 첫 디딤이 중요하다. 생각했으면 움직여라.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 진정으로 원한다면 학생들과 즐거운 수업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지침서를 개발할 수 있다. 괜스레 기분이 좋은 건 왜일까?

하루는 강의실을 떠나 버스를 대절해 멀리 출판사로 갔다. 출판사 직원들은 분주함 속에서도 책이 완성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직접 현장체험의 기회도 주셨다. 책장에 많은 책들이 꽂혀 있지만 한 권의 책이 한 땀 한 손 정성 속에 만들어지면서도 정해진 패턴 속에 시스템화되어 만들어지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무엇보다 매일 들여다보는 책에 대한 이면의 이야기들을 새롭게 알게 되어 진정 책과 가까워지는 하루였다.

연수에 참여하기 전에는 마냥 교과서를 잘 만들어야지 하는 막연한 계획으로만 가득했다. 지금은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것 만으로도 기쁘다. 나의 심혈을 기울인 최고의 교과서 한 권을 만들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점진적으로 준비해야 함을 절실히 느꼈다.

“교육은 과거의 가치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가치창조에 있다.” 라는 교육학자 존 듀이의 말처럼 정성과 정진 속에 다듬어진 나의 교육 방법들이 우리 학생들의 가슴에서 새롭게 내면화될 때 비로소 행복함을 느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연수기간동안 귀찮음도 스스럼없이 도와 주시며 즐거운 연수가 되도록 도움주신 이림 연구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다시 연수에서 뿔 날을 기약한다.

중학교부 금상

## 어느 꼴통의 교과서 이야기



**정 윤 희**  
대전 신일여자중학교

우리 식구들은 나를 어렸을 때부터 ‘못난이’ 혹은 ‘꼴통’이라는 두 가지 별명으로 불려왔다. 그 중 못난이라는 말에는 별 불만이 없었다. 내가 봐도 언니의 생글생글한 눈빛이며 하얀 피부가 나보다 훨씬 예뻐 보였으니까. 하지만 꼴통이라는 말은 이제 나의 오기요, 끈기였다고 말하고 싶다.

여섯 살 때였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인형을 사달라고 30분 넘게 보채서 부모님이 나를 떼놓고 출발하는 시늉까지 하셨지만 난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결국 그 인형을 나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 때부터였다. 가족들이 나를 꼴통으로 부르기 시작한 건.

어린이집에 가서도 사고치기 일쑤였고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도 나는 여전히 꼴통 짓을 계속했다. 내가 선생님께 꾸지람을 들은 이유는 주로 학습태도와 성적이었다. 초등학교 때의 나는 노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좋아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모님은 나에게 절대 공부 강요하지 않으셨다. 내가 왼손잡이어서 원래 공부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다고 여기신 것 같다. 그에 비해 우리 언니는 초등학교부터 줄곧 전교 1등이었다.

반면에 나는 불량한 학습태도로 담임선생님께서 부모님과 상담까지도 하셨다. 짝공과 잡담하기, 부시렁거리며 물건 찾기, 멍하게 앉아 있기, 딴 생각하기 등 나의 가지가지 불량한 학습태도 중에서도 으뜸은 교과서에 낙서하기였다. 공부에 흥미가 없었던 아홉살의 나는 친구들이 옆에 앉아 있는데도 40분 동안 조용히 수업만 들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지루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교과서에 혼자서 오목을 두기도 하고 빙고게임도 하고 사전에 낙서를 하기도 하며 점점 과감하고 다양하게 낙서를 해댄 것이다.

보다 못한 부모님은 나를 학원에 보내셨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공부에는 아무 관심도 없이 학원과 학교를 오가며 교과서에 낙서를 즐겼다.

5학년이 되었다. 언니는 중학교에 가서도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며 엄마와 아빠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나도 뭐 한결 같이 바닥에 가까운 성격으로 엄마와 아빠의 관심을 한 몸에 받긴 했다. 이때까지도 나는 성적 꼴통이라는 의미까지 함축된 ‘꼴통’으로 불렸다.

그런데 열두 살이라는 나이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었던지 서서히 언니와 나의 차이를 의식하게 되었고 나도 공부를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다. 언니도 학원보다는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나도 학원을 끊겠다고 했다. 역시나 부모님은 반대를 하셨다. 그 때에도 나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나는 부모님이 학원을 그만 두면 그나마 진짜 꼴등은 아닌 나의 성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까봐 반대하시는 줄로 알았는데, 학원을 끊으면 산만한 내가 어떤 사고를 치고 돌아다닐까 걱정하시는 것이었다. 그 때 나는 한 번 더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얼마나 못미더우시면 내가 공부를 위해서 학원을 끊겠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못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하지만 그 동안의 나를 생각해 보면 나에게 대한 부모님의 시선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부터는 숙제는 빠지지 않고 했고, 물론 교과서에 낙서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교과서에 단지 낙서를 안 한다고 성적이 오르지지는 않았다.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 중에는 이미 6학년 것을 배우고 있는 아이도 있었고 정말 빠른 아이들은 중학교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며 지금 배우고 있는 것도 제대로 못 따라가는 나를 다시 한번 채찍질하기 시작했다.

스스로 학원을 끊었지만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뒤에는 나를 잡아줄 사람이 없는 것이 답답하고 아쉬웠다. 그래서 시험기간이면 학창시절 공부를 잘 했던 큰삼촌의 도움을 받아가며 하루 종일 냉장고 앞에 밥상을 펴놓고 전과 문제집을 일주일 동안 풀곤 했다.

그렇게 해서 내 성적은 중상으로 올라왔고 나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라 무척 만족스러웠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와 학교의 특별반인 GK반에 후보 합격자로 간신히 들어오게 되었다. 어렵게 들어간 만큼 다른 친구들의 실력을 따라 가고자 노력을 해보았지만 나의 성적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여러 선생님들의 한결같은 말씀과 수능 상위 1%의 우등생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공부비법 ‘교과서 위주의 공부’가 생각났다. 10년도 넘게 들어온 말이 그때서야 가슴으로 와 닿았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그 때부터 교과서에 낙서를 하지 않은 건 물론 필기도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했지만, 정작 시험공부를 할 때에는 이런 저런 문제집만 돌려가며 공부했던 것이다.

그 뒤로 나는 무조건 문제집을 사는 짓은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3년 동안 의지해 왔던 문제집을 정리해 버렸다. 하지만 교과서로만 공부한다는 것이 나에게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한 동안 내 성적은 제 자리를 맴돌았고 문제집의 유희를 떨쳐 버리기 힘들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한 손에는 시험지를 한 손에는 교과서를 들고 그 시험문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표시하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시험문제가 교과서 학습목표와 제목 그리고 굵은 글씨들에서 나오며 시험문제에 사용되는 도표, 그래프, 그림은 모두 교과서의 참고 자료에서 출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로 교과서를 믿고 공부하게 되었다.

교과서의 차례를 살피면서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고, 학습목표와 단원의 제목들을 입으로 소리 내어 읽으면서 이 단원에서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요점을 파악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노란색으로 밑줄을 긋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신 부분에는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어서 중요한 정도를 매겨서 공부하는 데 조금 더 편리하게 했다. 이렇게 하니 점점 선생님의 빨간 줄과 내가 쳐 놓은 노란 줄이 거의 일치해 갔다.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요점을 표시해 놓으니 교과서가 오답노트도 되고 개념 노트도 되면서 질문으로 부족한 부분까지 채워주니까 점점 교과서가 아니라 나만의 문제집이 되었다.

초등학교 때에는 전국의 교과서가 똑같아서 문제집의 내용도 다 거기서 거기였기 때문에 문제집을 통해 공부해도 학교 시험에 별로 문제가 없었지만, 중학교는 학교 교과서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좋은 내신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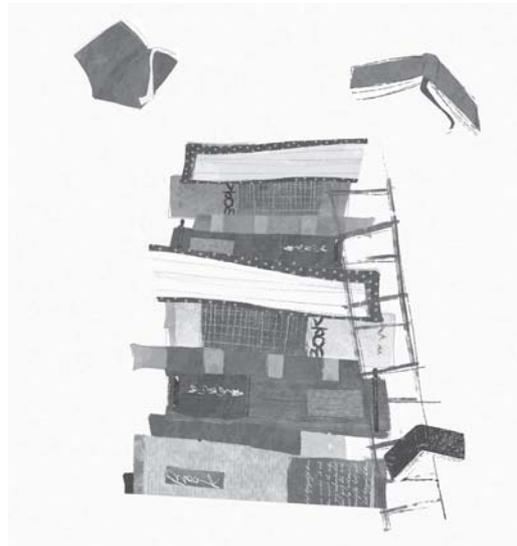
교과서는 정말 최고의 공부 자료이다. 특히 나처럼 기초가 부족한 아이일수록 공부의 바른 길을 알게 해주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도 아주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의 교육과정과도 가장 잘 맞는 것이 교과서이니 교과서는 정말 최고의 교재이자 친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교과서를 점점 나의 주된 학습 자료로 이용하다보니 성적이 오르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었다. 이제 나는 전교 3등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성적이나 등수가 전부는 아니지만 학생으로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학업에 임하며 노력을 기울여온 과정은 정말로 나에게겐 형생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없는 시체와 같다는 말이 있다. 나에게도 이제 꿈이 생겼다. 교과서를 통한 나만의 공부법을 찾게 되면서 성적도 많이 오르고 나니, 선생님이 되고 싶어진 것이다. 꿈을 갖게 되니, 나만의 그 꼴통 기질이 뜨거운 열정으로 바뀌어 잠자고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깝게 느껴지곤 한다. 가끔 너무 미련을 떨어 몸은 천근만근 무겁지만 목표한 학습량을 채우거나 새로운 걸 알게 되면 마음만은 더없이 즐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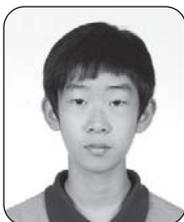
중학교 3학년의 끝자락에서 나는 정말 교과서에 대한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 몇몇 때 지난 교과서는 버리기가 가까워서 여전히 내 책장에 꽂아 두고 있다. 꼴통에서 벗어나려고 무작정 달려들었던 공부가 나에게 열정도 심어주었고 교과서라는 아주 멋진 친구도 만들어 주었다.

앞으로도 나는 나의 학창시절을 교과서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꿈인 선생님이 되려면 누구보다도 교과서와 친해지고 교과서를 잘 알아야 할 테니까. 그리고 마침내 꿈을 이루고 처음으로 교단에 서는 날 내 손때 묻은 교과서들을 아이들 앞에 자랑스럽게 펼쳐 보일 것이다. 교실에 슬렁일 감동의 물결에 벌써 가슴이 설레인다. 



중학교부 은상

## 최고의 건축물을 짓는 방법



임 성 재

서울 반포중학교

하늘에 닿을 듯한 높이의 자태를 뽐내는 마천루. 번쩍 번쩍 광이 나는 모더니즘의 건축물. 사람들은 이 커다란 건축물의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탄성을 지른다. 하지만 나는 이들의 맨 밑바닥을 보면서 감탄한다.

“어떻게 이 커다란 것을 받치고 있니?”

몇몇 사람들은 건물을 레고 집 만들듯이 차곡차곡 쌓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다. 사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맨 밑바닥이다. 바닥을 안정감 있게 만들고 튼튼한 기둥을 세워야 최고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학생의 바닥은 무엇일까? 교과서야말로 학생들을 받쳐줄 바닥이 아닐까?

“교과서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라며 무시하는 이들도 꽤 있을 것이다. 그들은 다가오는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문제집과 자습서만 쳐다볼 것이다.

나 역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업시간의 준비물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것은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사실 학습의 기초를 잡아주는 것도, 시험 문제가 나오는 곳도 모두 교과서다. 그리고 내가 교과서를 선호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더 있다. 나는 교과서를 공부로 연결 짓고 싶지 않다. 교과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각자의 진로에 보탬이 되기도 한다.

나의 장래희망은 건축가다. 편리하고 아름다운 집을 설계해서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웃음을 나눠주는 것이 나의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가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학과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뭘 해야 하는지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다. 하지만 정작 건축의 기초에 대해서는 알아보기가 어려웠다. 대학에서 쓰이는 「건축학개론」을 대충 보긴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무 막연했다. 때마침 기술시간에 「건설 기술」이라는 단원을 공부하게 되었다.

교과서에는 내가 원하던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기초를 알 수 있었다.

기술 수행평가로 건축 구조물 모형 만들기를 했다. 건축 구조물 모형은 자신이 설계한 건물을 시공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보는 것이다. 이런 모형들은 내가 좋아하는 혼테르트바서나 정기용 건축가의 전시회에서 본 적이 있다. 그것을 내 손으로 만들다니 긴장되고 설렘다. 일단 내가 만들고 싶은 건축물을 설계했다. 정식적인 용지에 설계해보는 것은 처음이라 어색한 모양이 나왔다. 설계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모형을 만들기 시작했다. 상자와 하드보드지로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접착하는 것이 어려웠다. 몇 번 고비가

찾아왔지만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건축에 대한 상식들도 배우고 내 생의 첫 건축 모형을 만들어 본 추억도 생겨서 좋았다.

내 꿈에 한걸음 더 나아간 느낌이었다.

교과서를 통해 추억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나는 평소에 영화에 관심이 많다. 영화를 보면 잠시 동안 그 세계에 빠져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화가 극장에 상영되어 지기까지 과정이 궁금했는데, 마침 「영화와 영상」이라는 단원을 국어시간에 배우게 됐다. 시나리오 부분에서 생소한 단어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흥미롭게 배울 수 있었다.

이번 수행평가는 친구들과 직접 UCC를 만들어서 함께 보는 것이었다. 나와 친구들은 보다 더 완성도가 높은 UCC제작을 위해 약 한 달 동안 소품과 시나리오를 제작했다. 우리는 얼마 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아이언맨 3(Iron man 3)를 패러디한 맨 오브 아이언(man of Iron)을 만들었다. 아이언맨의 슈트도 직접 제작해야 하고 스토리도 더 짧고 재미있게 만들어야 했다. 촬영한 날에는 폭염주의보 때문에 단축수업까지 했었다. 나와 조원들은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감독도 되고, 배우도 되고, 스텝도 되어 땀을 흘리며 한편의 영화를 만들었다.

좋은 평가를 받아서 기분이 좋았지만, 교과서를 통해 공부도 하고 중학교 3학년은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나에게서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처럼 교과서 덕분에 진로체험과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나의 바닥이 더 안정감 있게 변해가는 느낌이다.

어릴 적, 나는 새 학년이 되어서 첫 등교를 할 때 어떤 선생님을 만날지 어떤 친구들을 만날지 궁금하고 설렜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게는 바보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새 교과서도 기대하고 있었다. 나는 매년 새 교과서를 받을 때마다 집에 돌아와서 꼼꼼히 읽어보곤 한다. 사실 수학교과서에는 문제 밖에 없어 읽기 싫지만, 국어교과서나 역사교과서에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정보가 가득 들어있어서 어느새 폭 빠지고 만다. 그렇다. 교과서는 오로지 공부 목적이 아닌 자유롭게 읽고 즐길 수 있는 책이다. 가끔씩 친구들은 지금 배우는 교과서 내용들이 어른이 돼서는 쓸데가 없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옳지 못한 생각이다. 교과서가 가르쳐주는 지식들과 정보, 추억 등 분명 지금도 도움이 된다고 나는 믿고 있다.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기억나는가? 당시 49명이 사고를 당하고 32명이 사망한 대참사였다. 성수대교는 트러스식 다리인데 그런 다리는 이음새를 잘 마무리 지어야 한다. 하지만 다리의 기초인 이음새가 부실하게 제작된 성수대교는 50m의 상부트러스가 무너졌다. 건물의 밑바닥과 마찬가지로 다리의 이음새가 부실하다면 아무리 튼튼한 다리가 있어도 완벽할 수 없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문제집으로 어려운 심화문제를 푸는 것보다 기초적인 교과서를 집중적으로 풀어봐야 한다. 또 교과서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지 않는다면 높고 멋진 건축물을 만들더라도 무너져 내릴 것이다. 나도 이번 중간고사를 준비하는데, 교과서를 한번 더 읽어보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앞으로 내가 어떤 최고의 건축물을 완성할지 궁금하지만, 튼튼한 바닥과 기초공사는 지금도 교과서와 함께 진행 중이다. 

중학교부 동상

## 교과서는 나의 가사 도우미



**유 주 연**

서울 서문여자중학교

“저게 광고야?”

몇 달 전, 가족과 함께 TV를 보았을 때 일이다. 드라마가 끝나고 광고를 보던 중, 휴대폰 광고를 보고 나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광고에서는 마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고, 나와 비슷한 도래 아이들 3명이 엄마를 위해 장을 보러온 내용이었다. 세 아이들은 수박을 보면서 어떤 것이 맛있고 질 좋은 수박인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집에 있는 엄마에게 물어보았다. 수박 사진을 찍고 소리를 녹음하는 기능을 강조하는 광고였다. 이 광고를 본 가족들은 스마트폰의 새 기능에 감탄했다. 하지만 나는 이 광고를 보면서 사진에 녹음 기능이 달린 뛰어난 핸드폰이란 광고의 요지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아이들이 너무 핸드폰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만 들 뿐이었다. 즉, 이 광고는 10대 청소년들이 수박 하나 고르지 못해 어른들에게나 물어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만약 내가 몇 달 전에 이 광고를 보았다면 지금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기술가정 교과서를 통해 공부한 결과, 광고 속 아이들이 휴대폰에만 의지한다는 것을 느꼈다.

기술가정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남자들은 기술을, 여자들은 가정을 배웠다. 나는 물론 가정을 배웠다. 솔직히 대부분의 아이들이 기술가정 교과서가 왜 있는지 의문을 가진다. 또한 학년이 끝나고 나면 교과서들은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게 된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았다. 음식도 못하고 여러 살림에도 무뎠아인 나에게 기술가정 교과서가 바로 나의 가사 도우미였다. 기술가정 시간에는 주로 살림에 대해서 공부했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과일이나 채소 등 어떤 식품이 질 좋은 식품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스마트폰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수박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수박을 고를 때에는 줄무늬 선이 뚜렷해야 하고 두드러 보았을 때 둔탁한 소리보다는 경쾌한 소리가 나와야 한다. 이러하기에 나는 교과서의 도움으로 상품을 구입할 때도 손해를 보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

2년 전에도 기술가정 교과서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바로 인형을 만들어 유니세프에 기부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인형을 처음 만드는 나로써는 어떻게 인형을 만드는지조차 몰랐다. 고민하고 있을 때 내 눈 앞에 기억 한 가닥이 스쳐 지나갔다. 그 한 가닥의 주인공은 바로 몇 달 전, 기술가정 시간에 바지를 만든 일이었다. 나는 기술가정 교과서를 가지고와 바느질에 대한 부분을 폈다. 그때 내 생각으로는 기술가정 교과서는 어느 도안보다 자세했다. 나는 인형을 만들면서 유니세프 어린이를 위해서 보내는 것에 교과서가

도움이 되다니 역시 교과서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아직까지 교과서를 버리지 않은 내가 대견스러울 정도였다. 이처럼 교과서는 학교 공부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대다수의 사람은 졸업하면 기술가정 교과서를 버리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기에 그 교과서 덕분에 가사 도우미 한 분을 모신 것처럼 도움을 받았다. 물론 아직 내가 청소년이어서 크게 실생활에 빛이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맛벌이 부부이신 나의 부모님 때문에 나는 주로 저녁식사로 3분 스파게티나 라면을 끓여 먹는다. 그래서인지 나는 학교 급식이 참 맛있다. 점심시간에 급식 줄을 서려고 밖에 나갔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대로 있었다. 급식이 맛없다는 게 이유였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점심시간에 몰래 컵라면을 먹었다. 나는 이런 아이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매일 다른 반찬과 국이 함께 나오는 것은 집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매일 사먹는 음식 때문에 나의 입맛이 더욱 고유한 맛만 챙기고 밥을 고집하는지도 모른다. 어느 날, 부모님이 회식을 한다는 이유로 늦는다 하였고, 집에는 나와 동생만 있었다. 동생은 저녁밥을 시켜먹자고 했지만 어제와 음식을 사먹는 나는 더 이상 사먹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나는 기술가정 교과서를 가지고와 가장 간단한 계란말이를 해먹었다. 동생은 참 맛있다며 엄마께 자랑을 했고 나도 간단한 요리에 자신감이 생겼다.

다음 날, 요리에 약간의 자신이 생긴 나는 마치 요리책을 펼치듯 교과서를 주방에 펼쳐놓고 간단한 요리를 하려 애썼다. 모시조개 된장찌개, 고등어조림, 오이생채 무침, 이런 어려운 요리들에 도전하다가 알 수도 없는 묘한 맛 때문에 실망하기도 했다. 좀 일찍 귀가하신 엄마가 나의 이런 노력들을 보게 되셨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엄마가 공부하는 하지 않고 이런 일이나 벌인다고 화가 나신 줄 알았다. 그러나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식탁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어머니는 내가 동생과 혼자서 밥을 차려 먹는 게 안쓰러웠던 모양이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가능한 저녁에는 일찍 귀가하셨고 손수 맛있는 밥상을 차리셨다. 바쁜 엄마께 참 죄송한 일이었지만 나의 밥상은 늘 행복했다. 결국 교과서가 나의 새로운 밥상을 차려준 가사 도우미가 된 셈이다.

아무리 정보화 시대라고 말하지만 교과서만큼이나 좋은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자료를 인터넷에서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만큼 교과서는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설명해 주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준다. 또한 한 과목이라도 여러 출판사에서 만들어 내기 때문에 다양한 교과서를 접할 수도 있다. 이러한 출판사들의 경쟁 때문에 교과서는 질 좋은 교과서로 변해가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쉽게 풀이해 써놓을 뿐만 아니라 짙막한 만화나 캐릭터 그림으로 우리의 눈길을 끌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는 우리 실생활에서도 언제나 필요할 때 내 곁에 있어 주는 역할을 해준다. 

## [ 교과서 개발 연수 안내 ]

우리 재단에서는 전국 초·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대상으로 여름·겨울방학 중에 교과서 개발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과정 소개

- 과정명 : 교과용도서 개발 전문가 양성 과정(전문성 향상 과정)
  -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4년도 특수 분야 연수 기관 지정
- 연수종별 : 직무연수
- 연수 대상 : 전국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
- 연수 시간 : 30시간(인정 학점 : 2학점)
  - ※ 최저 이수 기준 시간 : 24시간, 80% 이상 출석(성적 산출 안함)
- 교과과정 : 교과서 정책·제도와 법령, 개발 방법, 편집 및 인쇄 등

### □ 기간 :

구 분	기 간	시 간	인 원	신청 마감
제 1 기	2014. 7. 28 ~ 8. 1	10:00~17:00	40	선착순 마감
제 2 기	2014. 8. 4 ~ 8. 8	10:00~17:00	40	선착순 마감
제 3 기	2015. 1. 5 ~ 1. 9	10:00~17:00	40	선착순 마감
제 4 기	2015. 1. 12 ~ 1. 16	10:00~17:00	40	선착순 마감

### □ 신청 방법

- 직무연수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2-2651-1982)로 접수
- 연수비 납부
  - 연수비 : 7만원
  - 납부 방법 : 해당 과정 신청 마감일까지 지정 계좌 입금  
(신한 140-009-109202, 예금주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선종근)
  - ※ 연수비 환불조건 : 연수 시작 10일 전까지 연수취소(포기) 신청서 제출한 자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교과서 개별구입안내

## 2014학년도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 2014학년도에 새로 보급되는 교과용도서의 판매 시기는  
2014년 3월 현재 미정입니다.



### □ 교과서별 구입처

교 과 서		구입처	전화번호
국정	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국어활동, 듣기·말하기·읽기, 쓰기 포함)</li> <li>• 과학(실험관찰 포함)</li> </ul>	(주)미래엔 textbookmall.mirae-n.com 1800-3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학(수학익힘책 포함)</li> <li>• 사회(사회과탐구, 사회과부도 포함)</li> <li>• 도덕(생활의길잡이 포함)</li> </ul>	(주)천재교육 www.chunjae.co.kr 1577-09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과목(학교, 봄, 가족, 여름, 나, 이웃, 가을, 겨울, 우리나라)</li> </ul>	(주)지학사 www.jihak.co.kr 02-330-5302
	고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계, 수산·해운계</li> </ul>	(주)미래엔 textbookmall.mirae-n.com 1800-3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업계, 농업계, 상업계, 외국어계</li> </ul>	(주)천재교육 www.chunjae.co.kr 1577-09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사·실업계</li> </ul>	(주)지학사 www.jihak.co.kr 02-330-5302
검·인정	초등 중등 고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교과서 이외의 검·인정교과서 (인정교과서 일부 제외)</li> </ul>	(사)한국검인정교과서 www.ktbook.com 02-3663-5409~12

### □ 서울지역 직매장

**(사)한국검인정교과서 직매장 - 검·인정교과서 전문매장(일부 인정도서 제외)**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47길 3 (당산동6가) 다옥빌딩 별관 2층 (☎ 02-3663-5409~12)

- 지하철 : 2호선 당산역 1번, 9호선 당산역 13번 출구에서 롯데리아, 스타벅스 사이 골목 30m지점 (동양생명 2층)

**(주)미래엔 직매장 - 초등학교용 국정교과서만을 판매**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21 (주)미래엔빌딩 1층 (☎ 02-3475-4097)

- 지하철 : 7호선 논현역 5번 출구에서 직진 도보 5분소요

# 각 지역별 교과서 지정 판매서점

지역 별	상 호	전화번호	판매 도서
서울	종로구 (주)교보문고(광화문)	02-397-3551~2	국·검·인정
	서초구 (주)교보문고(강남)	02-503-0313	국정
	송파구 (주)교보문고(잠실)	02-2140-8821	국정
	양천구 (주)교보문고(목동)	02-2062-8801	국정
	영등포구 (주)교보문고(영등포)	02-2678-3501	국정
	종로구 (주)영풍문고(종로)	02-399-5625	국·검·인정
	성북구 (주)영풍문고(미아)	02-2117-2880	국정
	영등포구 (주)영풍문고(영등포)	02-6137-5254	국정
	동대문구 (주)영풍문고(청량리)	02-3707-1860	국정
	노원구 그랜드문고	02-938-1065	국정
	서초구 서울문고(센트럴점)	02-530-0718	국정
	강남구 서울문고(코엑스점)	02-556-6002	국정
	강동구 예림문고	02-477-8600	국정
	도봉구 예일문고	010-9769-0428	국정
	성동구 경일사	02-2296-7671	검·인정
	종로구 (주)리브로(구로점)	070-4726-2841	국·검·인정
	동대문구 성현문고	02-967-3838	검·인정
	강남구 반디앤루니스	02-6002-6021	검·인정
	용산구 (주)대교문고	02-2012-3544	국·검·인정
노원구 (주)노원문고(중계점)	02-2091-0633	국·검·인정	
강동구 동북문고	02-477-8200	국·검·인정	
관악구 (주)북선커뮤니케이션	070-4700-1975	국정	
중랑구 관악도서	02-2007-7802	국정	
부산	금정구 영풍문고	051-590-8300	국정
	부산진구 교보문고	051-806-3501	국정
	부산진구 영광도서	051-816-9500	국·검·인정
	사하구 문학서점	051-204-0465	국·검·인정
	사하구 예림서적	051-203-3383	검·인정
	중구 남포문고	051-245-8911	검·인정
	중구 문우당서점	051-241-5555	국정
	사상구 태학도서	051-313-1718	국정
해운대구 영재서적	051-703-0708	국정	
대구	중구 영풍문고	053-428-6700	국정
	수성구 (주)세원출판유통(범어점)	053-423-0517~19	국·검·인정
인천	중구 (주)대한서림	032-764-7337	국·검·인정
	부평구 부평문고	032-529-0077	국정
광주	서구 영풍문고	062-364-0210	국정
	동구 종합도서	062-222-4354	국·검·인정
대전	중구 (주)계룡문고	042-222-4600	국·검·인정
	서구 세이북tm	042-611-8061	국정

지역 별	상 호	전화번호	판매 도서	
경기	수원	(주)경기서적	031-248-6300	국·검·인정
	정부	송문당	031-846-2666	국·검·인정
	안산	대동서적(주)	031-406-6666	국·검·인정
	부천	(주)경인문고	032-613-2197	국·검·인정
	구리	동원서적	031-563-4621	국·검·인정
	일산	정글북	031-922-5000	국·검·인정
	평택	평택문고	031-651-9204	국·검·인정
	분당	리브로	070-4726-2886	국정
	광명	일지서적	02-2613-2744	국정
	안양	교보문고	031-466-3501	국정
	성남	베스트북	070-7570-5172	국정
	용인	수지문고	031-265-4031	국정
	성남	중원문고	031-736-2600	국정
	수원	영풍문고	031-267-5555	국정
	시흥	한가람문고	031-404-0161	국정
	화성	더북스삼성	031-8015-4451	국정
	성남	공손서점	031-703-7279	국정
	김포	열린문고	031-982-2007	국정
	강원	춘천	교학사	033-244-0044
해운대		제일서점	033-254-4133	국정
충북	청주	유신상사	043-252-5945	국·검·인정
	충주	이학사	043-847-3493	국정
천안	천안	열린문고	041-573-0827	검·인정
	천안	천안서적	041-578-1545	검·인정
	천안	국민도서	041-558-0004	국정
전북	전주	홍지서림	063-288-5311	국·검·인정
전남	순천	중앙서림	061-723-9902	국·검·인정
	목포	책사랑문고	061-279-2504	국정
경북	포항	학원사	054-249-3396	국·검·인정
	경산	성암교재사	053-811-8222	국정
	경주	현대서점	054-742-4885	국정
경남	창원	그랜드문고	055-283-2848	검·인정
	창원	창원서적	055-282-1544	국정
	김해	근비서점	055-343-7895	국정
	마산	영풍문고	055-240-5690	국정
진주	대양서적	055-741-2835	국정	
제주	제주	탐라도서(주)	064-755-3335	검·인정
	제주	현대서점	064-748-1177	국정



## ◎ 교과서 정보관 이용 안내

### | 운영 개요 |

- 우리나라 교과서의 수집 및 보존
- 외국 교과서 수집 및 보존
- 교육과정·편수 자료의 수집 및 보존
- 교육과정·교과서 제도 관련 자료 수집 및 보존
- 교과서 관련 자료의 DB 및 정보 인프라 구축
- 교과서 관련 연구 단체 협력 체제 구축
- 교과서 및 교육과정 정보 제공
- 교과서 비교 전시회 개최 등

### | 보유 자료 |

구분	국내	국외	계
교과용 도서	39,400	8,379	47,779
일반 자료	2,988	-	2,988
계	42,388	8,379	50,767

### | 열람 시간 |

평일 | 오전 9시~ 오후 5시

점심시간 | 12:00~13:00 \*토요일, 공휴일은 휴관합니다



02-2651-1953

www.textbook.ac

서울 서초구 반포동 706-9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빌딩 4F

- 지하철 7호선 노현역 3번 출구
- 버스 : 3412, 462, 4312, 642, 9408번



한국교과서연구재단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

## 교과서가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교과서 개발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등 우리나라 교육의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



# 교과서 기증 협조 안내문

평소 우리 재단의 육성·발전과 교과서 연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 유일의 교과서 전문연구기관인 우리 재단에서는 지금까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발행된 국정·검정·인정 교과용도서를 모두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교과서의 전시, 보관, 열람, 연구자료 제공에 기여하는 곳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교과서정보관'이 유일합니다.

교과서 발행의 특성상 발행시 수집 대상에서 누락되면 향후 수집이 어렵게 되어 교과서 관련 정책연구 및 민원발생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재단에 교과서를 보내주시면 향후 해당 교과서를 열람하고 싶은 경우 누구라도 우리 재단 '교과서정보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알려 주시면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정보관(도서관)에서 책자와 pdf 파일을 수합하여 보존하고자 하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 사항

- 전 교과용도서(교과서, 교사용지도서 각 2부, pdf파일)
- 학교 자체에서 개발하여 사용하는 교과서 역시 각 출판사 또는 인쇄소에 인쇄 의뢰시 제출처를 한국교과서연구재단으로 명시
  - 부록자료 있는 경우(CD, DVD, 오디오·비디오 테이프 포함)
- 납본처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47 한국교과서연구재단 교과서정보관
  - 전화 : 02-6206-6357 (담당자 : 유순기)
  - 이메일 : sky@textbook114.com 또는 editor@textbook.ac(pdf 파일 제출)



## 교과서 연구지의 발간에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 참여 분야

<현장교육>, <논단>, <단상>, <제언>,  
<교과서 편집자의 변>, <독자의 소리>

### ▶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연구활동,

- 교과 운영과 교과서 활용 사례 연구 활동,
- 교과서와 관련된 제언 또는 단상,
- 기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등



보내실 곳 : [editor@textbook.ac](mailto:editor@textbook.ac)

문의전화

02-6206-6357 「교과서연구」 담당자 유순기

# 호두가 1등 이 되는 세계상

천재교육이 앞장서겠습니다.

“엄마, 독도에 코끼리바위가 살아요.  
코끼리바위가 괄이갈매기를 매일 잡아주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우리 독도엔 코끼리바위가 있습니다.  
이제 독도도 교과서로 배웁니다.  
우리의 독도는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하니까요.  
독도 사랑도, 독도 공부도 우리가 1등입니다.

 천재교육



1948년

교과서 사업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었습니다.

2014년

교육, 출판 및 국내외 인쇄사업을 아우르는 새로운 교육출판문화를 창조해가고 있습니다!



# 미래엔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사업본부**  
검정교과서, 참고서, 파사주논술



**교과서사업본부**  
국정교과서, 인정교과서



**출판사업본부**  
아이세움, 아이즐, 휴이념, 북폴리오, 와이즈베리



**인쇄사업본부**  
국내·해외인쇄, 디지털인쇄



**계열사**  
전북도시가스, 서해도시가스, 현대문학, 미래엔 에듀케어, 미래엔 인천에너지, 부흥개발  
목적문화재단, 목적장학회